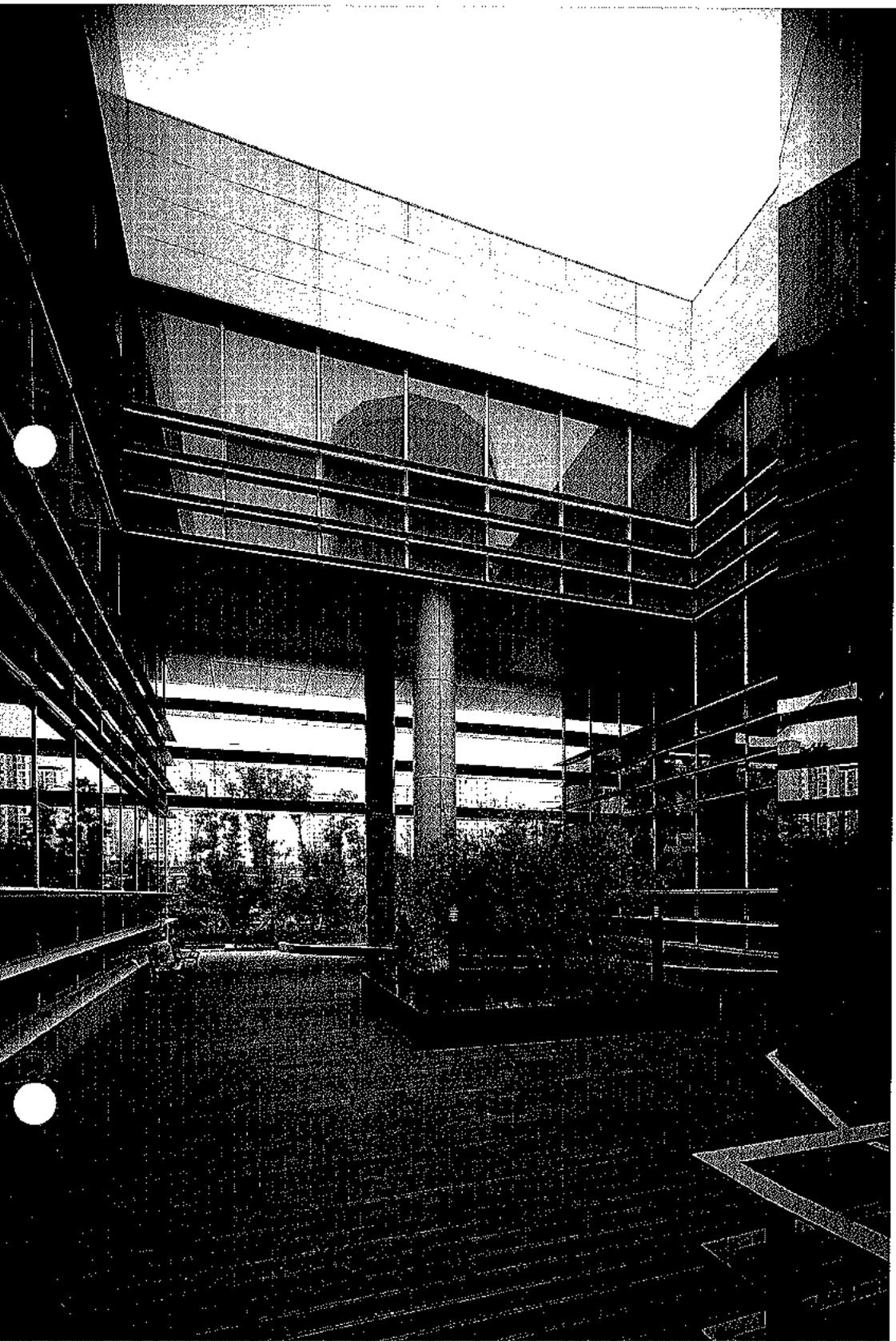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큰 건물에 강한 첨단 시스템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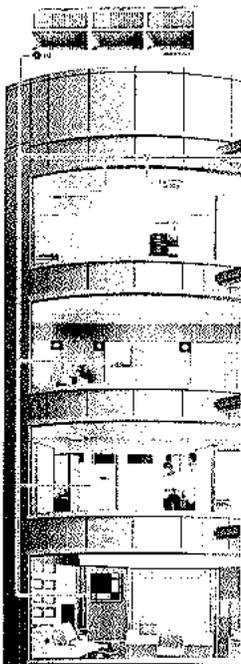
MULTI V PLUS

상세페이지를만들게해서상호판권함도뒤에가져옵니다



MULTI V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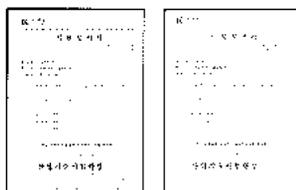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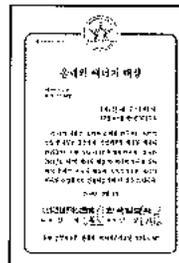
최대 46마력의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으로 중대형 빌딩 공조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7중 실외기 설치 대비 설치면적 44%, 슬리브 권경 50% 축소)

- 실외기 용량 : 최소 5hp에서 최대 46hp까지
- 120m 최장배관, 50m 수직배관
- 고급 중앙제어, PC/인터넷 중앙제어, 적산전력 분배 등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Network Solution 시스템
- 국내 최초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
: LRP-N4600BH, LRP-N5800B, LRP-N5800BH

★ 소비자 및 정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서

LG전자 MULTI V - 제7회 2004 올해의 에너지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전력 증설없이 계약 잉여전력활용으로 고유가 시대

난방비 걱정 끝!

가스 1년 난방비로 2년간 난방!
기름 1년 난방비로 3년간 난방가능!



세계에서 인정받은 바닥난방 전용 초절전 온수난방관!
일반용전력으로 심야전력기기보다 저렴한난방!
기존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가능!

1.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

- 1) 밀폐한 XL온돌관 내부에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의 방열로 제자리에서 열 손실없이 난방 하도록 활용한 초절전 난방기술!
- 2) 전기 압력밥솥과 같은 기존의 과학적 공학적원리를 새롭게 조합하여 비축열을 증가시킨 밀폐방식의 온수난방관
- 3) 비슷한 용량의 냉난방 부하를 계절따라 절체방식으로 활용 전력증설(변전시설) 및 기본요금 절감

2.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간편한 시설, 동파 없는 내구성 강한 난방

과열방지 장치 없는 저온 난방은 고열에 의한 화재 위험을 없애고 전자파 차단효과를 가져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중앙집중식 개별난방 System!

3. 보일러 시설이 없어 난방관리비가 불필요

대형건물 [기숙사, 연수원, 군경내무반, 실버타운, 호텔, 모텔, 콘도, 병원 등]에 강하며 일정온도 유지로 쾌적하고 고장 없는 영구적인 난방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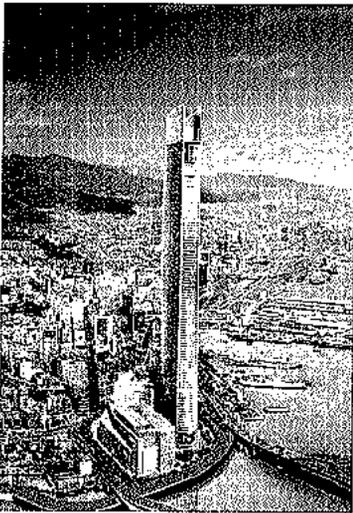
- ※ 발열선의 고열 때문에 금속관만을 사용하던 Elec Heat Pipe를 온수난방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 온돌배관 양단에 점검 Box을 설치 한 다음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하는 작업을 쉽게 하므로서 보일러 사용 온돌배관을 재활용, 가구 이동 없이 당일 시공, 당일 난방이 가능한 세계최초의 발명 특허 System.

- ◎ 세계 8개국「발명특허 등록」업체
- ◎ 『전기에너지 절약 부문』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특허청
- ◎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중소기업청 인증 업체
- ◎ 『ISO 9001:2000 인증』업체
- ◎ 『품질보증인증(Q마크)」업체
- ◎ 『전자파 환경인증서』산자부산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인증 업체
- ◎ 『전기공사업등록』업체

※당사 초절전 온수 난방관은 특허기술이므로 무단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본사를 사칭 또는 유사제품은 열선의 표면온도가 80도를 초과하여 온돌비닐 파이프가 녹거나 탑니다.

참조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255조 (전기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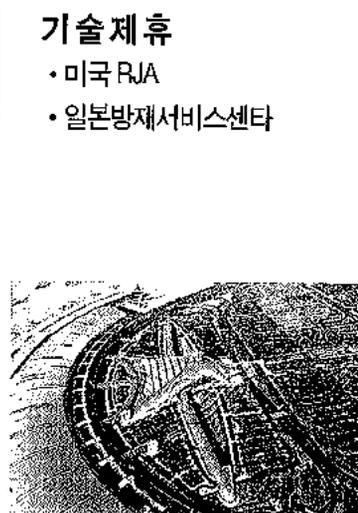
건축방재계획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비상시 대응계획 소방설계 · 감리 ·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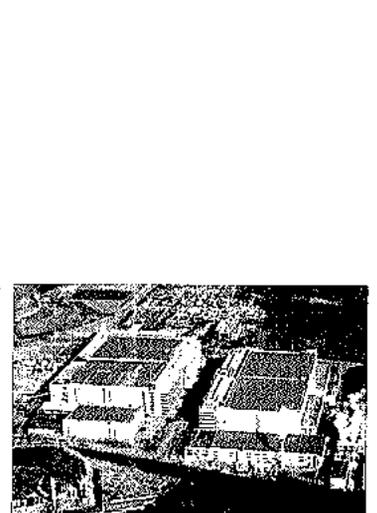
부산제2롯데월드(107층)



타워팰리스(69층)



인천국제공항



삼성반도체(화성공장)

기술제휴

- 미국 RJA
- 일본방재서비스센터



국내최대 소방방재업체

(주) 한국방재엔지니어링

www.kfpe.co.kr

Tel_ 02-579-4111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노타리식 입체주차장치



PL범영임대상책인도
3억
매대해상책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전문건설업등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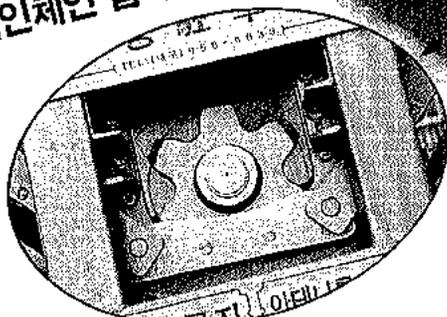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세계적 특허방식의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이렇게 다릅니다

- 일체지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주차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 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 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it을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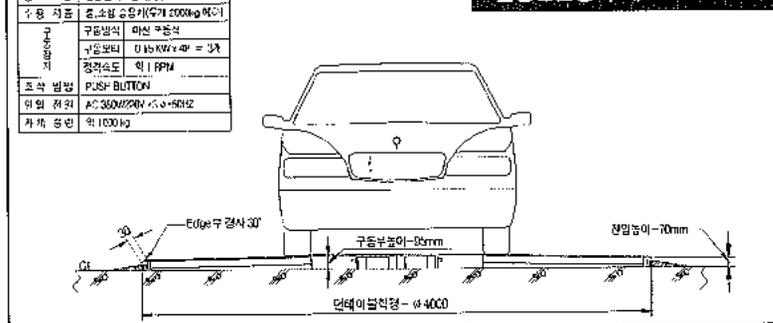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3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영	형	정공단면(단위:mm)
수용 차량	최소	중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방식	구동방식	마선 구동식
	구동모터	0.15kW/24V = 3차
조작 방식		자동/수동
외원 전원		AC 360V/220V / 50-60Hz
차재 용량		약 1000kg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SINCF 1989 한글도메인 : 주 차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하리 64번지

전국대표전화
(상담 /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F A X : 054)973-0067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7-29, FAX : 02)333-4442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명가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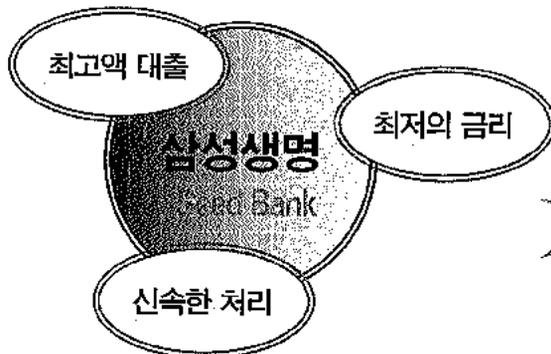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 창업자금 특별상당
-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5.7%~6.0%(10년, 15년, 20년, 30년형)
-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 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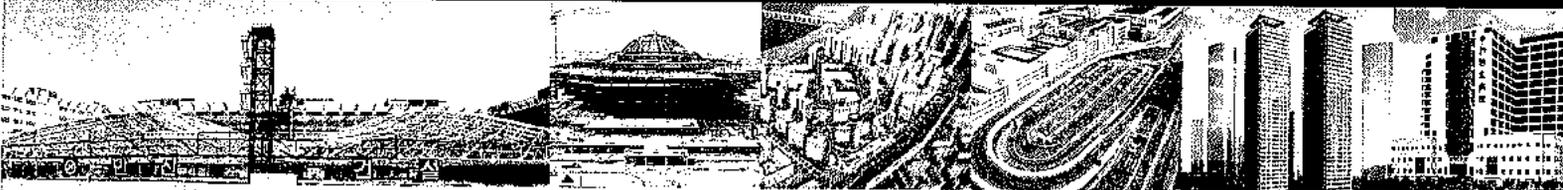
LIFE INSURANCE



우수한 건축물에는 건축사의 창작고뇌와 열정이 담겨 있다.
21세기 한국건축의 중심에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치창조의기술!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선진 건축
구조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기획 설계 • 초고층 건축 설계 • 대스팬 건축 설계 • 턴키(Turn Key) 설계 • 현상 설계 • 공기단축 / 공사비 절감 / 층고 절감형 설계
건축 감리 설계 • 건물 안전 진단 • 보수 보강 설계 • 건물 리노베이션 설계

Creative & High Technology



(주)CH엔지니어링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368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5-9 삼성빌딩 5층

TEL: (02)425-6653 FAX: (02)425-6597

www.CHENG.co.kr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주제 :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의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 주제설명

건축은 장소의 한정성과 물질적 기능의 확대욕구로 인해 더 높게 더 넓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술과 하이테크의 결합으로 건물은 쾌적한 인공환경을 갖추어 더욱 더 지능화, 자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욕망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시에 위압적이면서, 자원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건축계획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을 담은 자연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자연과 통합을 추구하므로써, 우리의 건축디자인은 자연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환경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둘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보적 관계로 얽혀있다. 서양적 이성, 근대서양의 유산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부정과 포기라 아니라 동양적, 생태적 세계관에서 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최상위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해 가치 매김을 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치 체계로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적 건축이라 해서 단순히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자연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하고 외기와 접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시건축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과 바람의 흐름과 공기의 이동을 이해하고,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재료의 속성을 깨우치고, 보다 큰 자연의 순환논리를 감지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부채 / 이안. 맥하그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 건축상은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잡성, 안전성, 상호의존성(공생)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축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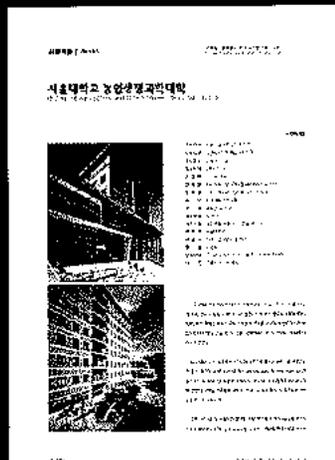
단서들 : 땅, 물, 바람, 빛, 수목, 경사지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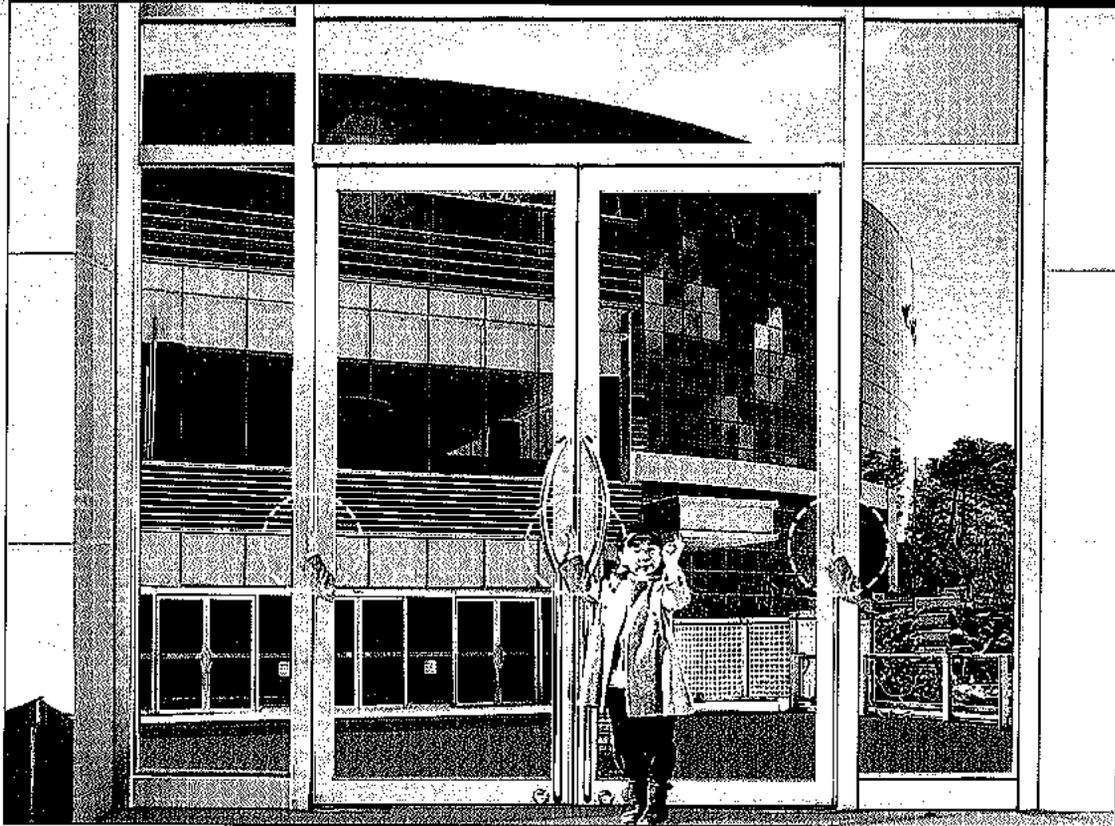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슈라이드 필름 1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요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루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A4 1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루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A4 1매 내외)>
작품노트	준공, 계획, 마실현된 작품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2~4매 내외,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공)
기 타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알리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1321-6
 동아타워빌딩2층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우편번호 137-857)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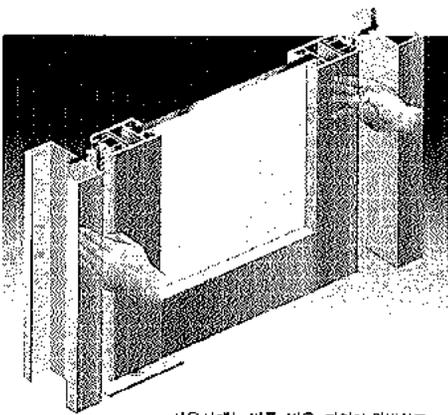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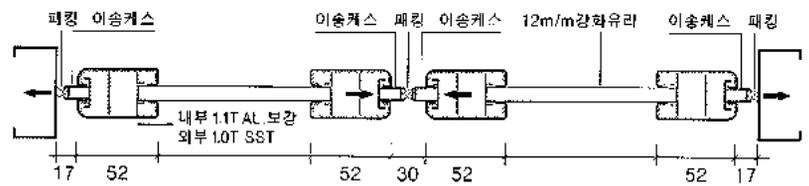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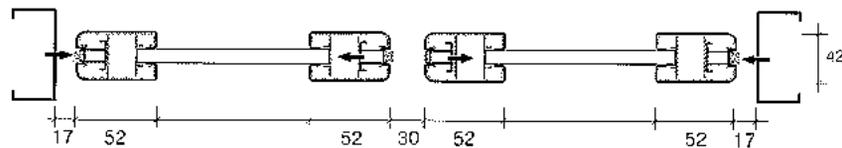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㉑ 사용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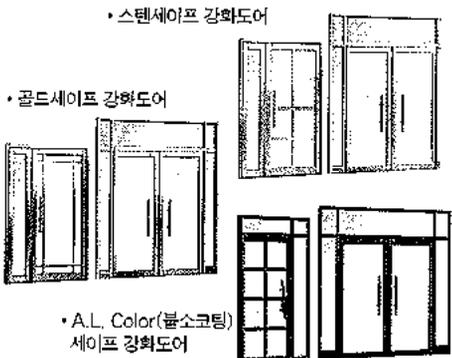


㉒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 단가표: 한국올가 자료집 432p 참조 / 유통올가 자료집 387p 참조
 ※ 공장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설치 장소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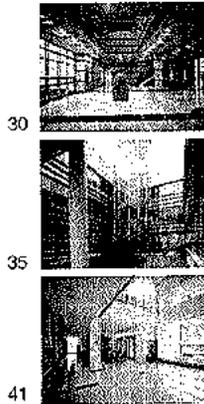
정우산업

www.safedoor.co.kr

본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을내동 1234-77
 전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처기업등록업체

Contents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8 424호

칼럼	서로의 매력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윤학경	16
건축만평		유원재	24
회원작품	성동구 종합행정마을	인길원	28
	수지도서관	김성길 김희숙	34
	태릉 현대 힐튼 스위트	민병직 김기철 신영호	44
	주상천 교회	윤승지	52
	현대해상화재 광화문 지점	대한건축사협회	62
계획작품	리 크리닉	김호만	70
작품노트	선릉타워 (조은빌딩)	김중복	74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02	최재	78
건축기행	초월의 나라 몽골	장영희	86
기고	갑자기 희서 왜 필요한 것인가?	박진식	91
건축머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5
	해외입지동향		103
	현상실계		108

발행인 이기춘
편집기획 김선강, 장영순, 김중복, 박영순, 손기찬, 오승훈,
홍시덕, 이광재, 이재림, 이준호, 주수일
취재·편집 조은원, 김민정, 조한국, 임정, 최희창, 장영희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이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9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웹사이트 http://www.kra.or.kr
E-mail korea@kra.or.kr
인쇄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69-7619
광고문의 홍보원장님



51

59

68

Column

Building a Beautiful City through Mutual Care	Yoon Hyeok-Gyeong	16
---	-------------------	----

Cartoon

	Yoo Won-Jai	19
--	-------------	----

Wor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ministration Complex	Ahn Kil-Won	20
--	-------------	----

Sujin Apartment	Kim Sang-Gil & Kim Hee-Ok	34
-----------------	---------------------------	----

HYUNDAI Home Town Suite	Kim Byung-Jik & Kim Ki-Chul & Shin Chang-Po	44
-------------------------	---	----

Juseongcheon Church	Yoon Seung-Ji	52
---------------------	---------------	----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Kwangwhamun office	Junglin Architecture	62
--	----------------------	----

Process works

Lee Clinic	Kim Hyo-Man	70
------------	-------------	----

Design note

Seolleung Tower	Kim Jong-Bok	74
-----------------	--------------	----

Serial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78
-----------------------	--------------	----

Architecture Travel

Mongolia, Nation of Grassland	Kang Sung-Ik	86
-------------------------------	--------------	----

Feature

Why is Fire Protection Planning Necessary?	Park Hoon - Sik	91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4
-----------	----

Archi-Net	95
-----------	----

Overseas Journal	103
------------------	-----

Competition	108
-------------	-----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ng Sun-I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Korean Architect

Vol. 424

August 2004

서로의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Building a Beautiful City through Mutual Care

요즘 먹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오로지 생존 그 자체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다. 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적자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우리'는 어디가고 '나'와 '너'만 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치권 탓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가? 경쟁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대가족제도의 붕괴, 핵가족화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에게 주의를 한번 줘 보라. 야마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의염치는 우리에게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도시경관도 사람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자 잘났다고 야단들이다.

건축물은 어떤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혼자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무조건 크고 넓게, 주변의 형편과 관계없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규모를 다 찾아 건축하고 있다. 건축도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사에 반한 설계가 불가능한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도시풍경을 살펴보자. 건축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어디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건축주나 법과 규정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이 도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도시를 '우리' 라고 한다면 건축물은 '나' 아니면 '너'이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어울려 도시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너'는 서로간의 양보와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에야 도시는 도시다워지는 것이다.

도시계획분야 사람들은 건축사를 욕한다.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옹적들과 견뎌줄, 심지어는 높이기준(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높이제한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까지도 도시계획분야로 이관시켰다.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분야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건축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매우 서글프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힘(외부의 힘일 수도 있고, 내부의 반작용일 수도 있음)에 의해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간판은 어떤가? 간판은 오로지 간판만 생각한다. 간판의 생명은 광고다. 주변보다 튀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무조건 커야하고, 무조건 현란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보면 건축물의 외관은 아예 무관심이다. 훌륭한 건축사가 디자인한 건축이든 아니든 문제 삼지 않는다. 오로지 간판만 걸 수 있다면 된다는 식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간판문화이다.

노유패션거리를 조성하면서 왜 입간판을 경쟁적으로 세우는지 물어보았다. 옆집에서 하니 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손님을 빼앗기는 기분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크고 현란하게 입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협정을 맺도록 했고, 지금까지 이를 잘 지키고 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손님도 늘어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윈윈전략이고 상생의 길이다.

오늘날 간판은 과연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무질서한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인지성도 떨어져 광고효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간판제작자들은 점포주나 법과 제도를 탓한다. 점포주의 요구를 제작자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고 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도시를 둘러보자.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제작된 간판이 어디 있는가를.

간판은 건축물을 배려해야한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간판이 건축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겸손한 간판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되찾아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시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정화시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도 마찬가지다.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보도포장은 보도포장대로 각각 제 잘난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것인지 경쟁을 한다. 파란색의 가로수분 덮개, 녹색의 광고물부착 방지용 싸개, 푸른색의 전화박스, 형형색색의 보도포장 등을 보면서 전체 가로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너무 유치하고 물개성적이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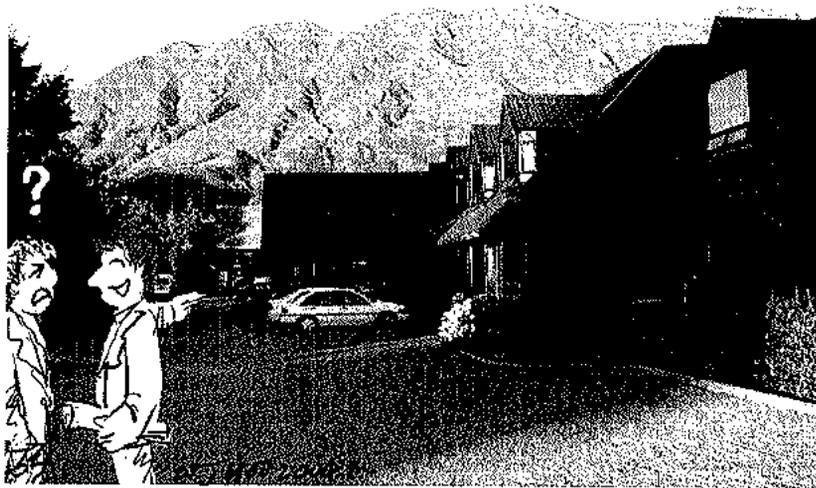
골격 높은 가로경관은 이들 가로시설물의 경쟁에서 얻기보다는 건축물과 간판, 가로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좋다. 여기도 잘된 안내 사인 시스템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나머지 스트리트 퍼니처는 있는 듯 없는 듯하며 가로에 숨어 있는 것이 좋다.

관련법령이 다르고 설치부서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를 꺾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법령을 통폐합해서라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도시풍경은 위에서 열거한 것들의 조합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도시경관이나 나쁜 도시경관의 결과는 각각의 책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분량대로 그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가 소비재(또는 의뢰자)나 법과 제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세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어서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민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건축가(건축사), 간판디자이너와 제작자, 조경 및 도로 전문가, 도시계획가, 교수 등 전문가는 제 할일을 다해야 한다.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은 이 도시의 주인인 '나'와 '너'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려는 양보하는 마음이다. 양보는 조화요 상생이다. 건축물이 도시에 대한 양보를, 간판은 건축물에 대한 배려를, 스트리트 퍼니처는 가로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



- 북향이라 겨울에 따듯한 집입니다.
- 예? 북향이라구요!

뉴질랜드 이민은 어떤 한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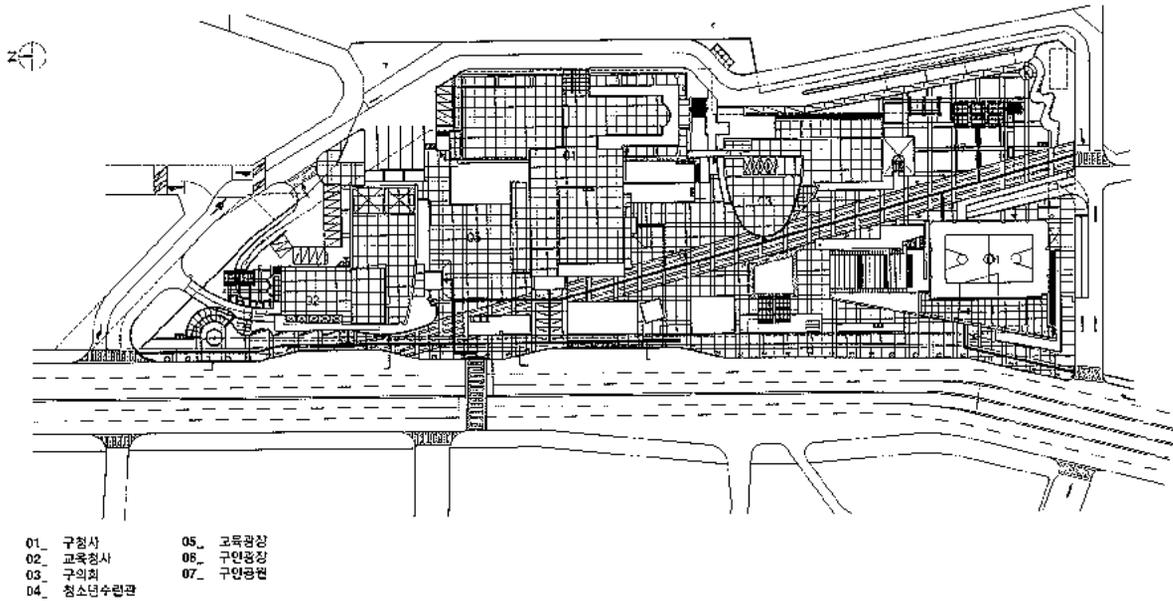
유원재/다건축 wonjaivco@hotmail.com

건축만평은 회원들의 열린 미당입니다. 이 논문 우리 협회의 공식적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스런 주제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쉬운 민회라는 경토를 통한 차원 아래분의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성동구 종합행정마을

Seongdong Administration Complex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161번지 외 32필지
지역지구	상업지역, 2중 미관지구
대지면적	20,050㎡
건축면적	5,966㎡
연면적	54,445㎡
건폐율	29.75%
용적률	144.94%
규모	지하 2층, 지상 14층
구조	구청사-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동-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446대 (지상 38대, 지하 408대)
외부 마감	18, 24mm 컬러 복층유리, 화강석 버너구이
설계총괄	원상재
설계담당	윤동환, 조민석, 김상기, 권동욱, 박형석, 김희정
사진	건축사사무소제공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마을 프로젝트인 '성동구 종합행정 마을'은 구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열린 행정 업무로서 신뢰받는 자치시대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구청사, 구의회, 청소련 수련관, 교육청사 등이 어우러져 종합적인 대민 서비스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전제 하에, 기관별로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일체화된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였다. 성동 구민의 문화와 휴식에 대한 욕구를 시려깊게 포용하는 옥외공간 조성 또한 중요한 테마였다.

국내 최초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옥외공간과 어우러져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 개방적이고 편안한 모습으로 발현될 21세기 성동구의 잠재력을 표현하였다.

입지의 성격과 계획 방향

부지는 행당동 168번지 일원 28필지로 구성된 일반상업지이며, 전면에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30미터의 고산자로를 면하고



있다. 남측 행당로터리는 성수대교와 한양대, 신당동으로 이어지는 결절점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대지의 동남쪽에 자리하게 될 왕십리 민자역사는 주변의 개발잠재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하철 2, 5호선 및 12호선은 시민의 생활중심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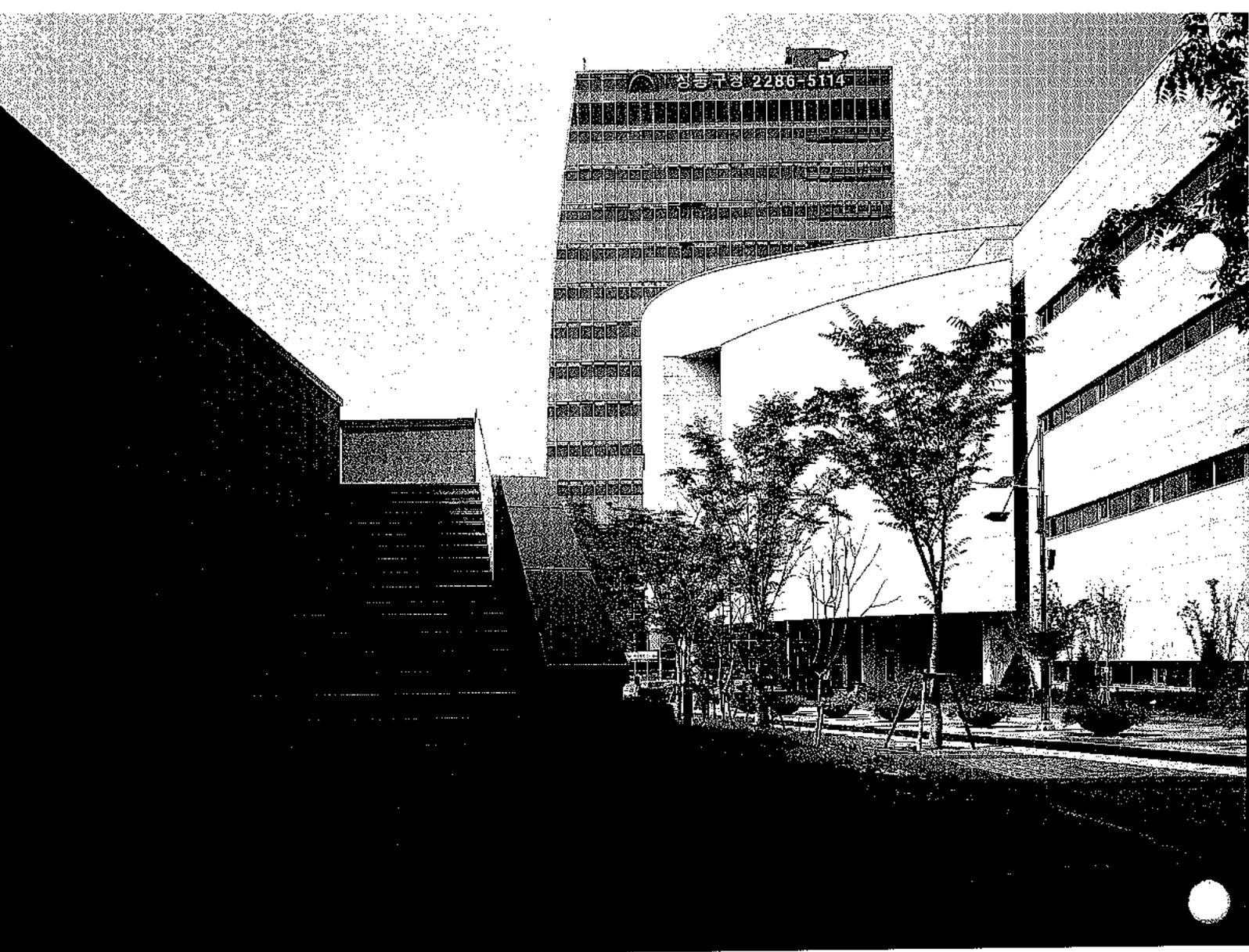
이와 같은 상업적 개발가능성으로 인하여 주변에 민자역사 이외에 3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시설과 고층의 오피스텔이 추진 또는 건설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주도의 상업시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성동 종합행정마을은 문화의 중심, 인간의 중심적 종합행정타운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민행정시설과 구의회를 중심으로한 민주적 배치계획

행정마을은 구청사와 구의회 이외에 각기 다른 성격의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행정기관간의 명확한 분리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군의 시각적, 심리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배치계획의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면의 광장을 핵으로 배치함에 따라 각 건물이 배치되고 그 앞에는 각각의 오픈스페이스가 있으며, 그 공간을 보행자축으로 묶음으로써 독립된 개별건물간의 시각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보행축을 따라 전개되는 외부공간은 개별공간간의 연속성과 시각적 리듬감을 유발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의 힘을 갖게될 것이

다. 효율적인 행정마을의 구성은 보행자우주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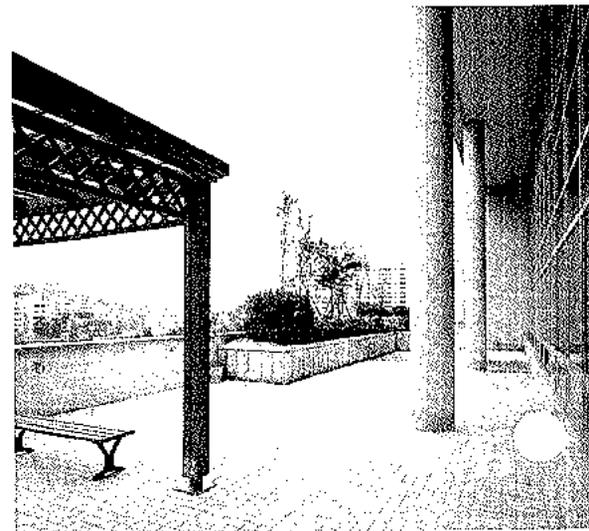
대지 내로 진입한 차량은 최대한 짧은 거리를 통과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귀빈 또는 행사를 위한 의전용 차량진입은 행사시에만 가능토록 하여 보행자우주의 옥외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서비스차량의 동선은 사용빈도가 낮은 북측과 동측의 주택가 후면도로를 이용토록 하였다. 지하로 진입한 차량은 구청사 지하에 위치한 하차장을 통과, 주차한 후 각 건물의 수직동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지하공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슬로프덱 타입의 주차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차량 이동통로와 주차장을 결합시킴으로써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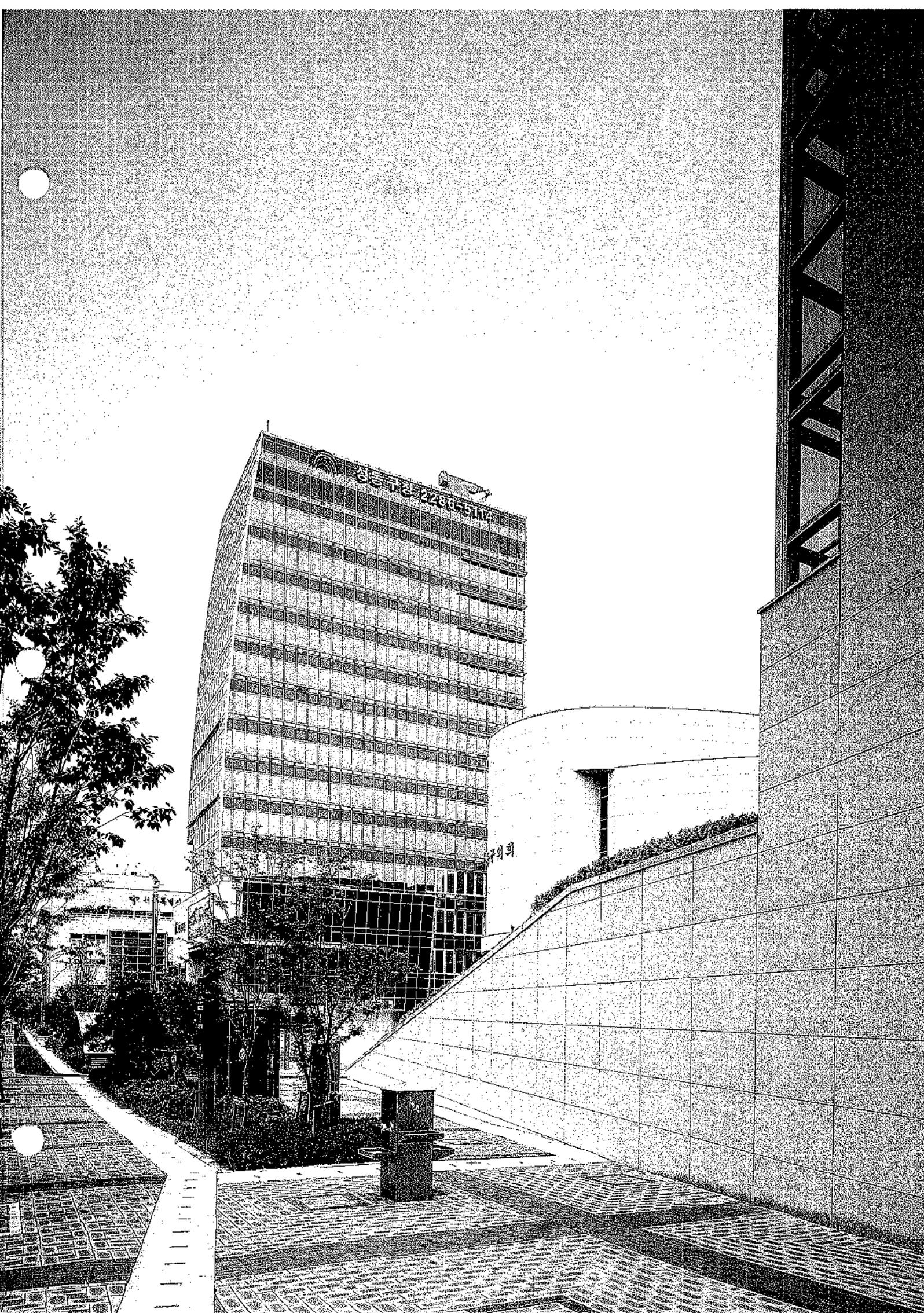


간이용 효율을 높인 방식이다.

체계적인 외부공간 계획의 수립과 전개
 민주주의 표상으로서의 의회와 구청의 대
 민 행정시설을 중심으로 행정마을을 구성하
 고 외부공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설 외부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
 여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의회를 중심으
 로 한 전면에 구성된 일련의 테마를 갖는 구
 민의 광장은 행정의 광장, 물의 광장, 문화
 의 광장으로서 행정, 휴식, 문화 등의 행사
 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상징적 역할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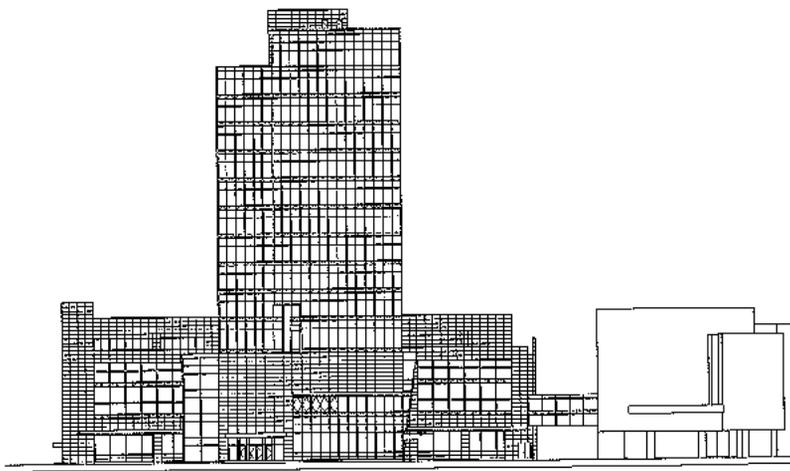
능적 역할을 이원적으로 수행하는 다목적공
 간이 될 것이다. 동시에 행정마을 단지의 상
 호관계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배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목의
 식재에 의하여 설정된 5개의 보행축은 구민
 의 광장을 중심으로 한 외부공간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각각의 보행축은
 휴식을 위한 여유공간을 둬으로써 공간구성
 에 풍부함을 부여하였다. 만남의 축, 행정의
 축, 친화의 축, 여유의 축으로 이름붙인 각
 각의 보행로는 공간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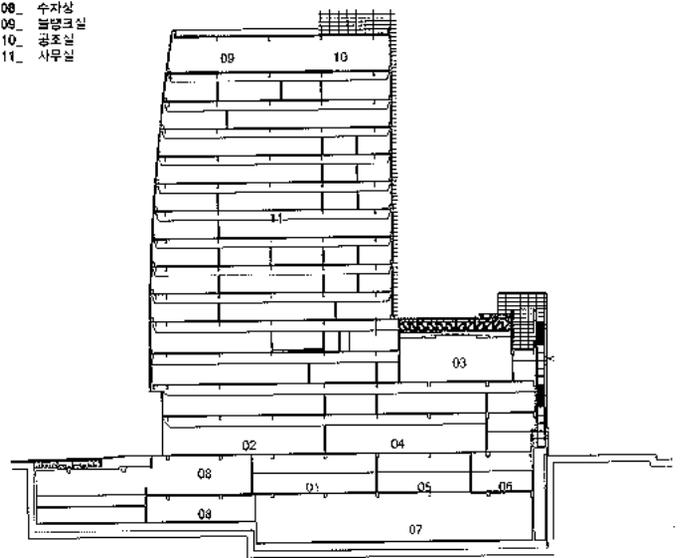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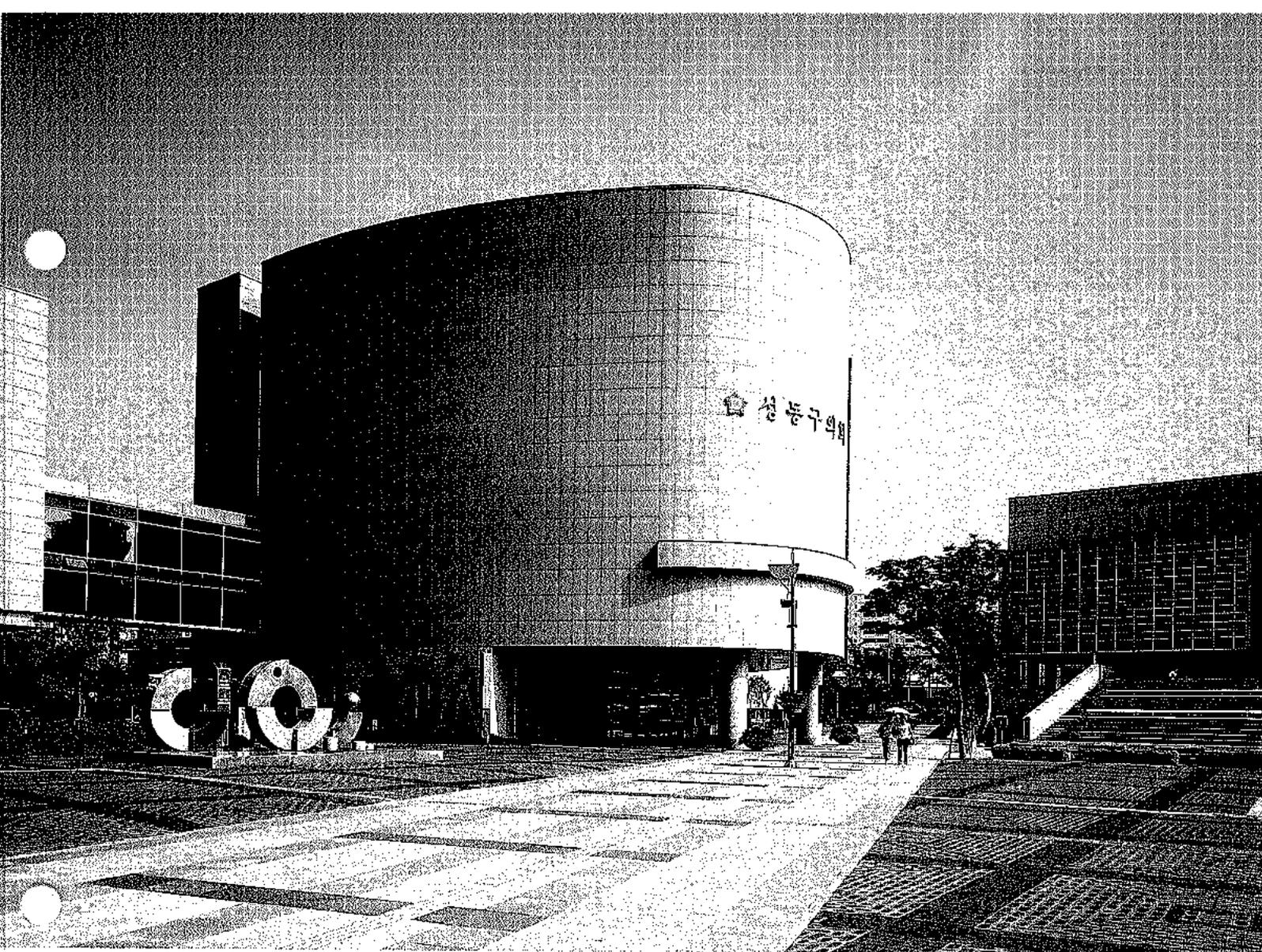
- 01. 홀
- 02. 로비
- 03. 대강당
- 04. 민원봉사실
- 05. 식당
- 06. 주차장
- 07. 기계실
- 08. 수자실
- 09. 복도
- 10. 사무실
- 11.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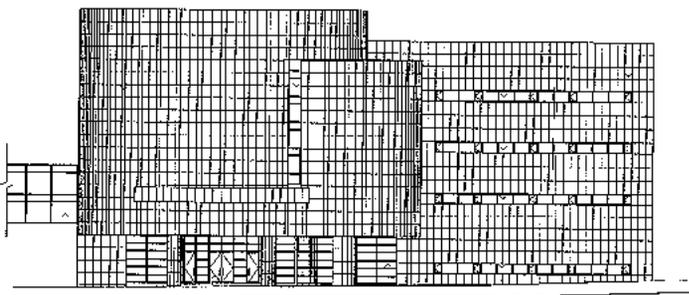
구형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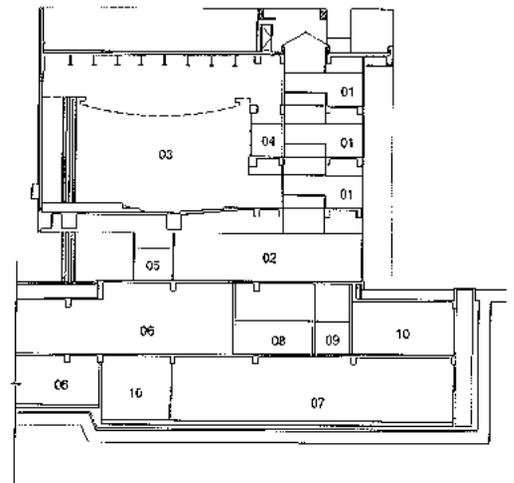
구형사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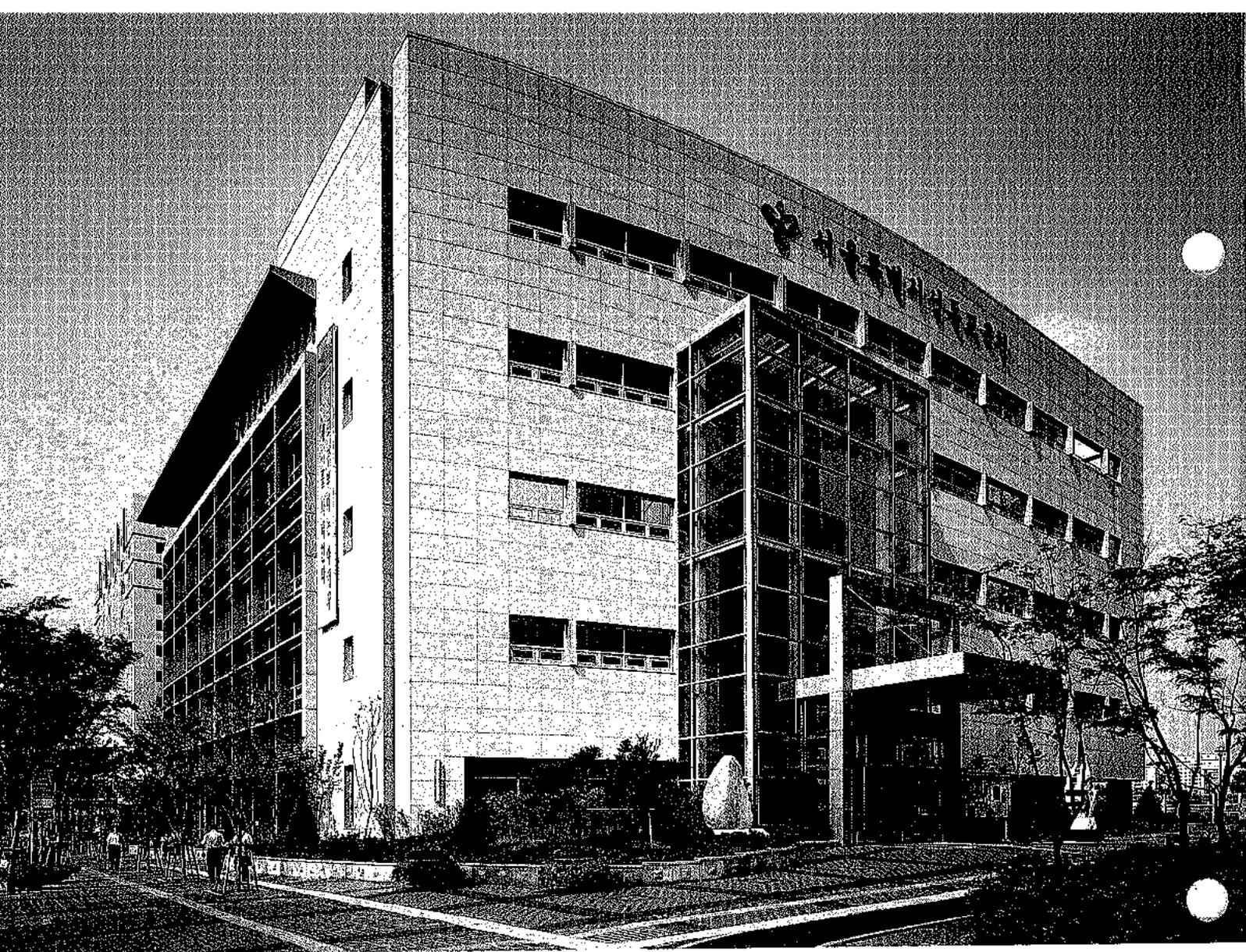
- 01. 중
- 02. 로비
- 03. 집회의장
- 04. 영자실
- 05. 영문실
- 06. 주차장
- 07. 집기실
- 08. 노조사무실
- 09. 복도
- 10. 면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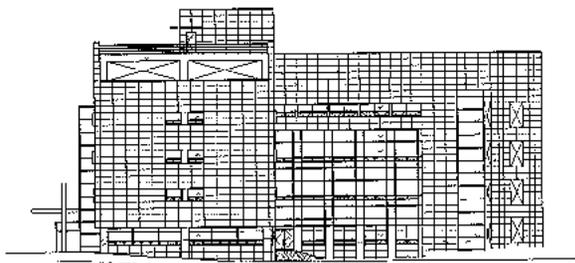
구의회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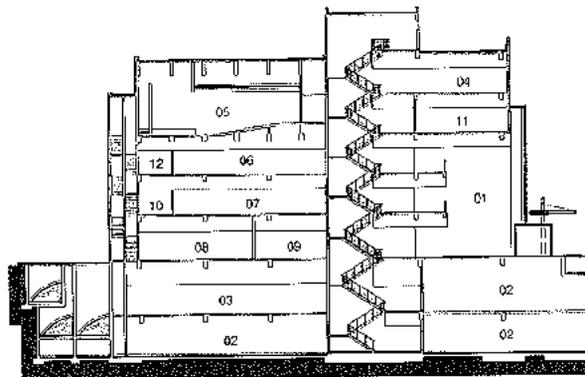
구의회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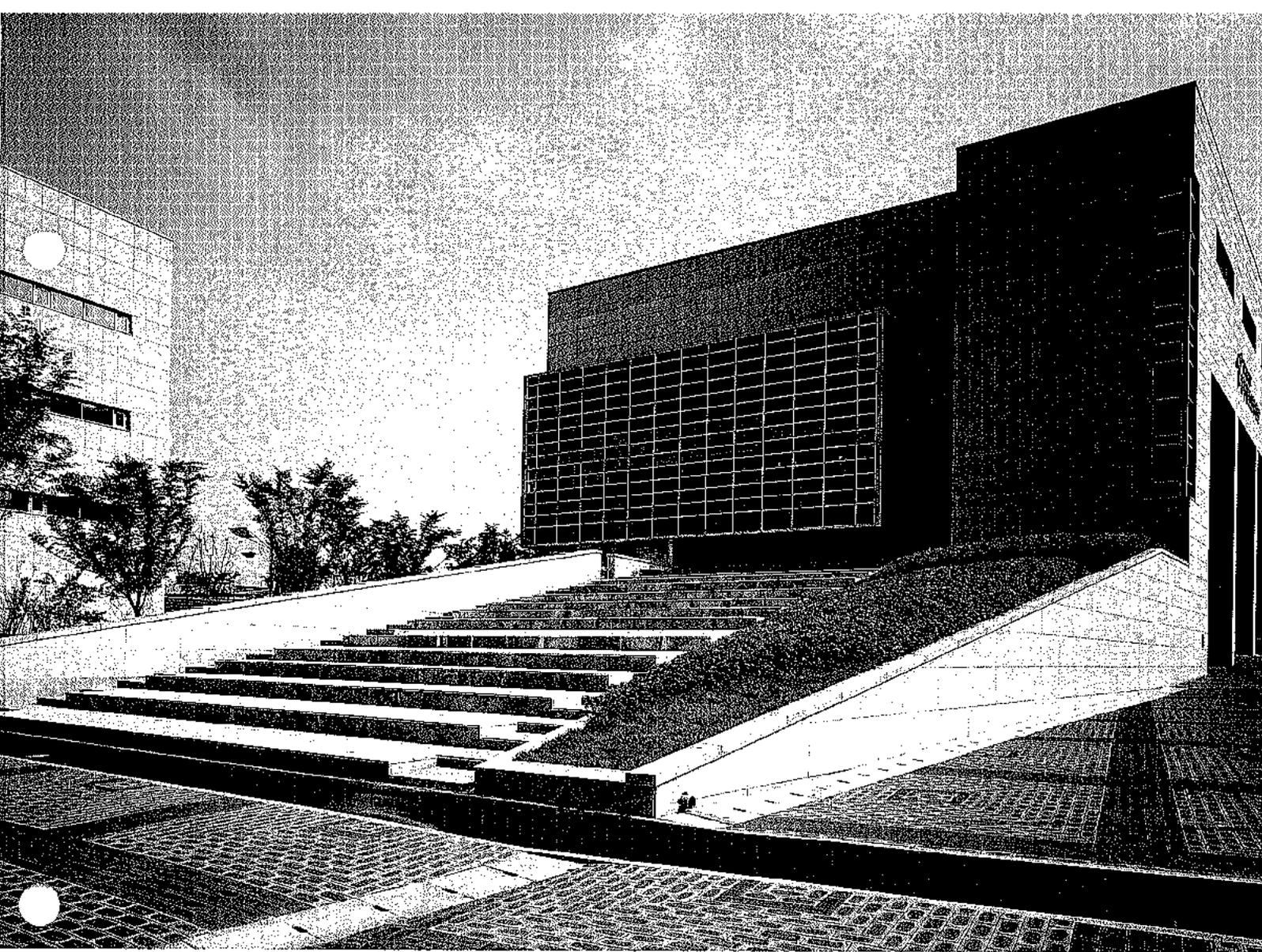
- 01_ 로비
- 02_ 지하주차장
- 03_ 공조실
- 04_ 다중도실
- 05_ 강당
- 06_ 재무과사무실
- 07_ 과학실험실
- 08_ 컴퓨터교육실
- 09_ 문서수발실
- 10_ 준비실
- 11_ 시설과사무실
- 12_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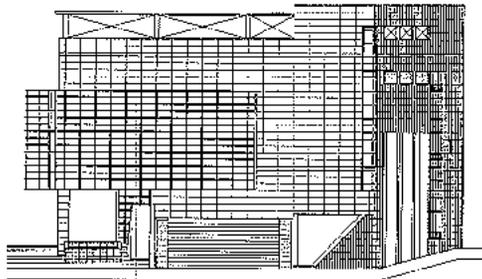
교육청사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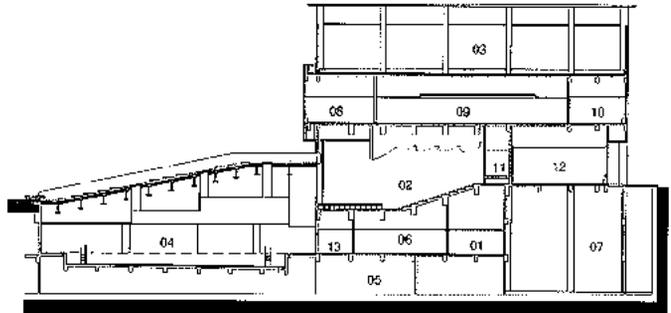
교육청사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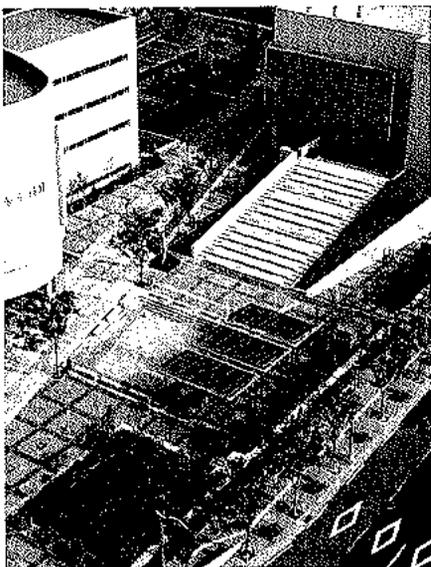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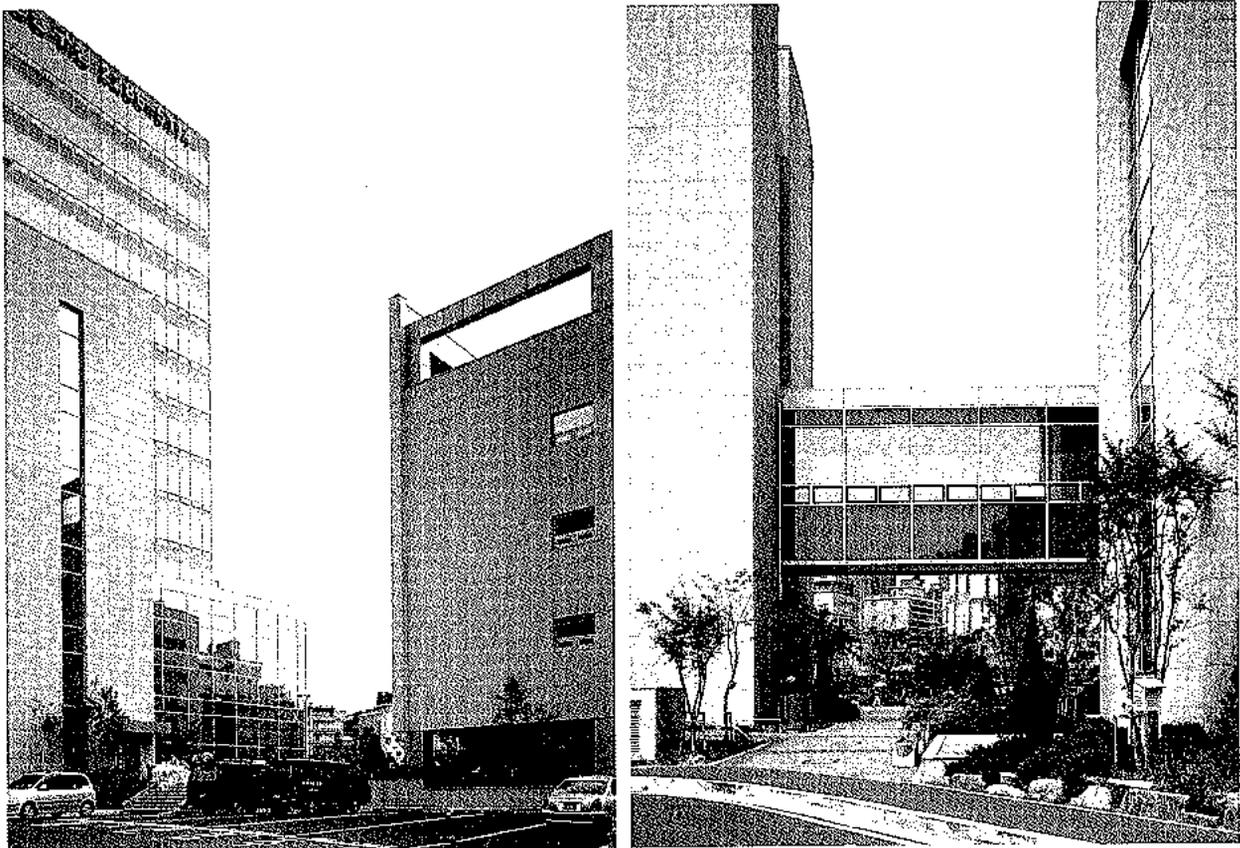
- 01_ 중
- 02_ 공연장
- 03_ 복외농구장
- 04_ 수영장
- 05_ 수영장배수입도실
- 06_ 세척단판실
- 07_ 기계실
- 08_ 회의실
- 09_ 문화의집
- 10_ 문화연습실
- 11_ 영사실
- 12_ LOBBY전시장
- 13_ 안명구조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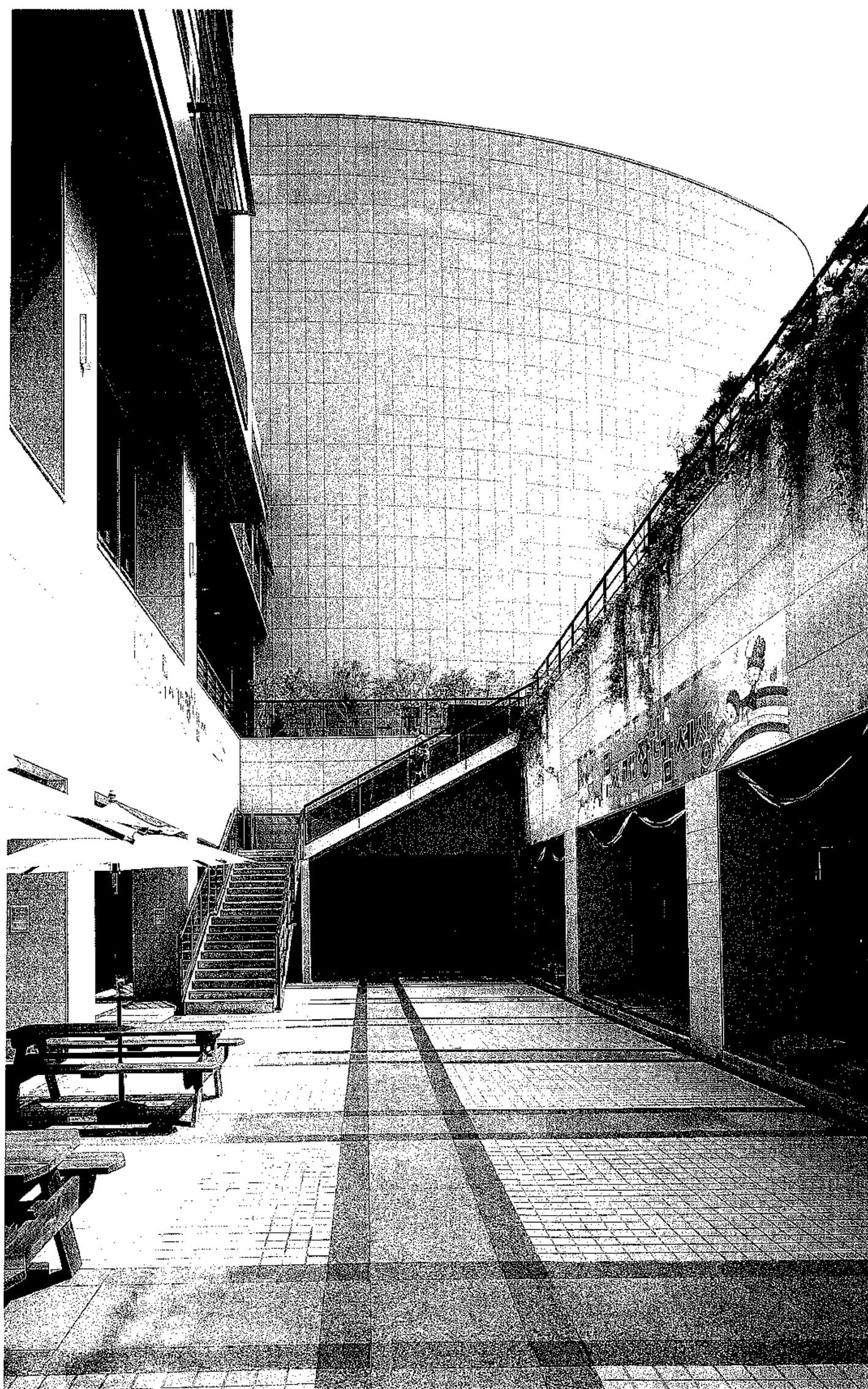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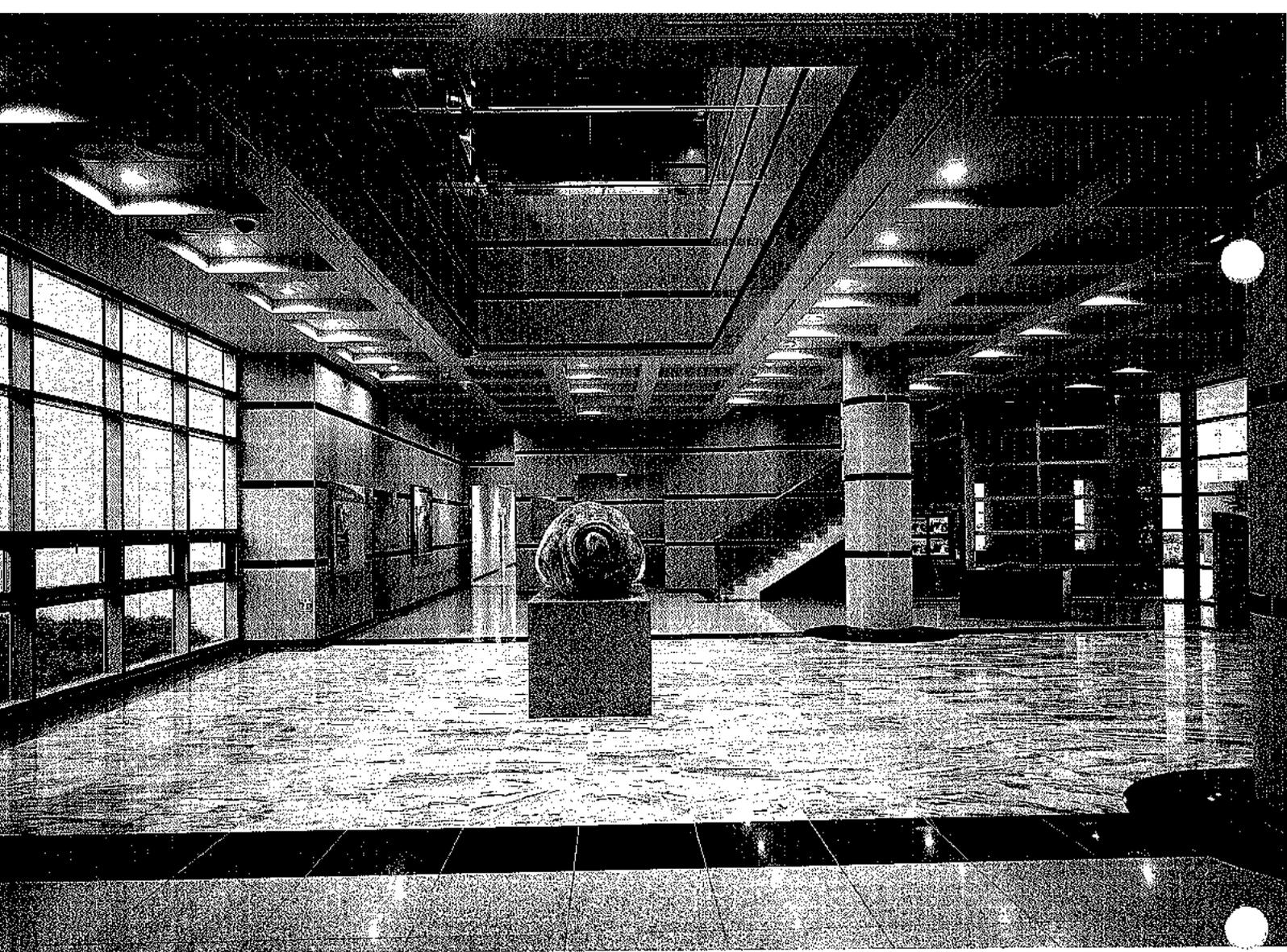
청소년 수련관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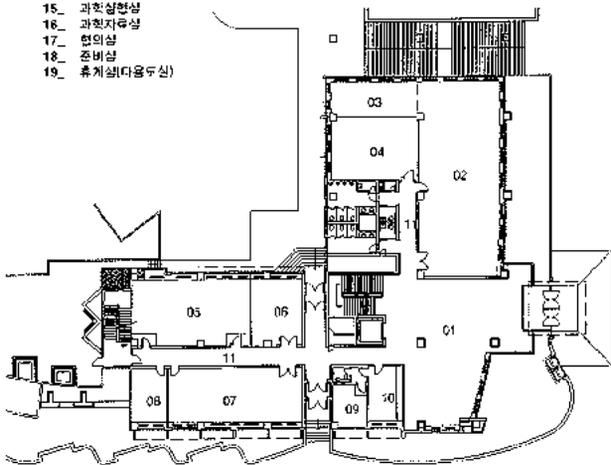
청소년 수련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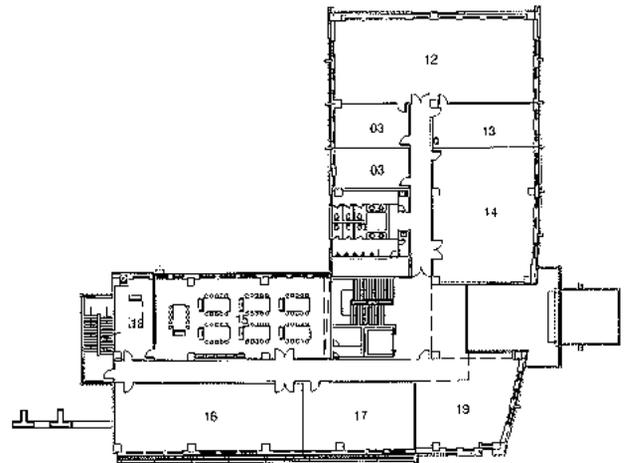




- 01_ 로비
- 02_ 사회교육체육과
- 03_ 서고건 회의실
- 04_ 문서고
- 05_ 컴퓨터 교육실
- 06_ 문서수납실
- 07_ 민선상급실
- 08_ 인쇄실
- 09_ 답작실
- 10_ 수위실
- 11_ 복도
- 12_ 초등교육과
- 13_ 사무국장실
- 14_ 중등교육과
- 15_ 과장실향실
- 16_ 과장지류실
- 17_ 협의실
- 18_ 준비실
- 19_ 휴게실(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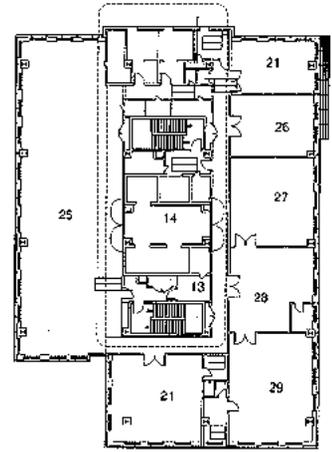
교육청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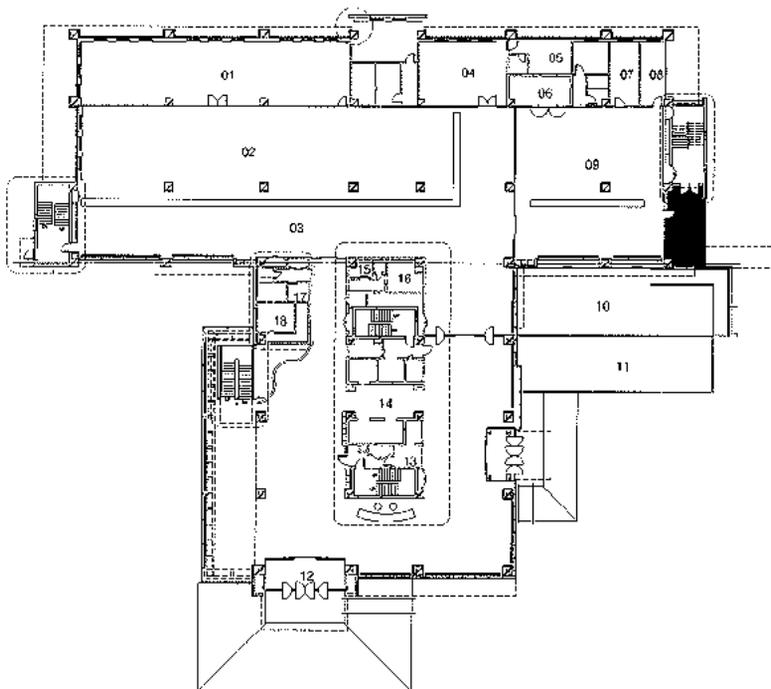
교육청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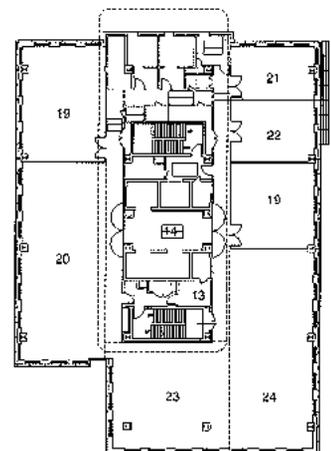
- | | |
|---------------|---------------|
| 01_ 로직서고 | 16_ 회장실(여) |
| 02_ 안원홍서고 | 17_ 장애인화장실(남) |
| 03_ 민원실 | 18_ 회장실(남) |
| 04_ 상합실 | 19_ 서고 및 창고 |
| 05_ 속리실 | 20_ 인방위재난관리과 |
| 06_ 복고 | 21_ 회의실 |
| 07_ 상담실 | 22_ 도시준리국장실 |
| 08_ 디엠도실 | 23_ 환경복지과 |
| 09_ 구급고 | 24_ 도시정비과 |
| 10_ 선관기론 | 25_ 총무과 |
| 11_ 조경 | 26_ 행정관리국장실 |
| 12_ 발충실 | 27_ 부장장실 |
| 13_ 종업실 | 28_ 부속실 |
| 14_ ELEV.중 | 29_ 구청장실 |
| 15_ 장애인화장실(여) | |



구청사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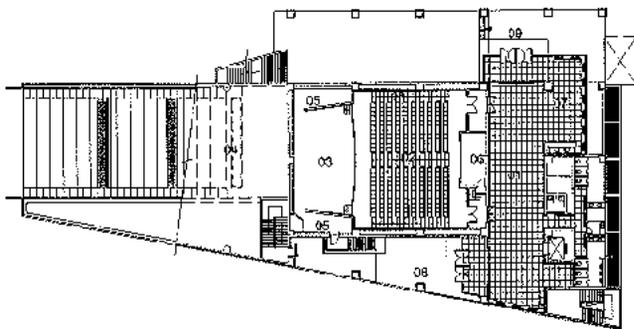
구청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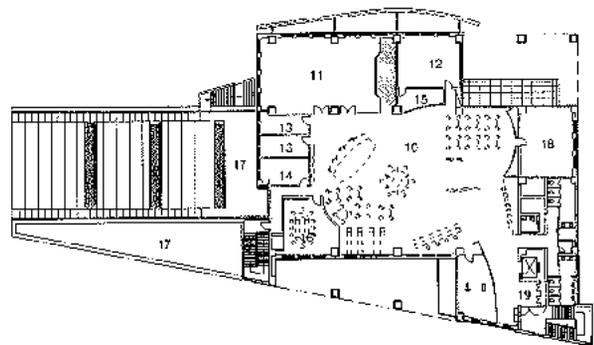
구청사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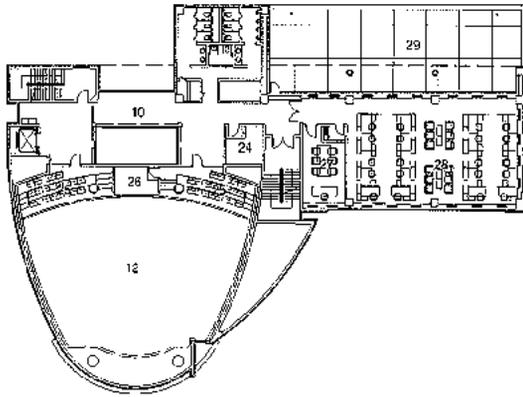
- 01. 준비
- 02. 공연장
- 03. 무대
- 04. 수영장 상부
- 05. 영구별실
- 06. 영구사실
- 07. 전시실
- 08. 주출입구
- 09. 복귀출입구
- 10. 영구회의실
- 11. 이벤트홀
- 12. 무용연습실
- 13. 회의실
- 14. 상담실
- 15. 영구실
- 16. 미술작실
- 17. 외면
- 18. 영구안술실
- 19. 스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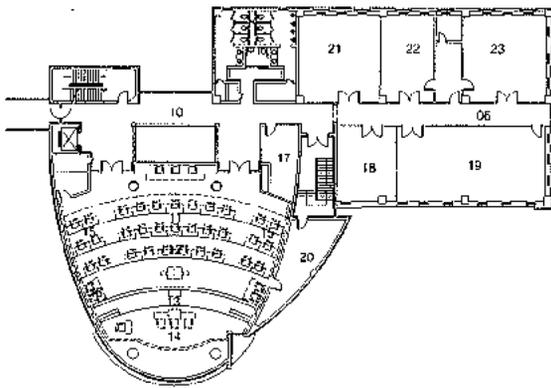
청소년수련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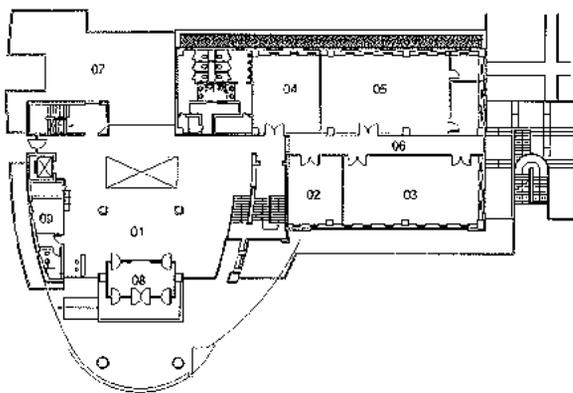
청소년수련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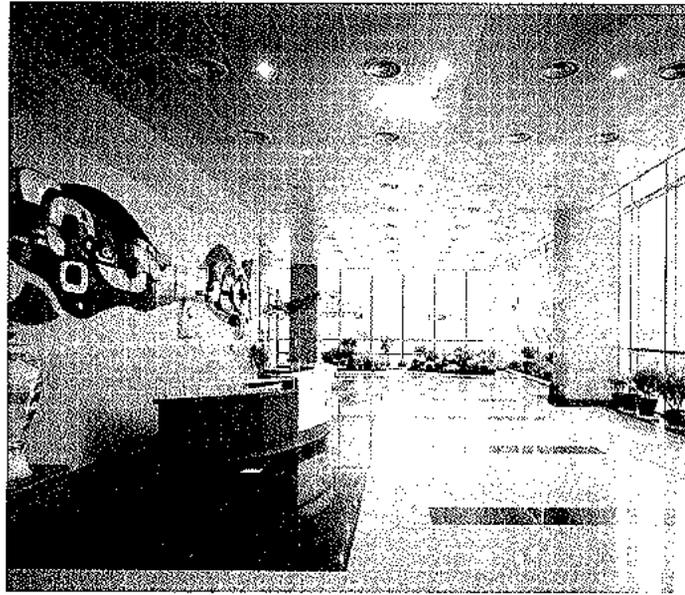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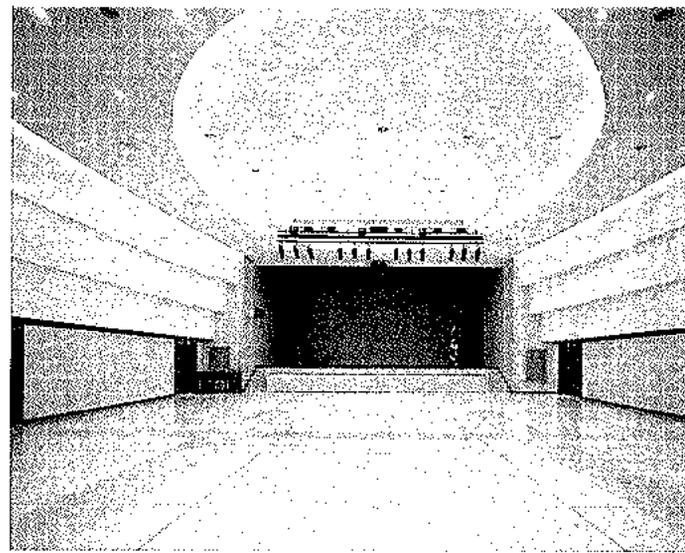
구의회 3층 평면도



구의회 2층 평면도



구의회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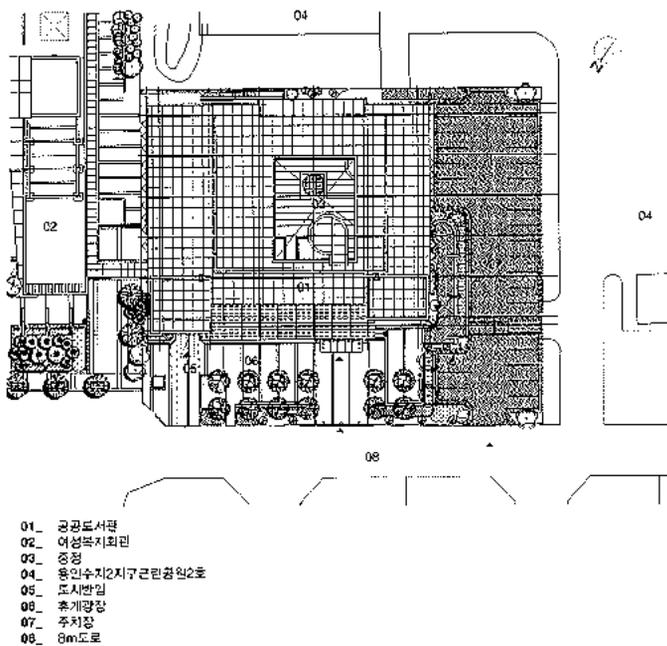
- | | |
|-------------|------------|
| 01_ 로비 | 16_ 진문위원석 |
| 02_ 사무국장실 | 17_ 구청장대기실 |
| 03_ 소회의실 | 18_ 휴게실 |
| 04_ 진문위원실 | 19_ 소회의실 |
| 05_ 의회사무실 | 20_ 준비실 |
| 06_ 복도 | 21_ 회의실 |
| 07_ 조정 | 22_ 투의장실 |
| 08_ 영접실 | 23_ 의정실 |
| 09_ 숙직실 | 24_ 통신실 |
| 10_ 혼 | 25_ 방청석 |
| 11_ 의환석 | 26_ 영사실 |
| 12_ 본회의장 | 27_ 운영위원장실 |
| 13_ 발언석 | 28_ 의회사무실 |
| 14_ 의정석 | 29_ 타라스 |
| 15_ 구청직원대기석 | |

수지도서관

Suji Libra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1088번지 (용인수지 2지구 근린공원 2호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5,538.5㎡
건축면적	1,225.22㎡
연면적	3,834.18㎡
건폐율	7.89%
용적률	20.43%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 마감	THK30 화강석 버너구이, THK4 알미늄복합패널, THK18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지용은, 최우석, 김준희, 김지선
구조	창민우구조
설비	하나기연
전기	하나기연
시공	(주)에이텍종합건설
감리	한국토지공사
사진	채수욱

현상설계안을 재설계한 도서관

용인수지공공도서관은 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수주한 작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다시말해 경쟁을 통해서 수주한 프로젝트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재설계하게 된 조금은 특별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은 현상설계경기를 통해서 작품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러 장점이 있지만 현상설계경기에 당선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여러 건축적 판단이 결국은 건축가가 선호

하는, 혹은 건축가의 신념에 따른 판단보다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보다 일상적이고 모나지 않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므로 당선 후에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발주처는 책임과 관련된 혹은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안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용인 도서관은 무척이나 즐거운 프로젝트였다. 1차 현상설계안이 여러가지 이유로 면적이 대폭 커졌고 시간도 많이 경과되어 주변의 상황이 바

뀌기도 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안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도서관의 공간 규정 방식

도서관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공간들은 알바 알토와 한스 샤로운이 설계한 도서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트인 대규모 공간에서 각 공간의 성격을 바닥레벨로 규정하는 공간 구성 방식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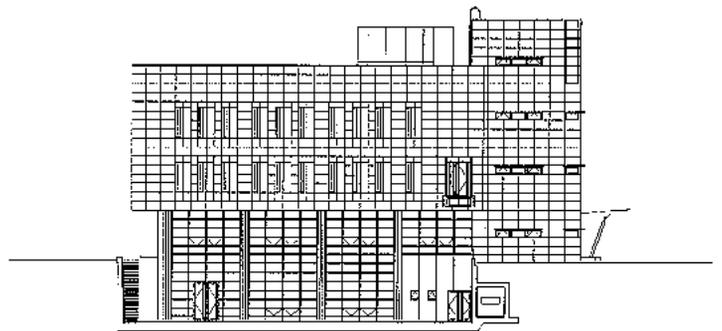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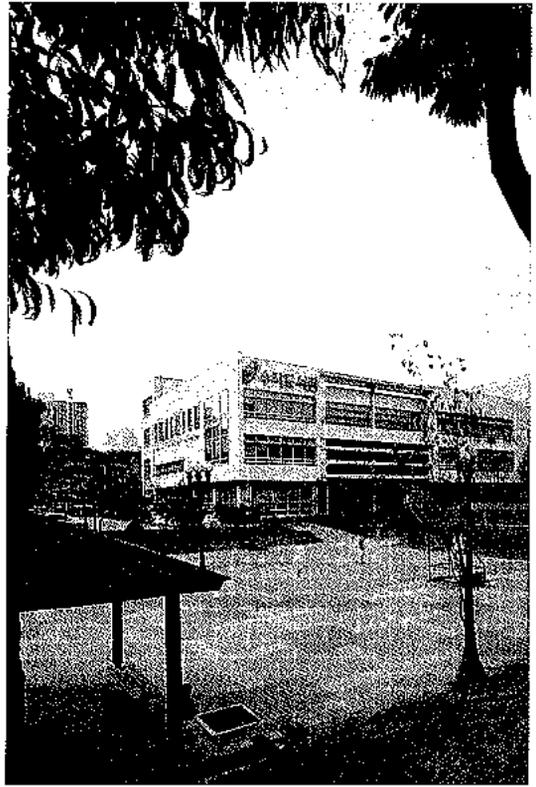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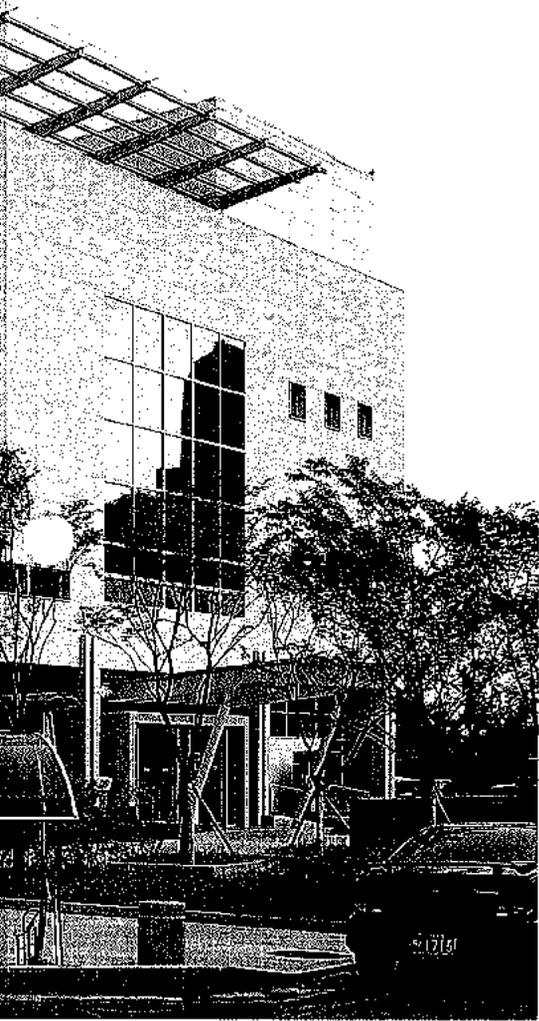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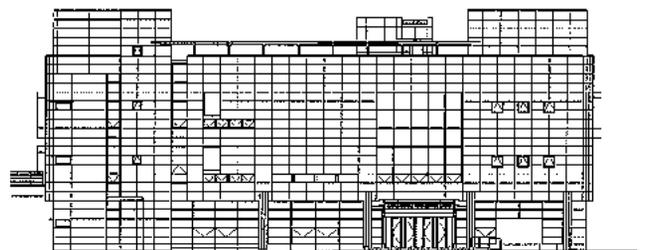
에 대해서는 서울산업대학교의 정만영교수와의 많은 대화에 기댄 바가 큰데, 공간의 영역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벽이 아닌 바닥으로 처리하는 것의 장점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도서관의 경우 기금적 벽이 없는 대규모의 공간으로 구성, 각 공간 단위는

융통성이 최대한 용인될 수 있는 근린 공공도서관을 제안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층간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려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도서관 사무공간과 주민 집합시설은 열람실 군으로부터 분리하고, 열람실 군을 최대한 묶어서 기금적 한 공간

에서 각 필요공간을 최소한의 벽, 혹은 벽으로 구획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 실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진입부에 면하는 중심공간은 오히려 비워진 중정이 면하게 되고 좌측에 열람공간, 우측에 부대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열람실내의 계단과 창문



좌측면도



정면도

부근은 책읽기 좋은 공간으로 빌트인 형식의 책상을 배치해서 즐거운 독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3층의 넓은 열람실은 중정을 가운데 품고있는 밝은 도서관으로 넓어서 유연하지만 정리가 잘 되는 공간으로 신만하지 않는 공간이 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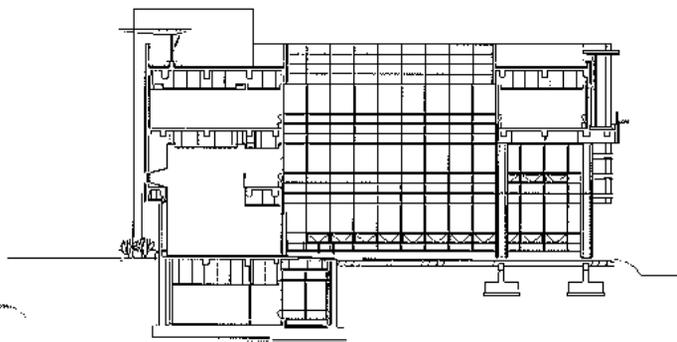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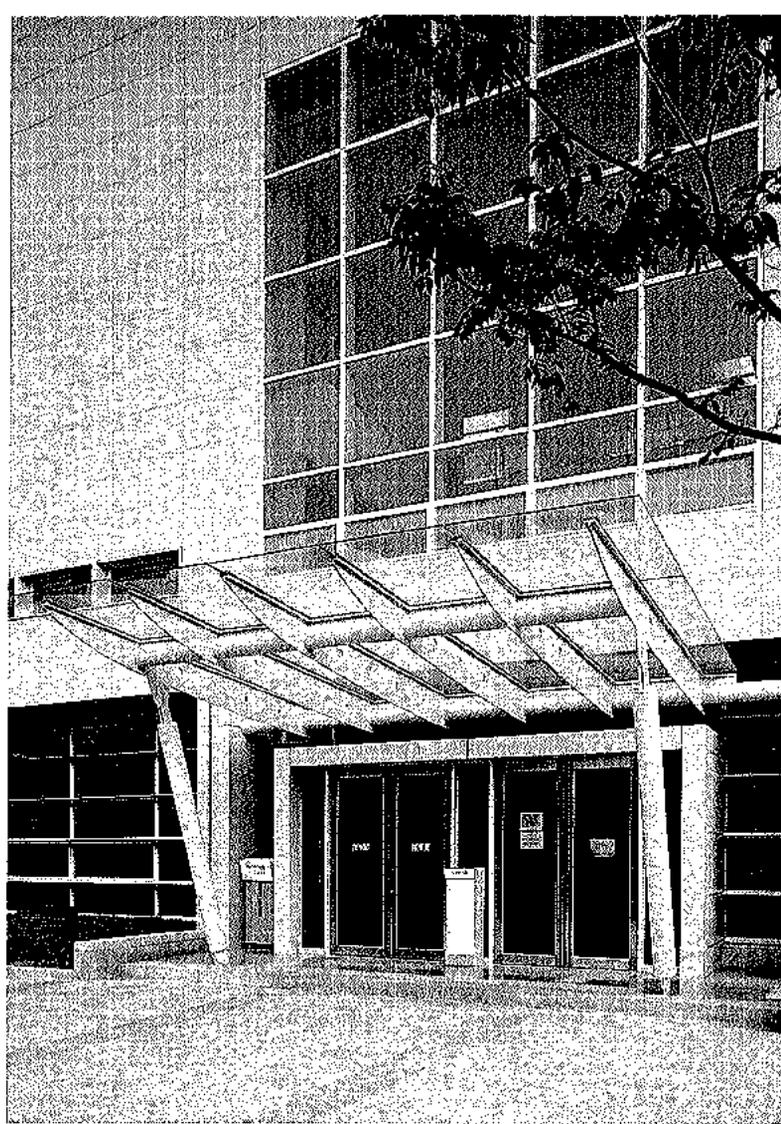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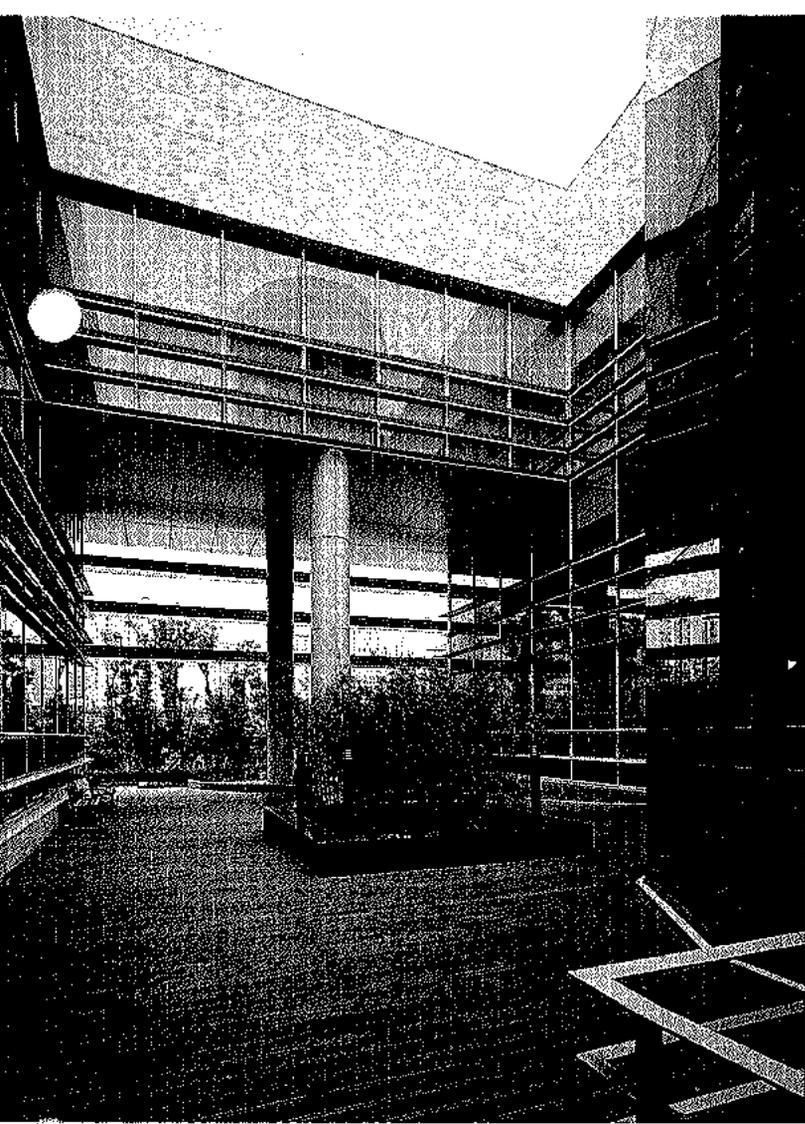
건물의 모든 창은 채광과 시선의 한정을 우선하여 계획되었으나 그것이 입면에서는 건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보통 보다 작은창과 바닥까지 닿는 큰창은 훨씬 공간의 성격을 풍부하게 만들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공건축물의 진행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거의 느끼지 못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하였고, 설계 과정에서의 '말하기'의 즐거움을 많이 누렸다. 소음에 대한 고려때문에 로비와 1층열람실 사이에 문이 생긴것과 1층 열람실과 2층, 3층 열람실 사이의 open된 공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이 되었다. 당초 생각했던 큰 공간에 다양한 레벨로 배열되고 다양한 열람공간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만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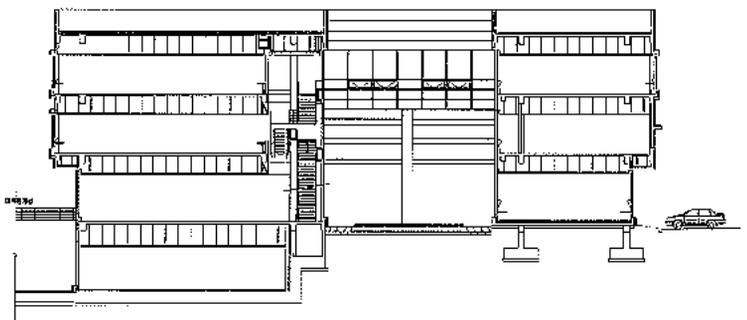
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만났던 설계감독을 수행한 분들과도 많은 논의를 하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사진행과정에서 설계자가 계속 참여 할 수 없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 PQ입찰로 결정하는 감리제도로는 원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다. 발주처와 시공사가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여지지만 도면만으로는 전달키 어려웠던 지하의 아트월을 비롯 몇 군데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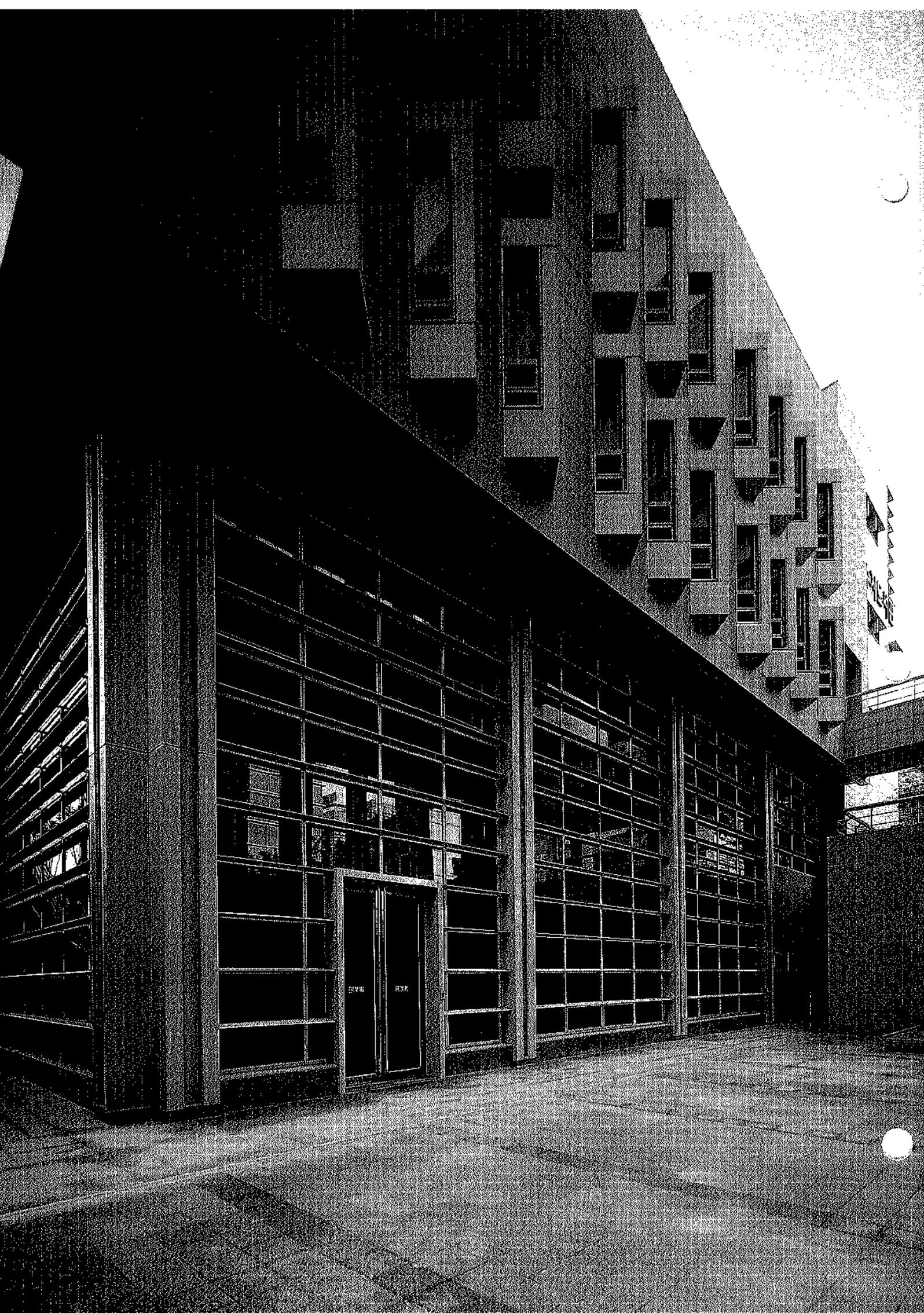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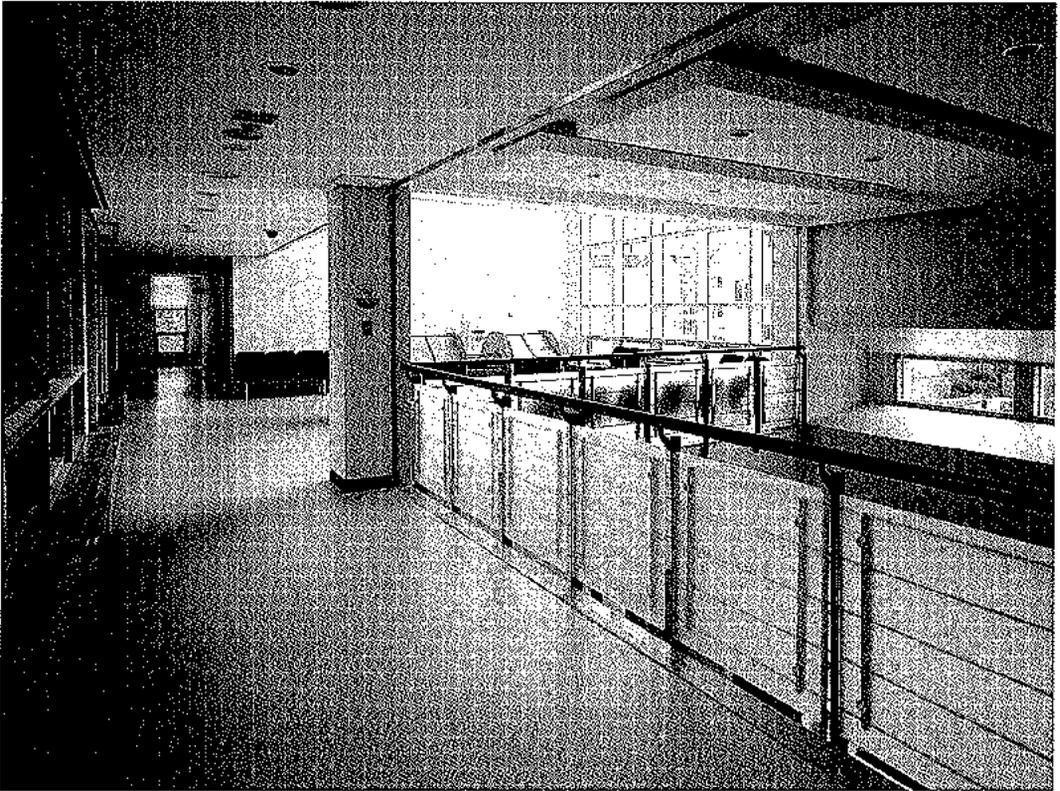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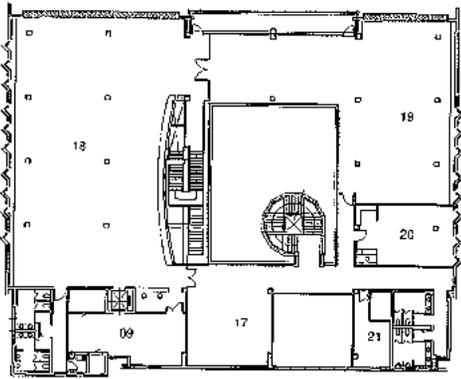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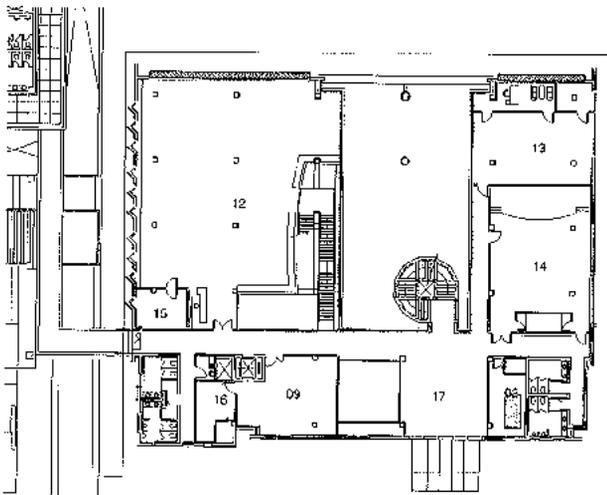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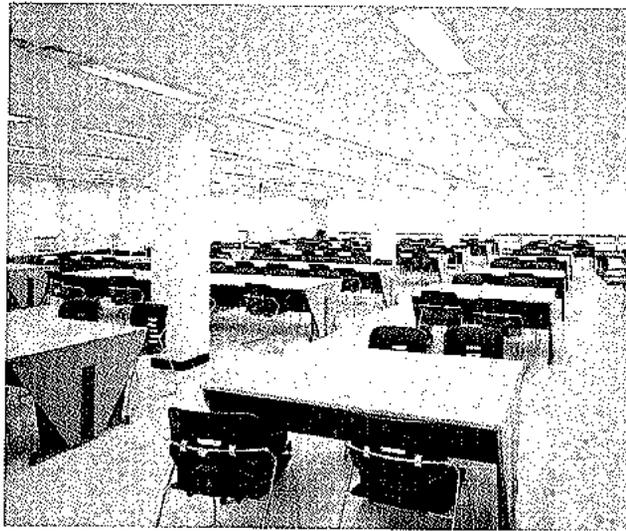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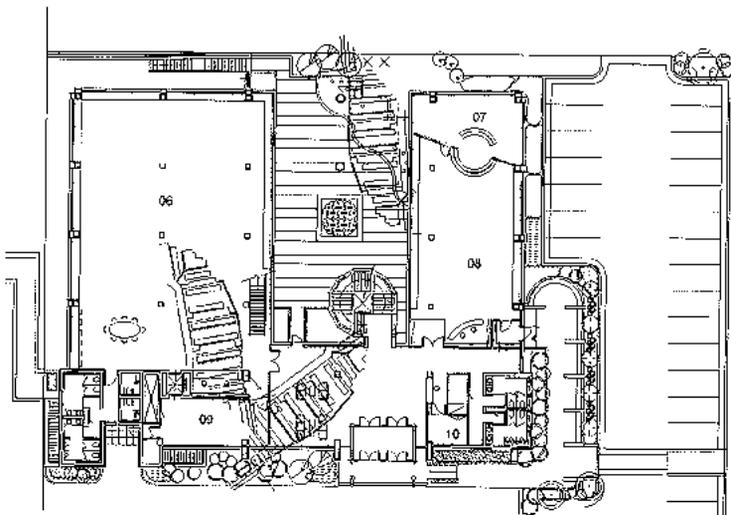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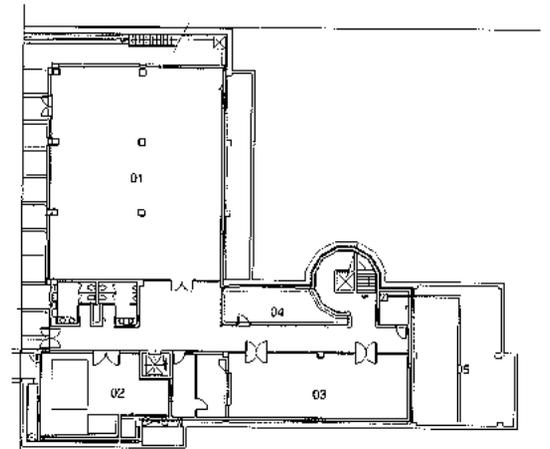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_ 청소년상담상/경도전시관
- 02_ 공조실
- 03_ 배강
- 04_ 실론
- 05_ PIT
- 06_ 창고/정기긴행복실
- 07_ 모자영관상
- 08_ 어린이영관상
- 09_ 사자실
- 10_ 관리/숙주실
- 11_ 부속입구
- 12_ 계기영관상
- 13_ 사무실
- 14_ 시청각실
- 15_ 복사/제본실
- 16_ 도서관실
- 17_ 휴게실
- 18_ 계기/일반영관상
- 19_ 일반영관상
- 20_ 전자도서영관상
- 21_ 창고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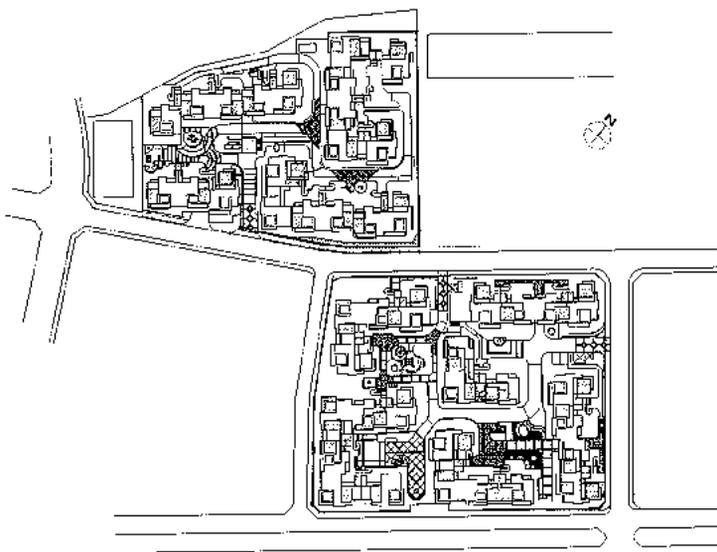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태릉 현대 홈타운 스위트

HYUNDAI Home Town Suite

● 배치도

● 건축개요



01. 1단지
02. 2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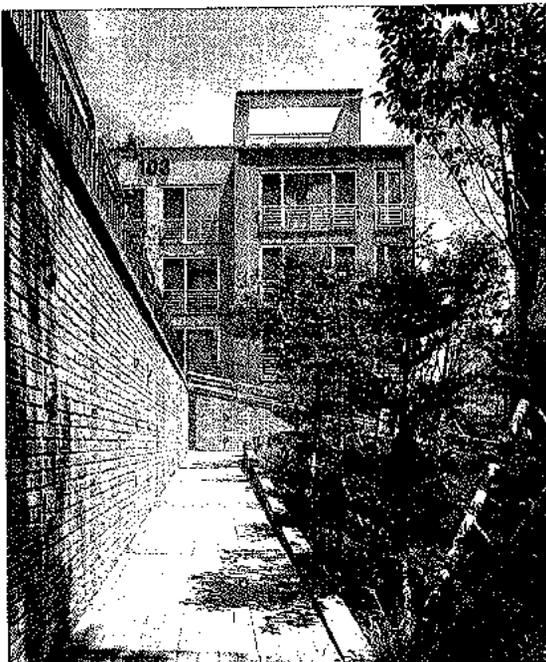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2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 2블록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공동(연립)주택부지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 마감 샌드스톤, 외단열미감시스템(스타코)
설계담당 박종인, 진수아
건축주 현대건설(주)
시공사 현대건설(주)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촬영: 김경호)

● 1단지

대지면적 10,171.00㎡
건축면적 3,479.74㎡
연면적 15,710.62㎡
건폐율 34.21%(법정 60%이하)
용적률 89.48%(법정 90%이하)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60세대
주차대수 115대

● 2단지

대지면적 12,979.70㎡
건축면적 4,508.24㎡
연면적 20,476.40㎡
건폐율 34.73%(법정 60%이하)
용적률 89.60%(법정 90%이하)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74세대
주차대수 150대



1단지

서울 태릉에 건립된 '태릉 현대 홈타운 스위트'는 도시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저밀도 저층형 주거지내의 연립주택단지로, 북쪽은 서울여대, 동쪽으로는 초등학교가 면하여 대지의 고저차가 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암(岩)을 많이 포함한 지질로서 자연스럽게 경사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유도하였다. 규정상 3층 이





하의 연립주택과 용적률 90%는 계획 시 다소 여유가 있어보였다 경사지의 특성 및 사업주의 수익을 고려하니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우선 가로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의 위계를 확보하고 동시에 주차를 고려하여 데크를 설치키로 하였다. 이는 데크 하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로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비교적 문부

한 주변의 자연환경이 단지 내 녹지공간과 어울리도록 한 계획과 잘 부합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일자형 배치가 아닌 중정을 중심으로 한 'ㄱ'자 'ㄷ'자 형태의 세대 조합은 다소 지루하기 쉬워 공동주택의 외관에서 탈피, 변화있고 다양함을 연출하였다. 중정은 세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생활의 중심이 된다.

2단지

4면이 도로에 면하고 북쪽 건너편으로는 1단지와 초등학교가 남쪽 건너편으로는 녹지축과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경사진 지형과 저층 주거의 프라이버시가 쉽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진 대지로 역시 3층 이하, 용적률 90%이하라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1단지와 마찬가지로 데



입면도 1

크를 설치하여 대지의 유기적인 활용 및 위계의 확보를 가능케 했다. 데크하부에 주차장을 두어 단지 내부로의 차량진입을 차단했다.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대지는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기존 공동주거와의 차별화 과정에서의 중정형 배치에 유리했다. 동별로 개성있는 컨셉을 가진 중정과 반복되지 않는 입면의 연출로 중정이 주변의 풍부한 녹지들과 어울려 쾌적하고 풍부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했다.

단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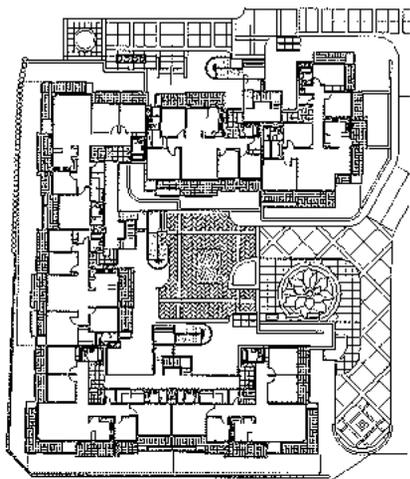
3면이 개방된 단위세대는 풍부한 자연채

광과 조망을 가능케 하며, 측벽을 없앴으로써 외관의 건조함에서 탈피하고 유기적인 공간활용을 가능케 한다.

또한 각 세대별로 지하에 설치한 스튜디오(Studio)로 다양한 육구의 여가 생활 및 취미활동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고층창으로 자연광을 유입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최상층 세대의 다락방은 공간을 보다 여유 있게 사용하게 하며, 옥상의 일부를 테라스로 활용하여 세대의 독립된 마당을 제공, 자칫 기능을 잃기 쉬운 다락방의 활용을 극대화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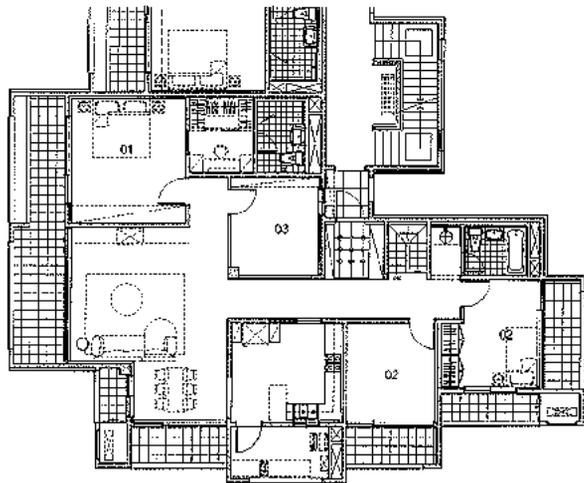


세대조합 평면도(중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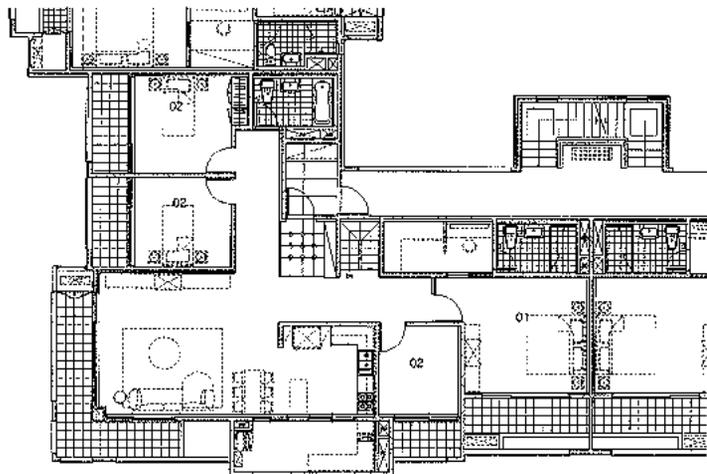
입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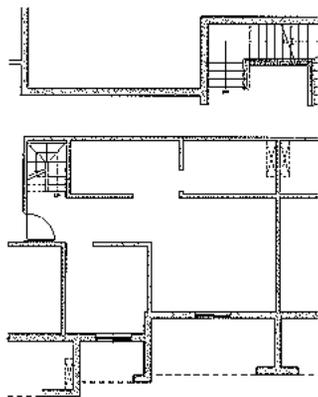


48(B) 평형

- 01. 안방
- 02. 방
- 03.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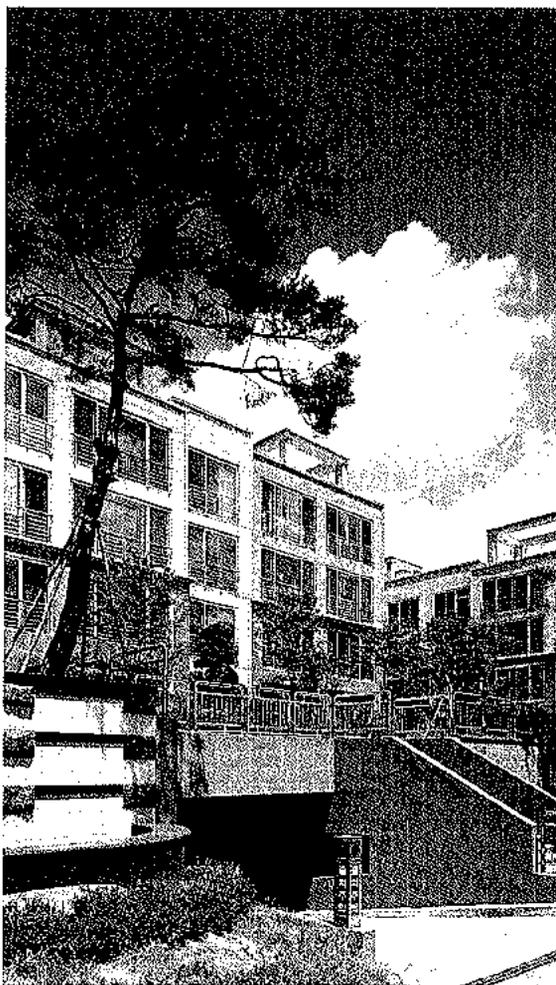


48(A) 평형



Studio(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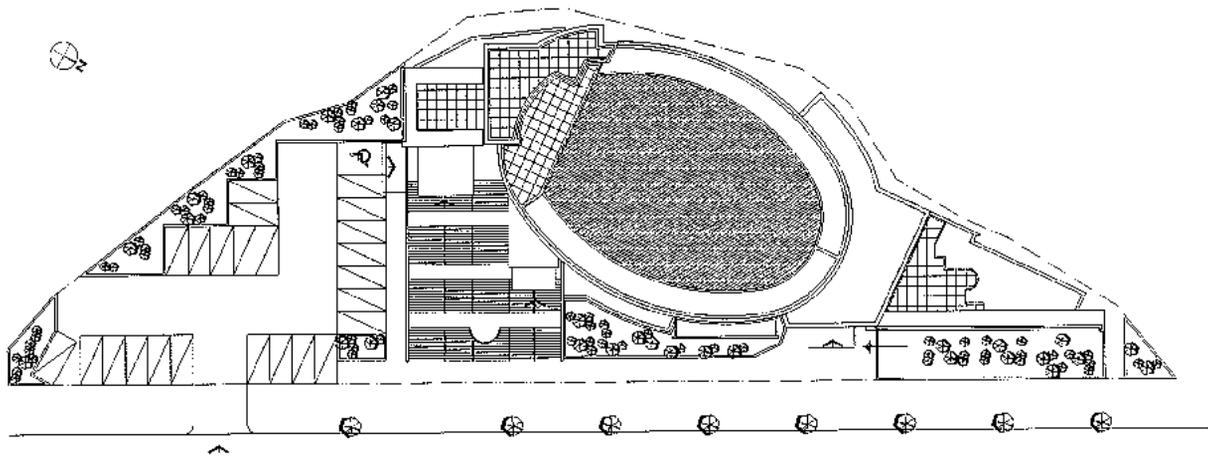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주성천 교회

Juseongcheon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71-7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 개발 예정지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중교집회장)
대지면적	2,829,70㎡
건축면적	1,456,26㎡
연면적	3,728,00㎡
건폐율	51.46%
용적률	103.55%
주차대수	육외 25대 (자주식)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지붕)
외부마감	제물치장 콘크리트, 점토벽돌, THK18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윤여권, 김성진, 김홍섭, 최수학, 이흥주, 배수경
인테리어	휴먼스페이스
시공	그레이스건설 주식회사
감리	규빗건축사사무소
건축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성천 교회
사진	건축사사무소 채광(촬영: 강일민)

이 교회의 부지는 대전 신시가지(노은지구) 내의 종교용지로써, 신 시가지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지의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도시적 이미지 보다 소규모 타운 처럼 형성되어 있는 기존 구시가지와 경계에 놓여 있다. 전면 50m 도로는 천안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이다.

이 대지에서 얻어지는 도시적 요구조건은 신시가지의 획일적인 아파트 일색에 생기를 불어넣고 구시가지의 이미지를 규정짓는 장소적 대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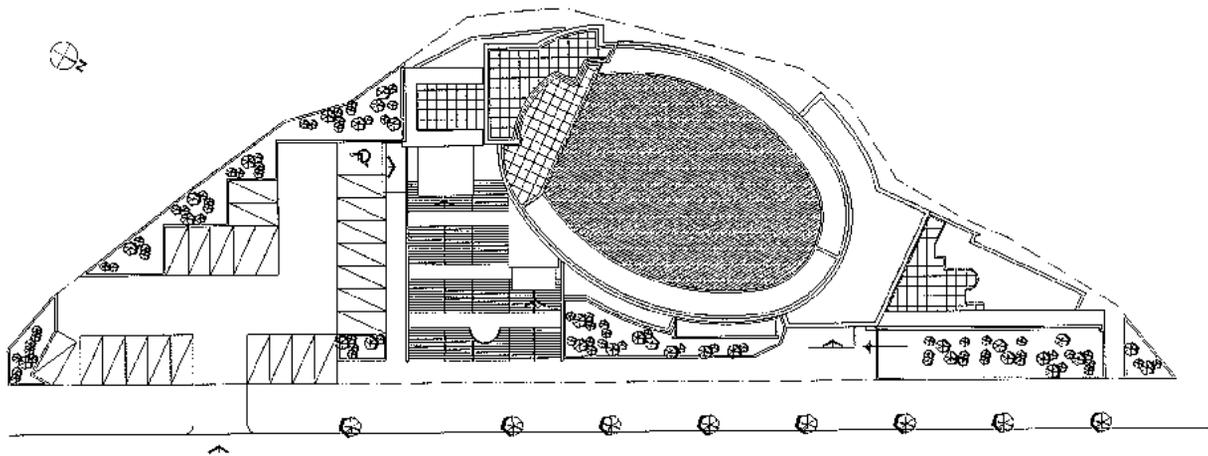
또한 주변에 질서를 부여하고 종교적 건물로서의 상징성을 그리고 도시적 이미지가 취약한 간선도로변에 이정표로서의 장소성을 가지는 등대와 같은 표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대지의 형태는 완만한 반원을 이루며 50m 간선도로 축을 따라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우선 배치계획은 대지의 효율성

주성천 교회

Juseongcheon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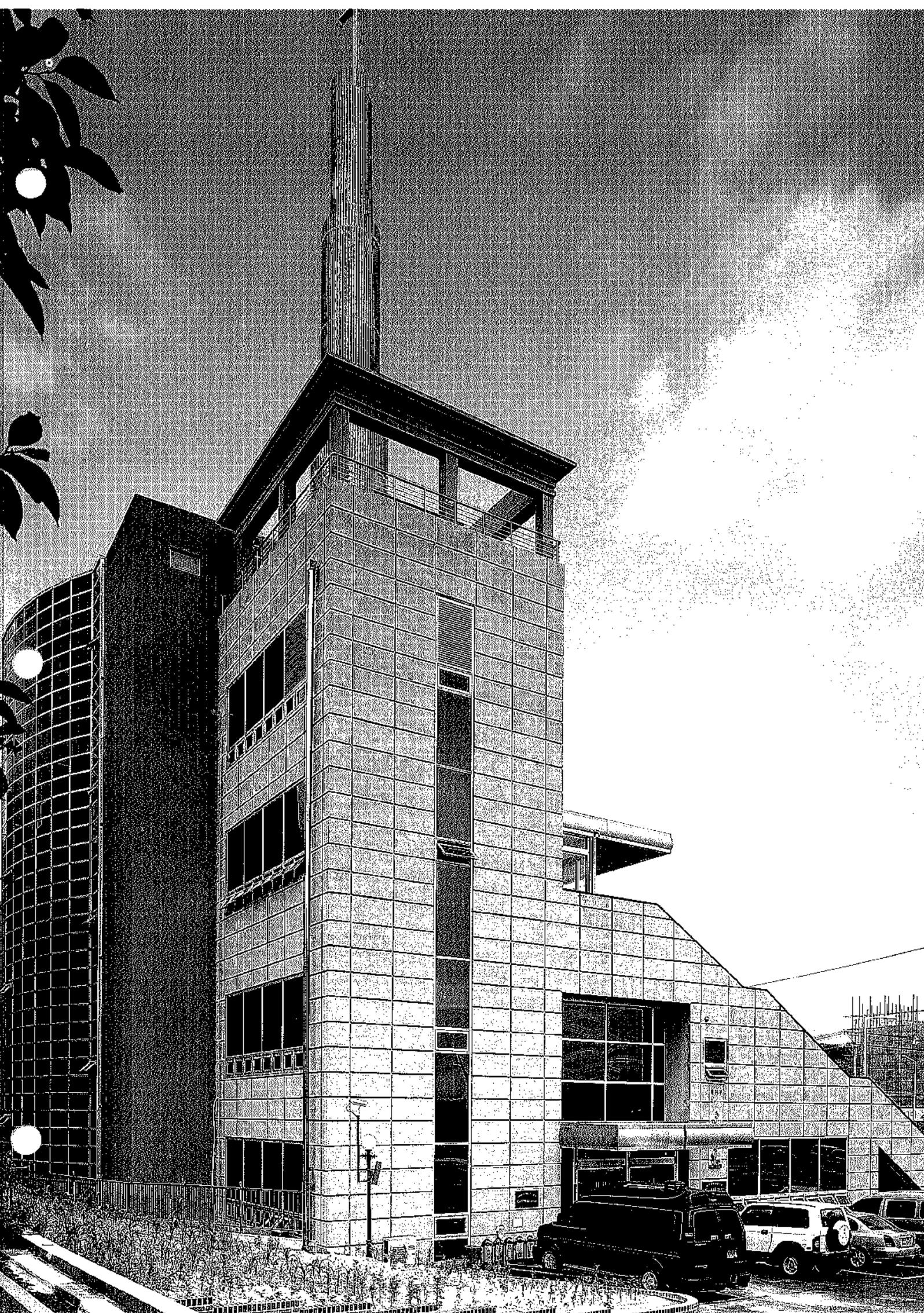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71-7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 개발 예정지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중교집회장)
대지면적	2,829,70㎡
건축면적	1,456,26㎡
연면적	3,728,00㎡
건폐율	51.46%
용적률	103.55%
주차대수	육외 25대 (자주식)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지붕)
외부마감	제물치장 콘크리트, 점토벽돌, THK18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윤여권, 김성진, 김홍섭, 최수학, 이흥주, 배수경
인테리어	휴먼스페이스
시공	그레이스건설 주식회사
감리	규빗건축사사무소
건축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성천 교회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강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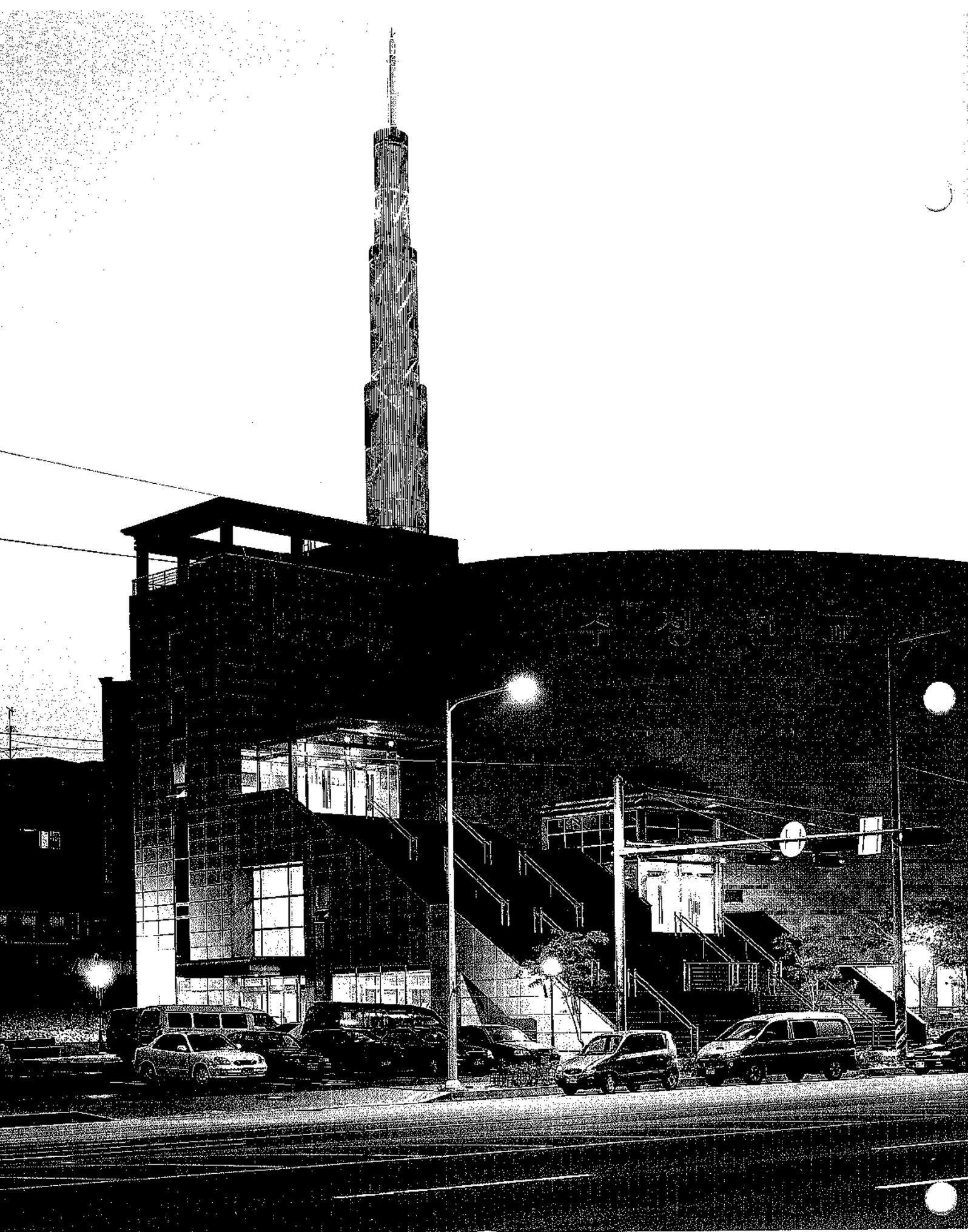
이 교회의 부지는 대전 신시가지(노은지구) 내의 종교용지로써, 신 시가지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지의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도시적 이미지 보다 소규모 타운 처럼 형성되어 있는 기존 구시가지와 경계에 놓여 있다. 전면 50m 도로는 천안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이다.

이 대지에서 얻어지는 도시적 요구조건은 신시가지의 획일적인 아파트 일색에 생기를 불어넣고 구시가지의 이미지를 규정짓는 장소적 대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다.

또한 주변에 질서를 부여하고 종교적 건물로서의 상징성을 그리고 도시적 이미지가 취약한 간선도로변에 이정표로서의 장소성을 가지는 등대와 같은 표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대지의 형태는 완만한 반원을 이루며 50m 간선도로 축을 따라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우선 배치계획은 대지의 효율성







을 최대한 살려 장애 확장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지에 순응하도록 계획했다.

곧 개통되는 전철과 넓은 도로로 인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자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흐름의 여유', '공간의 여유', '시간의 여유'라는 개념으로 공원과 연계했다. 그리고 외부에 MAIN계단을 계획함으로써 자연스러운 VIEW 확보와 SPACE SEQUENCE를 유도하여 대지형태 및 주변 공원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

형태적으로는 예배, 교육, 예술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기독교적 삼위를 기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간결성과 정직성을 가진 노출 콘크리트 위에 점토벽돌을 사용하여 토속적이고 포근한 이미지를 창조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공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장감있는 심령의 인식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좌측 종탑을 포함한 수직구성 부분은, 천국의 계단으로 상징되는 넓은 옥외계단을 50m 도로 쪽으로 두어 인지성을 부각하고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주성천 교회 복음 사역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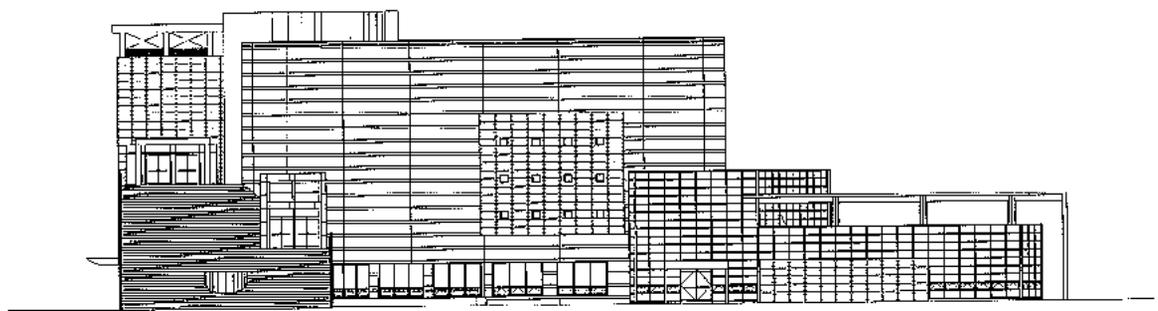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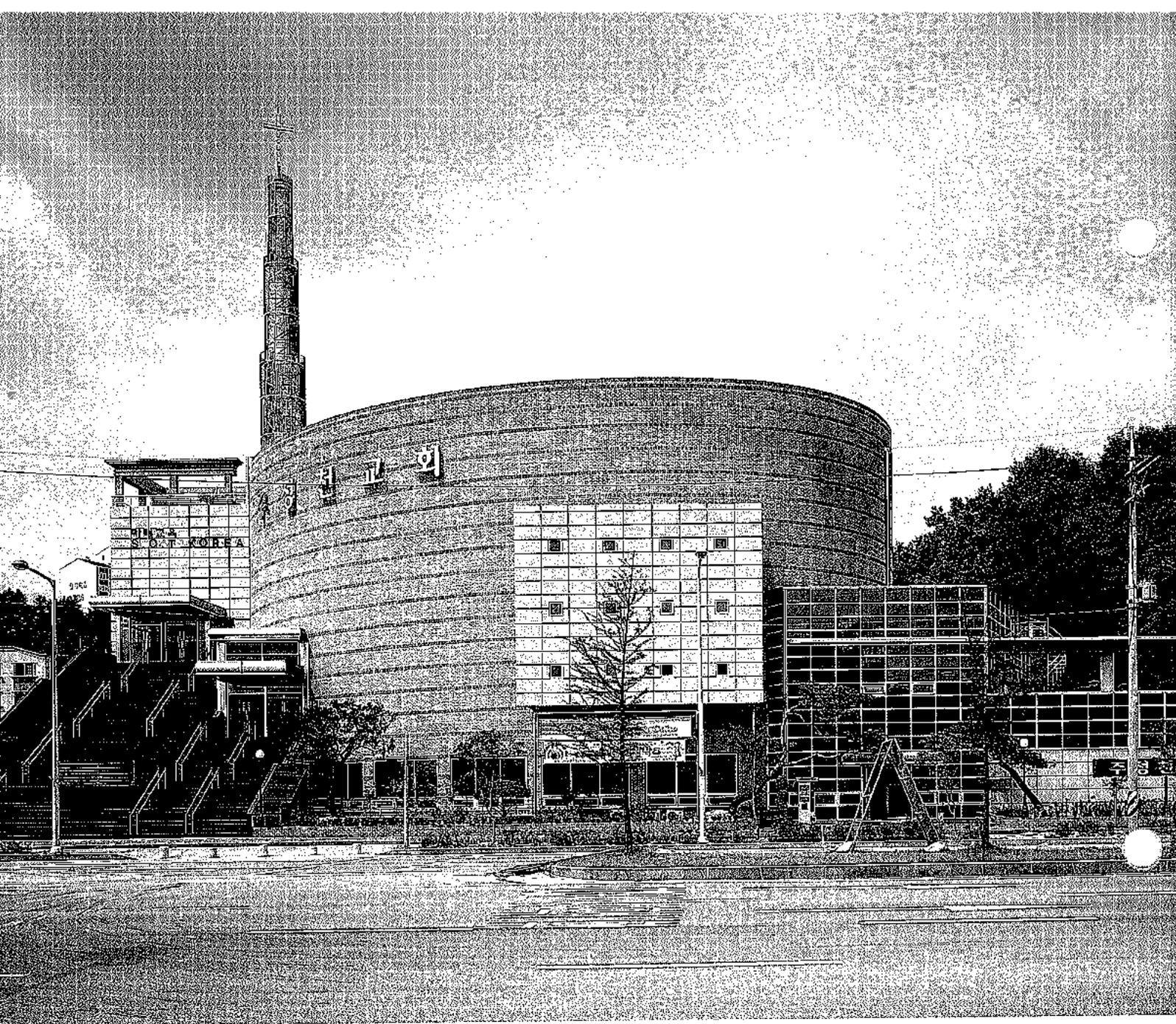
이 계단은 추후 옥외 공연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한다. 즉 성도가 세속의 때를 벗어 던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는 장소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고난의 길 표상이며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다.

계단을 지나 예배당 홀로 들어서면 타원형의 예배공간을 만난다. 이 타원형은 교회 전체의 중심이다. 외부 계단과 충돌하여 대지에 따라 틀어지므로써 강렬한 역동성을 가지며, 이 장소에 렌드마크적인 상징성을 부여한다. 타원의 테두리를 따라 설치된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절제된 빛으로 예배공간으로써의 경건함과 엄숙함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하고자 하였으며, 타원은 협력하여 하나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믿음의 방주로써 주성천 교회가 한국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써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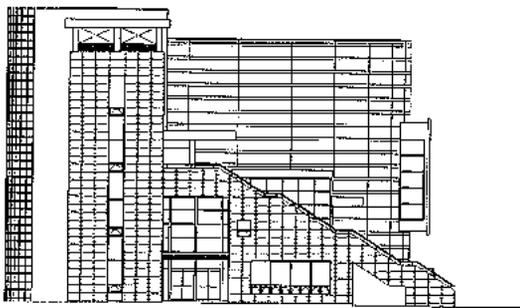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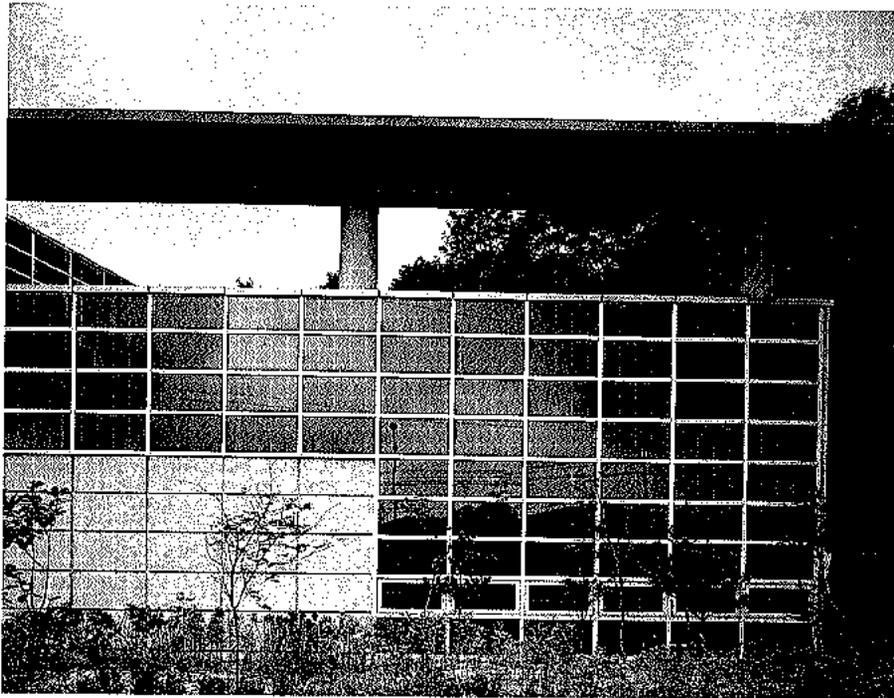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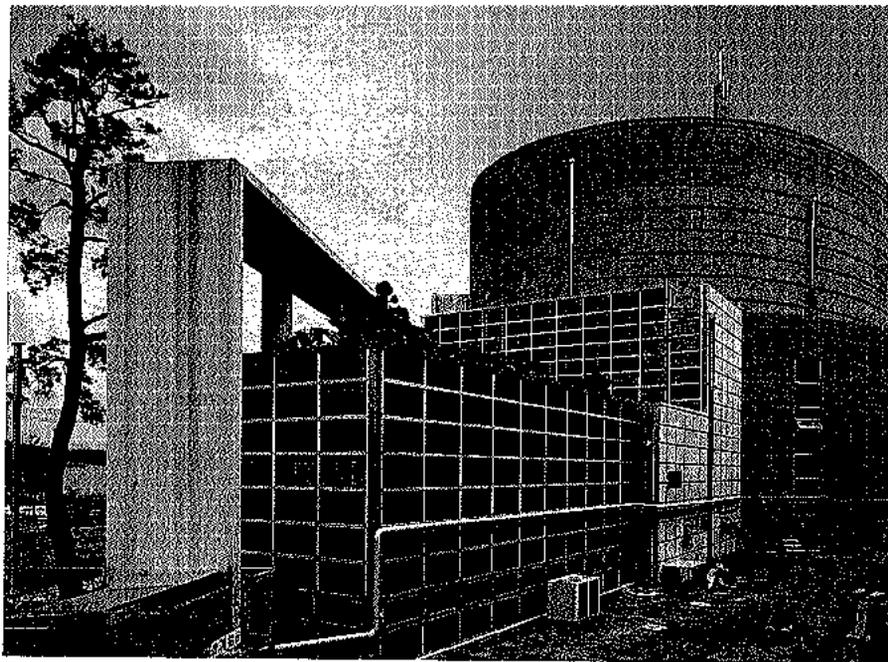
또한 타원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 도시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 대지에 부합된 매스이며, 전면 50m 도로의 긴 축에 어울리며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우측 식당부분의 가벽을 통한 수평적 구성은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을 상징하며, 건물 전체의 비례와 균형을 제공한다.

주성천 교회 건물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하는 삼위의 표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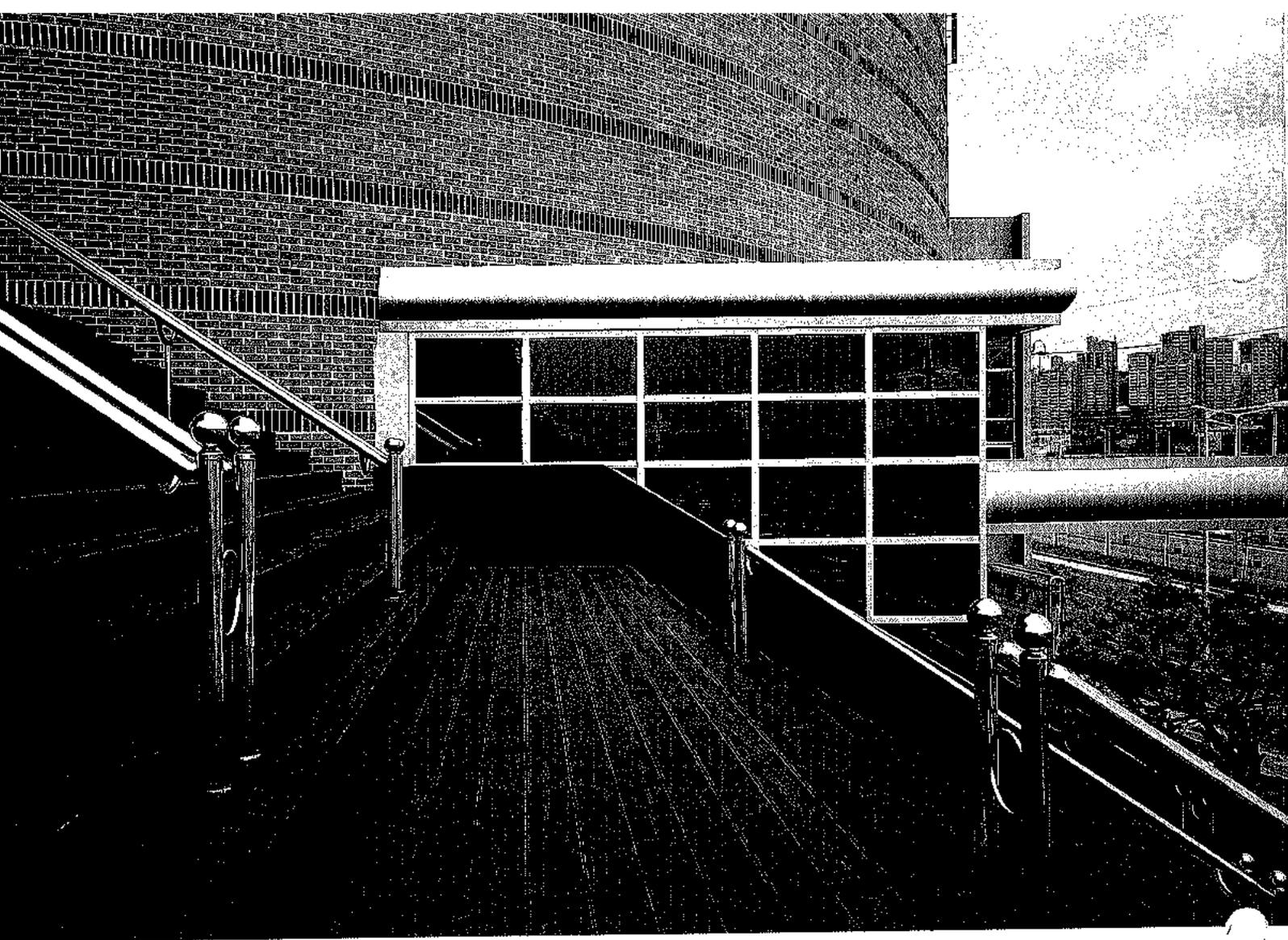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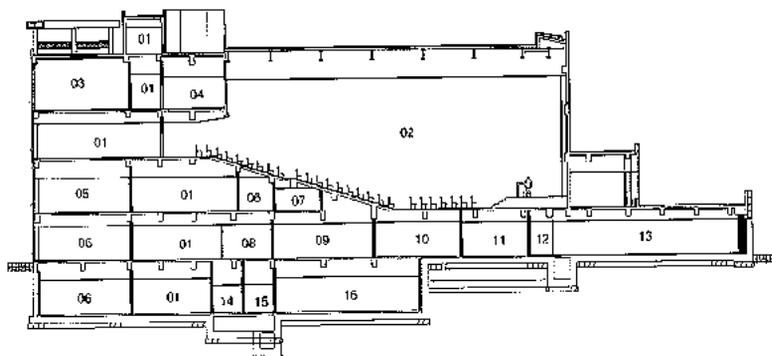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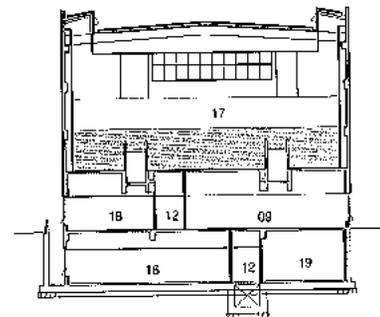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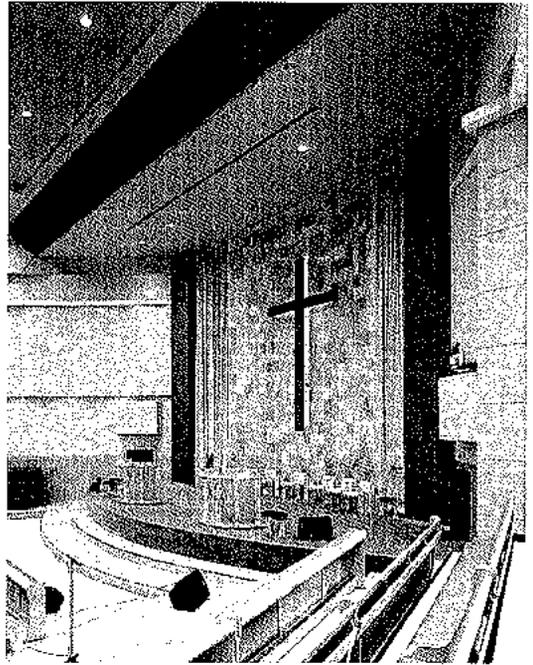
- 01_ 층
- 02_ 대베란다
- 03_ 공소실
- 04_ 자료실
- 05_ 세신시설
- 06_ 사무실
- 07_ 기도실
- 08_ 교육총모임실
- 09_ 중 교동부실
- 10_ 유 조동부실
- 11_ 비서실
- 12_ 복도
- 13_ 식당
- 14_ 화장실(남)
- 15_ 화장실(여)
- 16_ 소예배실
- 17_ 예배당
- 18_ 성가대연습실
- 19_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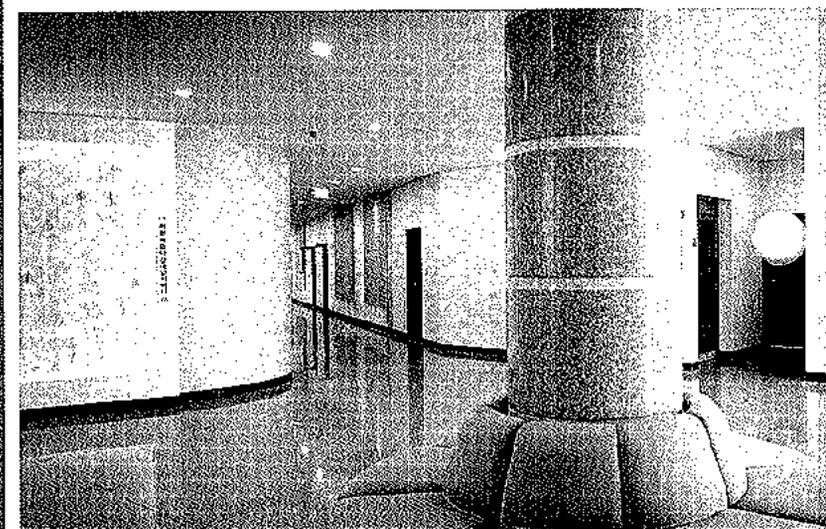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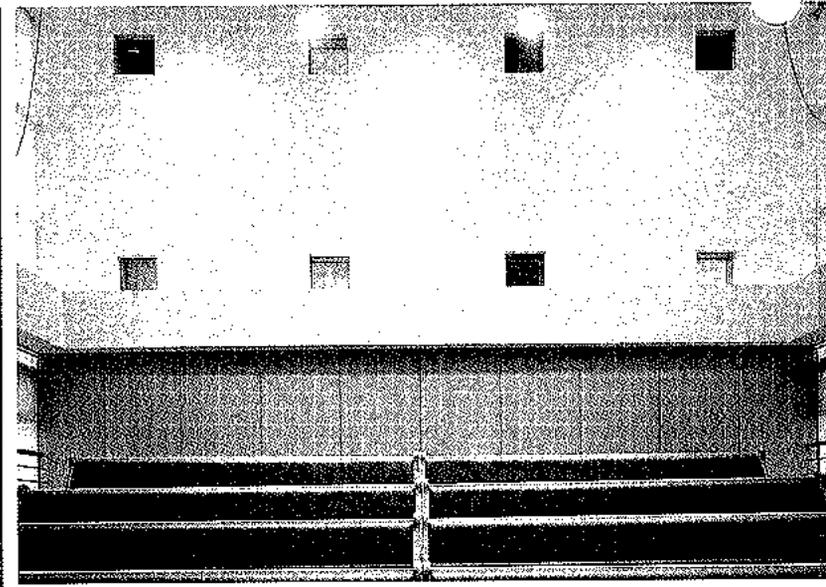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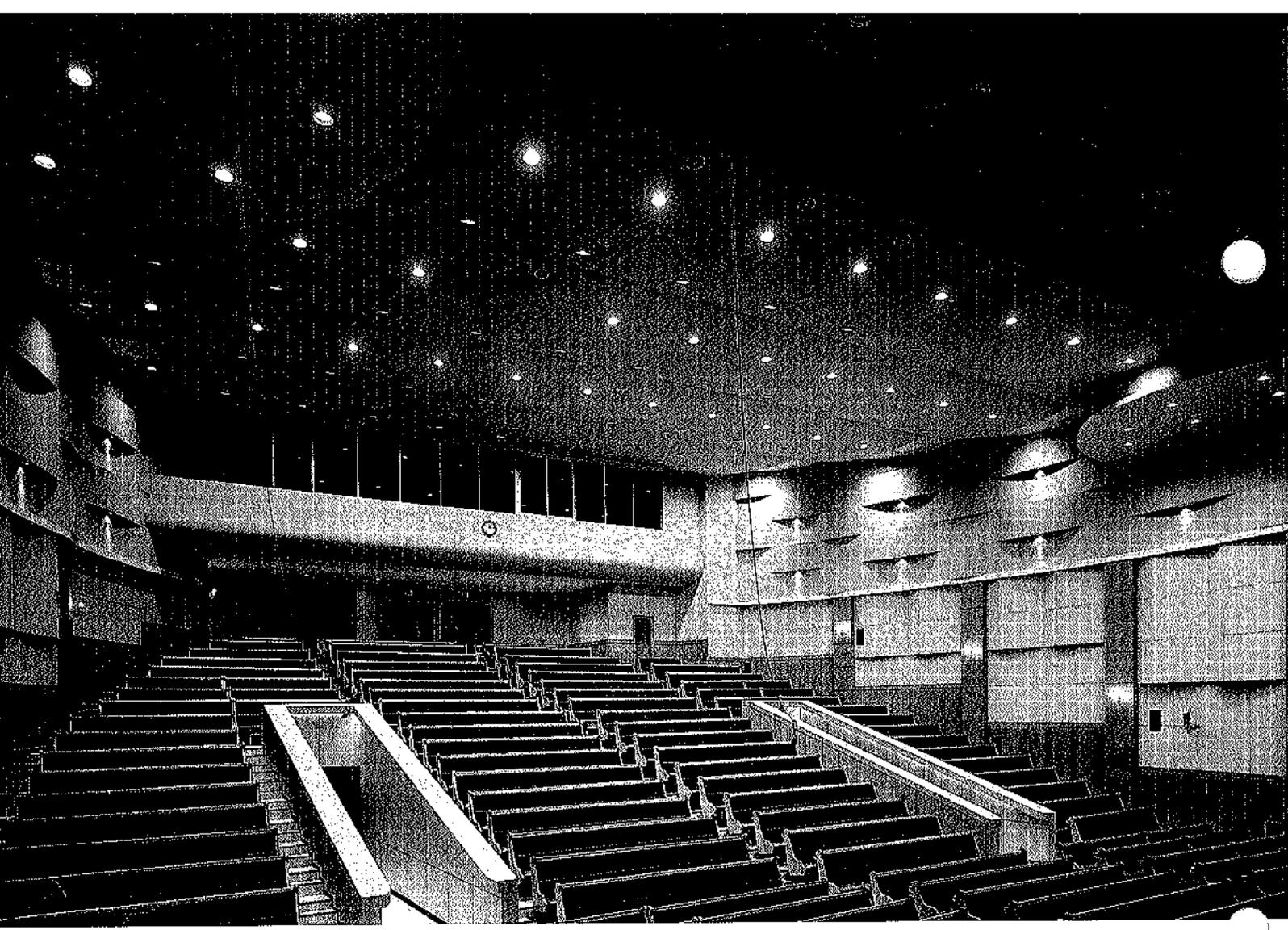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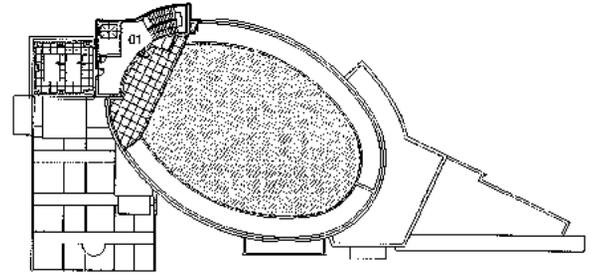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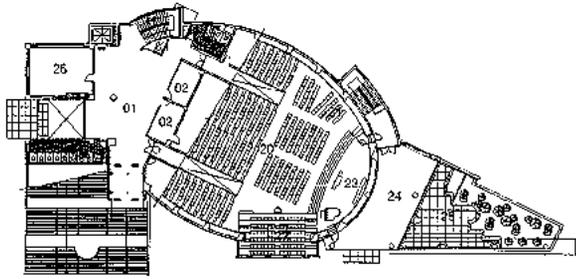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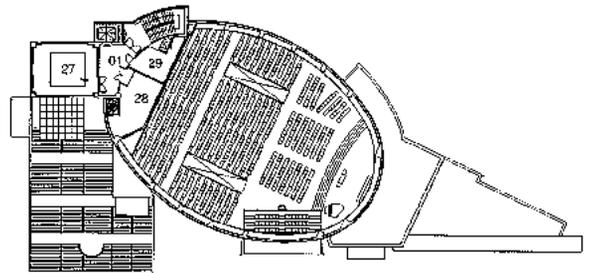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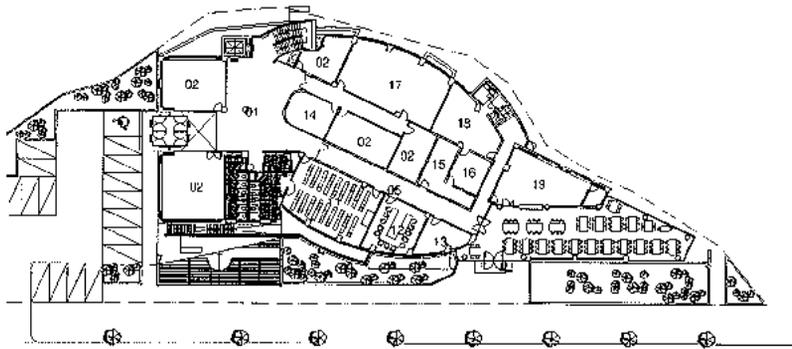




- | | |
|------------|------------|
| 01_ 홀 | 16_ 상담실 |
| 02_ 사무실 | 17_ 총·고등부실 |
| 03_ 기도실 | 18_ 복합실 |
| 04_ 소예배실 | 19_ 추방실 |
| 05_ 독도 | 20_ 회중석 |
| 06_ 기계실 | 21_ 상로늘석 |
| 07_ 선기실 | 22_ 성가대석 |
| 08_ 화장실(남) | 23_ 세단 |
| 09_ 화장실(여) | 24_ 카바티리아 |
| 10_ SUNKEN | 25_ 복상장원 |
| 11_ 성가대연습실 | 26_ 새신자실 |
| 12_ 당회의실 | 27_ 편의실 |
| 13_ 제정부실 | 28_ 지도실 |
| 14_ 교회총무실 | 29_ 영음실 |
| 15_ 비서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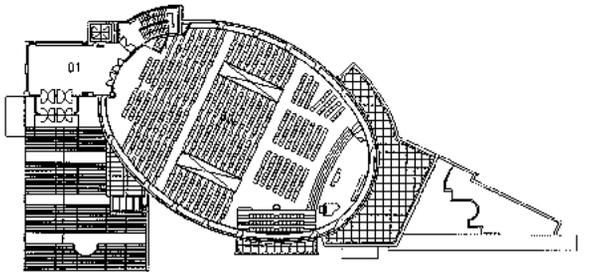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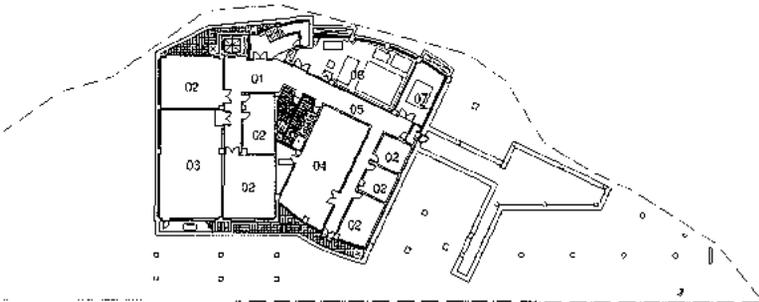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유막층 평면도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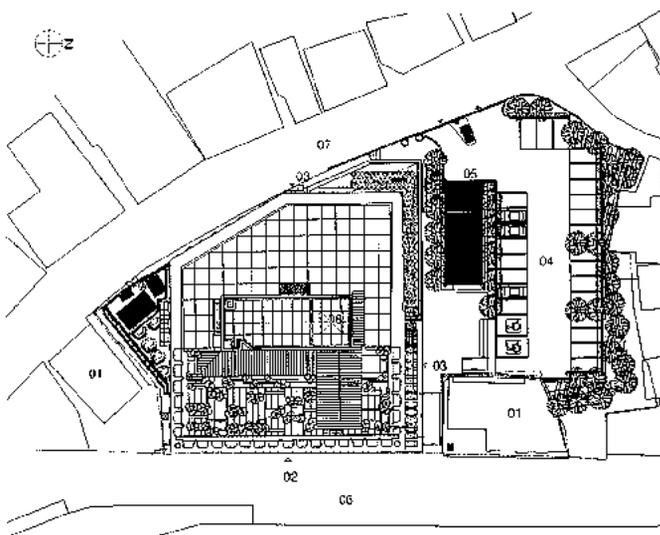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현대해상화재 광화문 사옥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Kwangwhamun office

● 배치도

● 건축개요



- 01_ 기존건물
- 02_ 부속입구
- 03_ 부속입구
- 04_ 옥외주차
- 05_ 지하주차장
- 06_ 10m보도
- 07_ 10m도랑
- 08_ 콘사시탈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91-1 외 13 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재개발사업구역
대지면적	3,015.80㎡
건축면적	1,239.28㎡
연면적	23,557.06㎡
건폐율	41.09%
용적률	648.06%
규모	지하 4층, 지상 1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30외산화강식 물갈기 오픈조인트시스템, THK24 로이복층유리(투명), 알미늄단열바
옥외마감	THK30후동석 버너구이, THK110코블스톤갈기
시공	현대산업개발(주) 이방연, 손성호
건축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디자인총괄	박승홍
설계담당	김진구, 한홍섭/이상포, 명재범, 심상보, 이형주, 전신영, 김현숙, 김종범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김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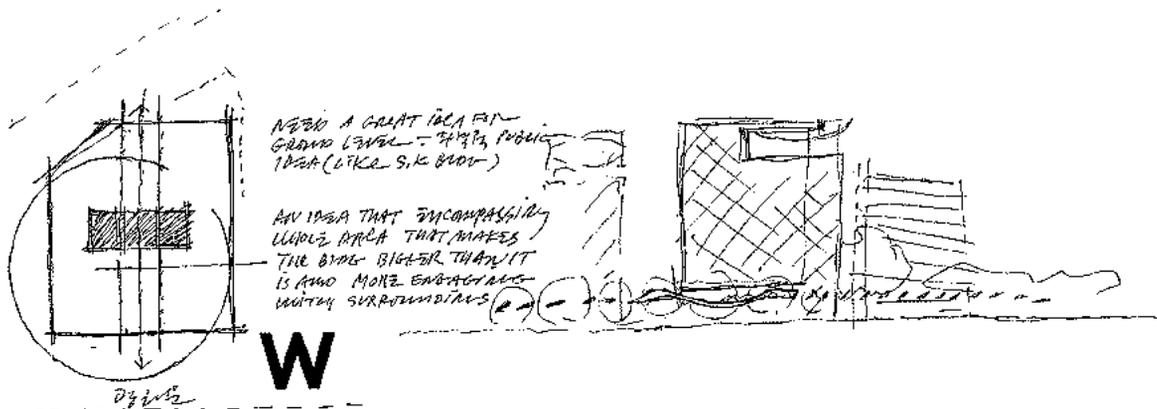
광화문 일대 재개발사업구역에 묶인 현대해상화재사옥은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건축주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스럽게 리노베이션을 선택한 것이다. 급변하는 업무형태에 적응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구조에 대한 보강과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OA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구 사옥은 3m의 낮은 층고, 자연환기에 의존하는 공기조화시스템, 단열과 소음

차단의 열약함, 낮은 소방설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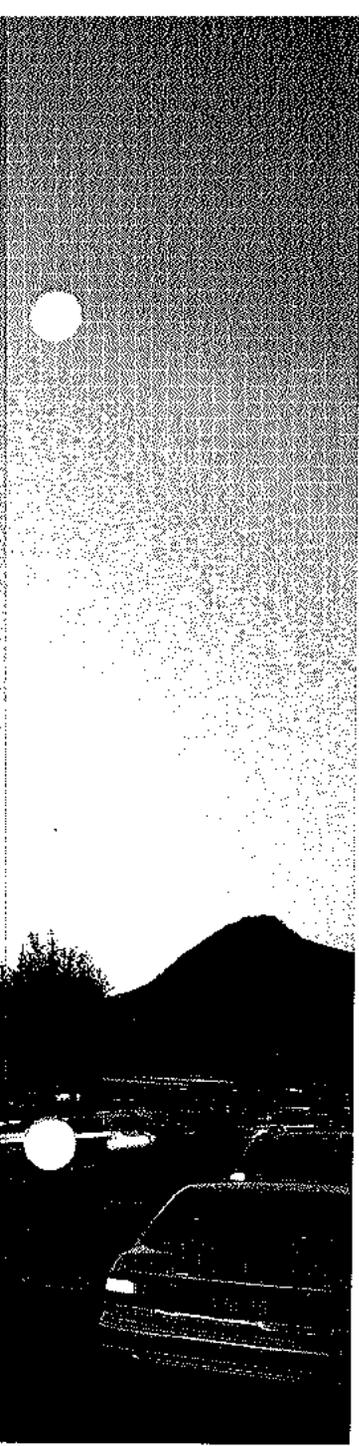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낮은 천장고에서도 쾌적한 공기와 편안한 빛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설비들을(개요 참조) 채택하였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한 구조는 기본이고, 내부공간을 재배치하여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옥외 주차공간을 두었고, 일반인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등을 마련하였

다. 모든 개선사항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더욱이 낮은 천장고를 심리적으로 완화하고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기존 업무 층에서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오픈 된 유리창을 갖게 하였다. 이는 역으로 내부의 움직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활기찬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외부 석재마감에 사용된 오픈조인트시스템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여유 없는 현장 여건과 외부마감의 오염문제 등을 고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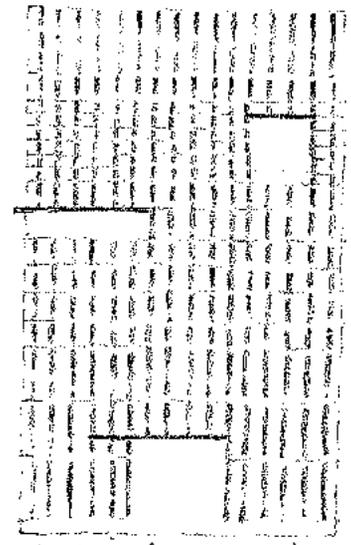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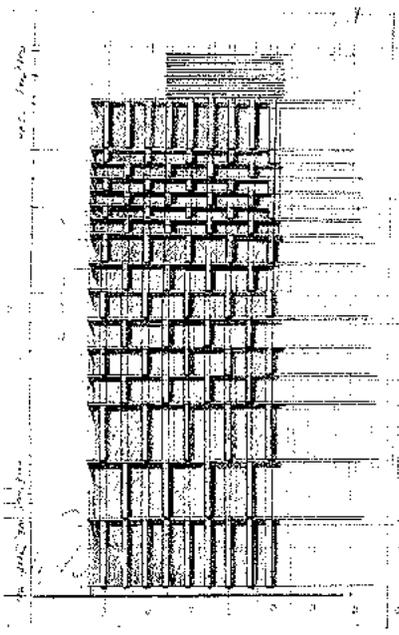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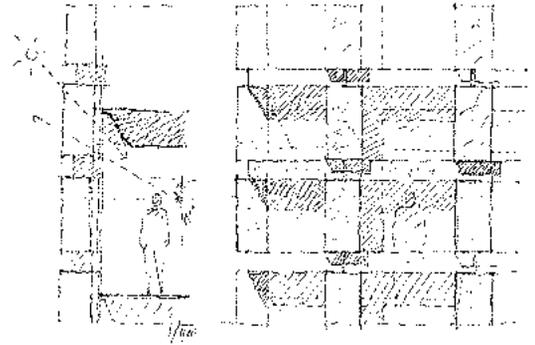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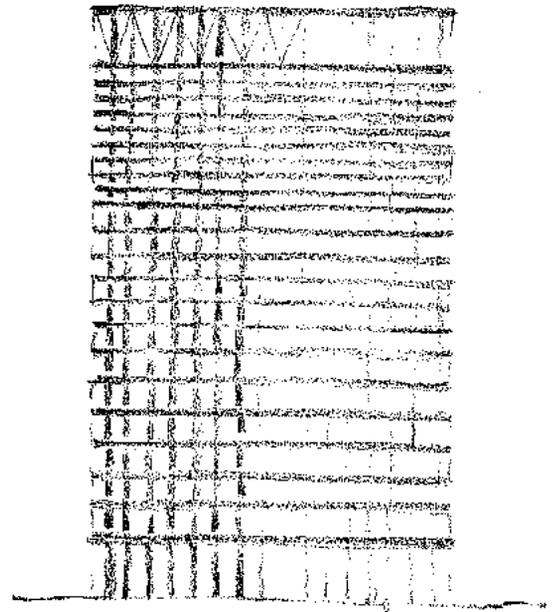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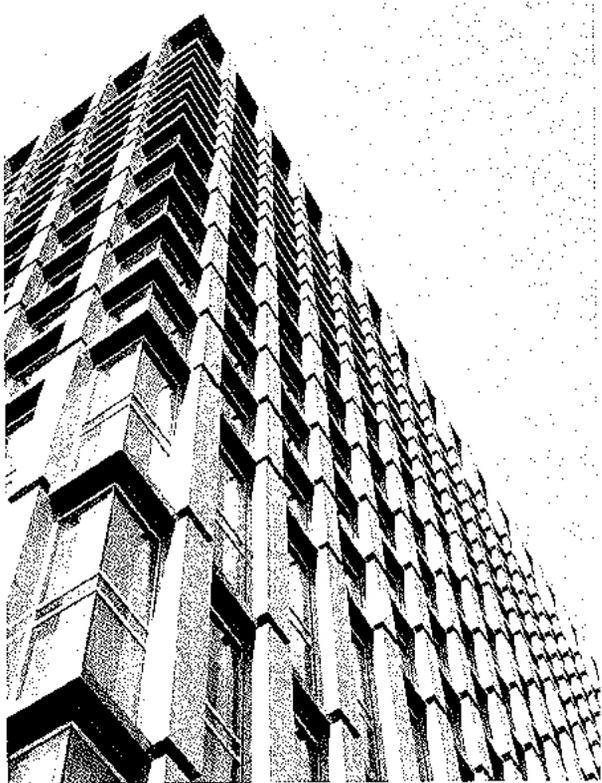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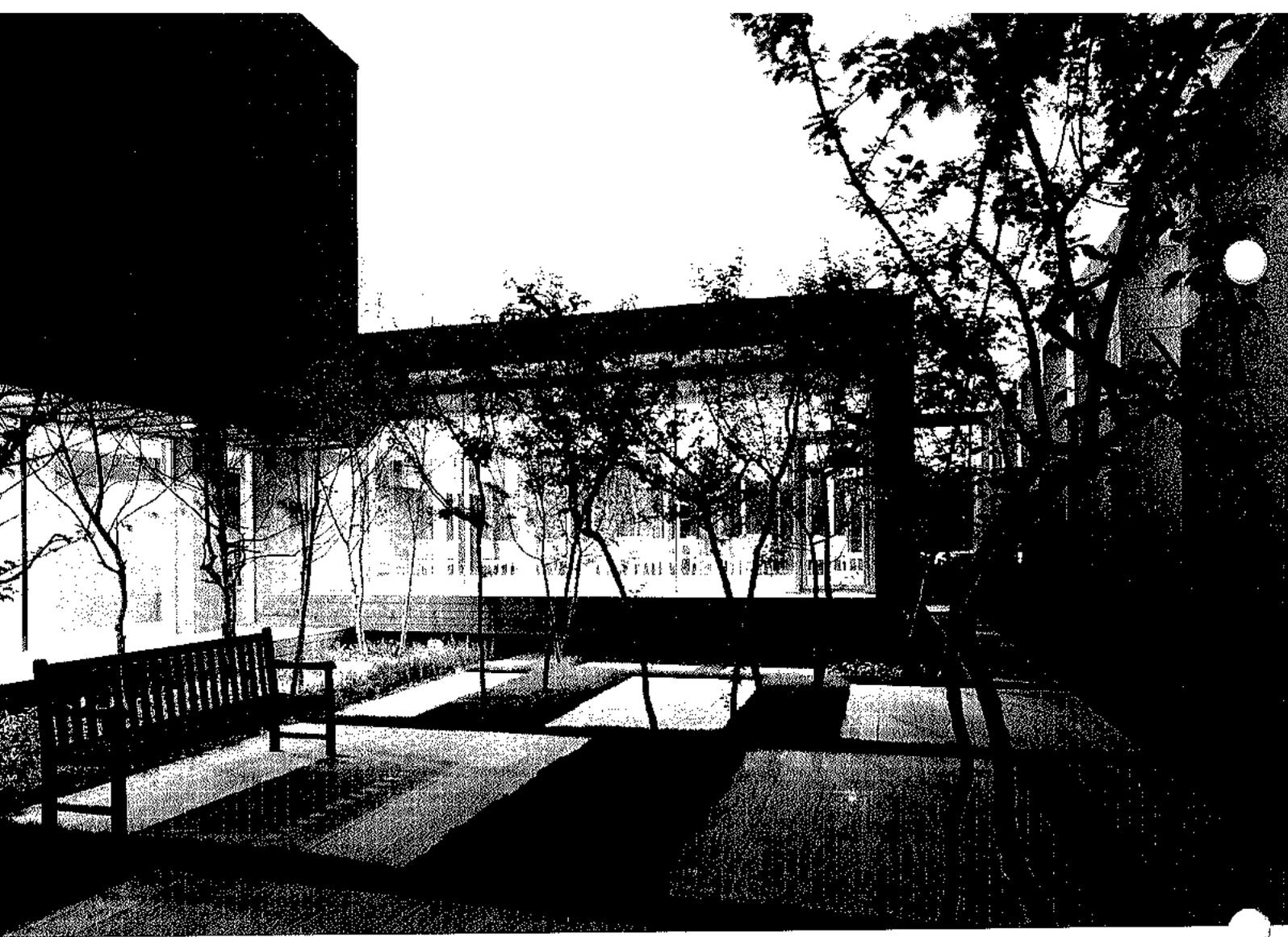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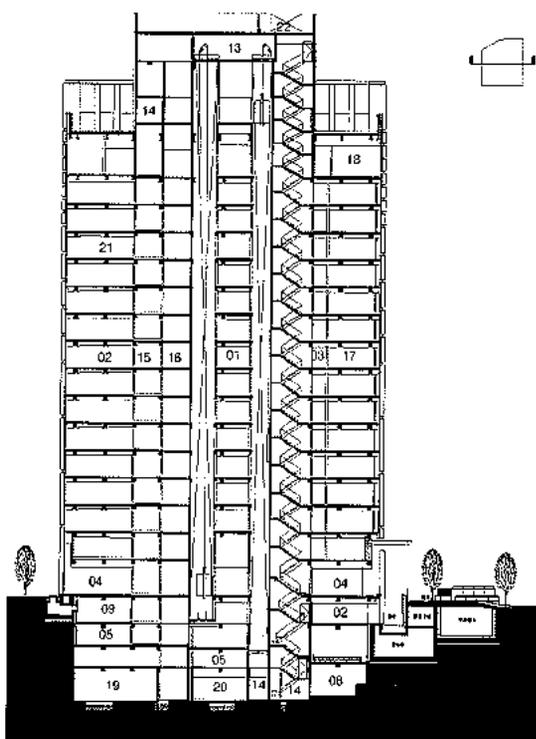
여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열과 관련이 있는 결감을 가져왔고 입면 디자인의 날렵함을 배가시키고 있다.

리노베이션은 신축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다. 신축을 통해 얻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다. 때문에 신축보다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리노베이션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체크와 이것이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공사의 역할이 클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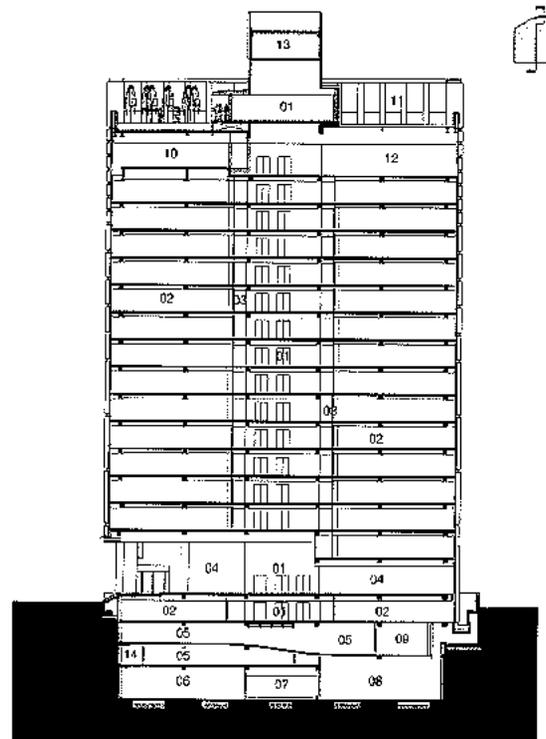


A. VARIATION : EMPHASIS @ S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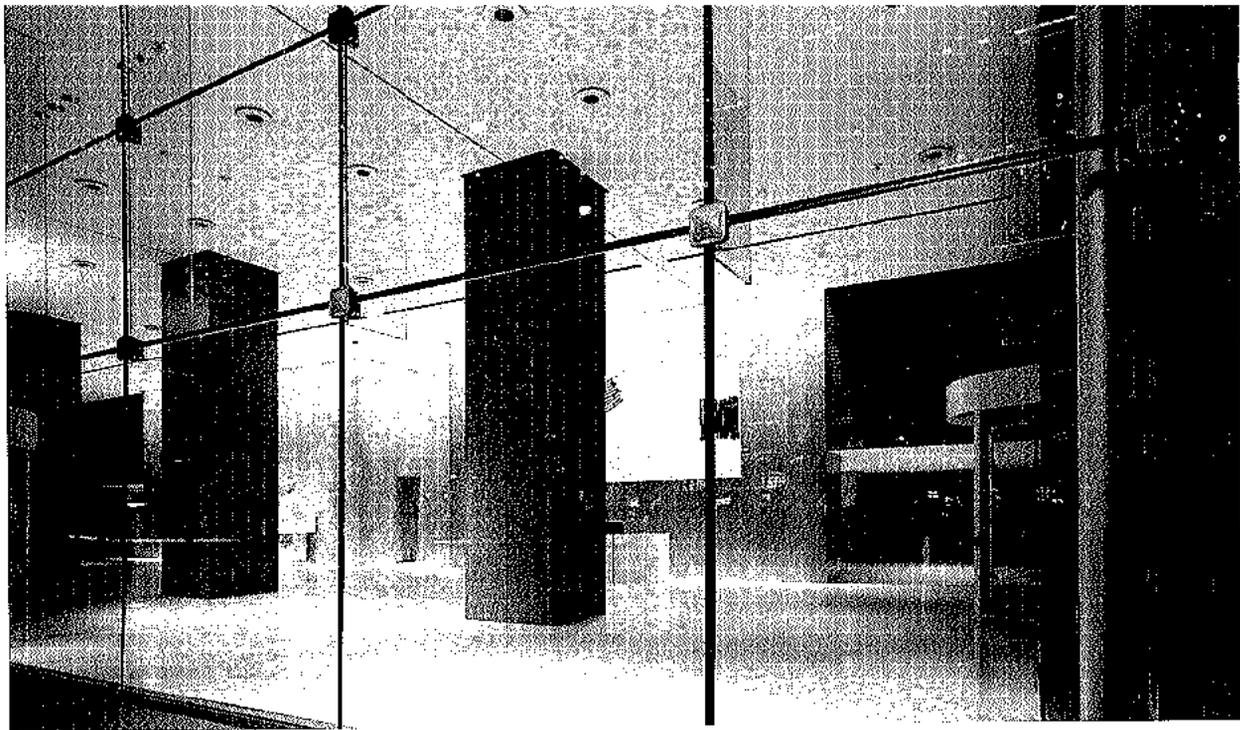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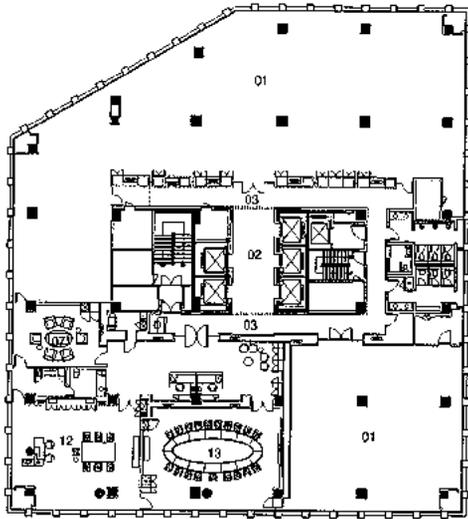


- 01. ELEV탑
- 02. 사무실
- 03. 복도
- 04. 로비
- 05. 주차장
- 06. 견차장
- 07. 중앙검시실
- 08. 기계실
- 09. 풍조실
- 10. 강당
- 11. 기계실비
- 12. 직원의방
- 13. ELEV전기실
- 14. 상고
- 15. EPS
- 16. 계단실
- 17. 화장실
- 18. 동역식당
- 19. 심화조
- 20. 중앙검시실
- 21. 회의실
- 22. 군사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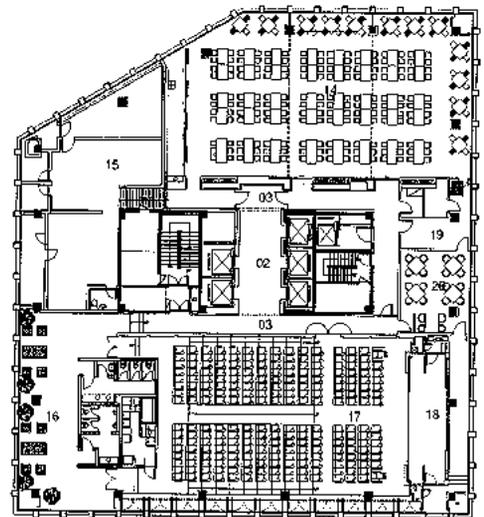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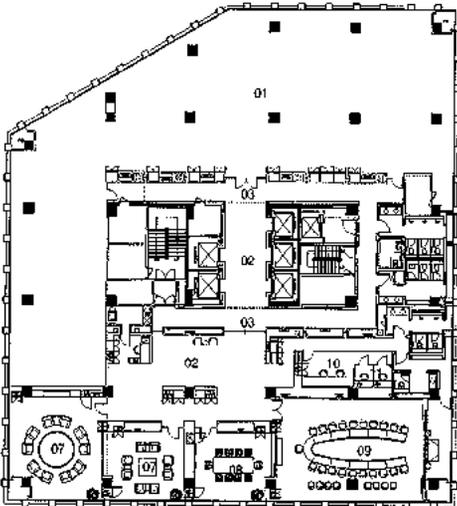


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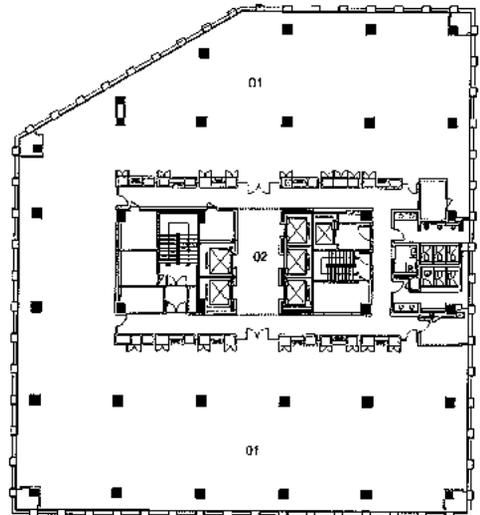
- 01 사무실
- 02 복도
- 03 방바실
- 04 방바실
- 05 선실
- 06 창고
- 07 집견실
- 08 소회의실
- 09 대회의실
- 10 조정실
- 11 도시농업실
- 12 입원실
- 13 회의실
- 14 식당
- 15 수방
- 16 유개출
- 17 강당
- 18 무대
- 19 보조수방
- 20 음악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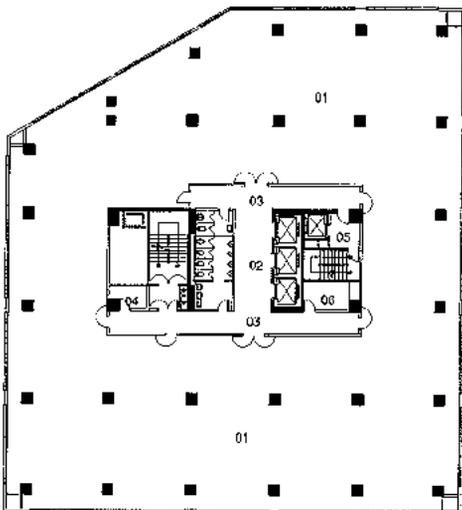
1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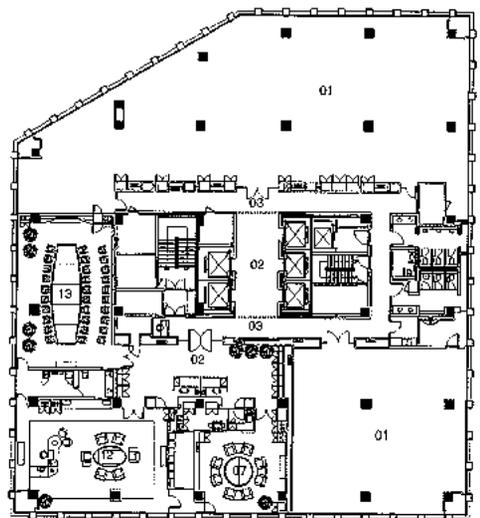
10층 평면도



14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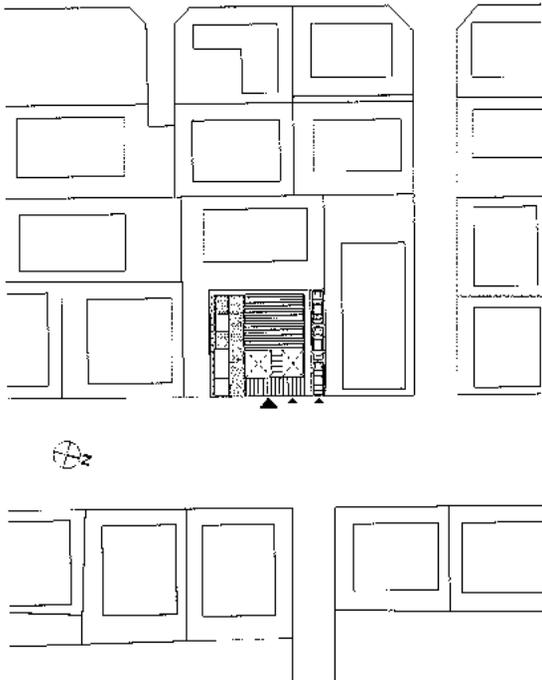
13층 평면도

리 크리닉

Lee Clinic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의원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27.4㎡
건축면적	135.22㎡
연면적	1059.46㎡
건폐율	59.46%
용적률	298.74%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복층투명유리, 드라이비트,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색락카, 비닐타일, 라임스톤
설계담당	정수미
자료	건축사사무소제공

신사동 로데오거리는 20m의 크지 않은 공간감을 가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갤러리와 패션샵 그리고 비교적 문화성 있는 상업시설들이 군데군데 포진해 있어 아늑하고 중후해 보이지만, 반면 폐쇄적이기도 한 인상으로 활기가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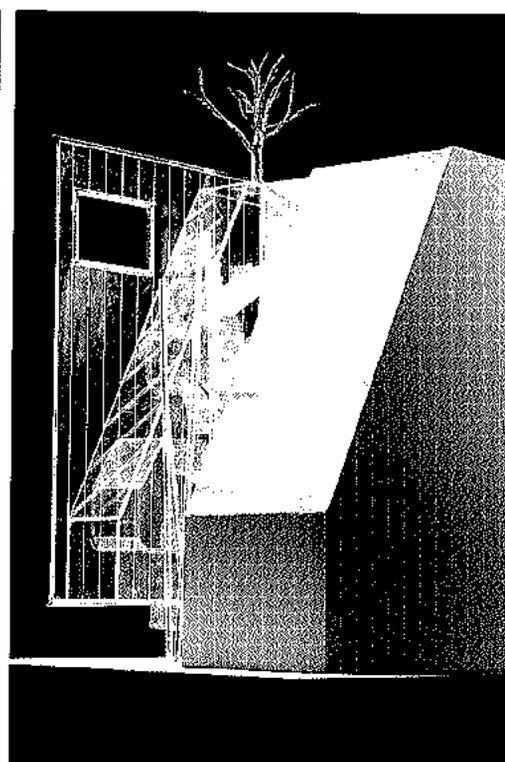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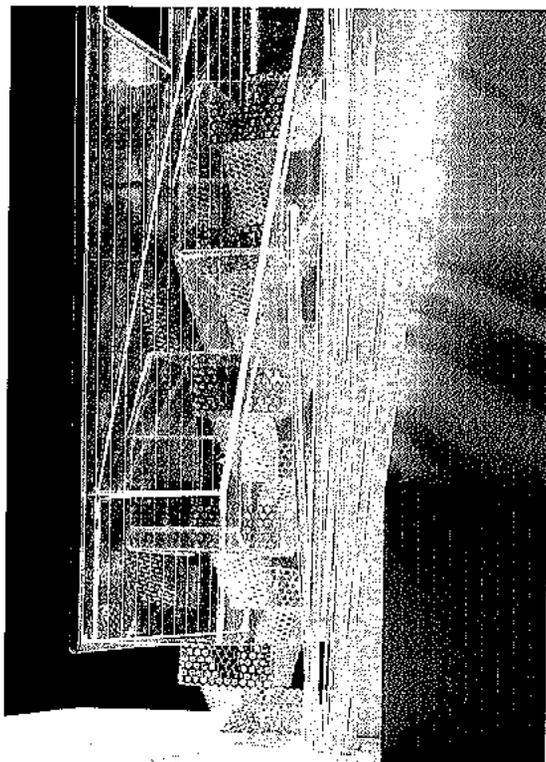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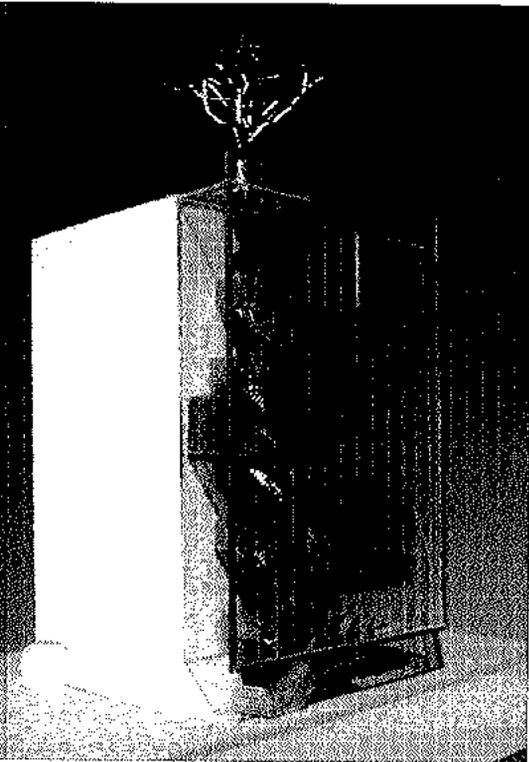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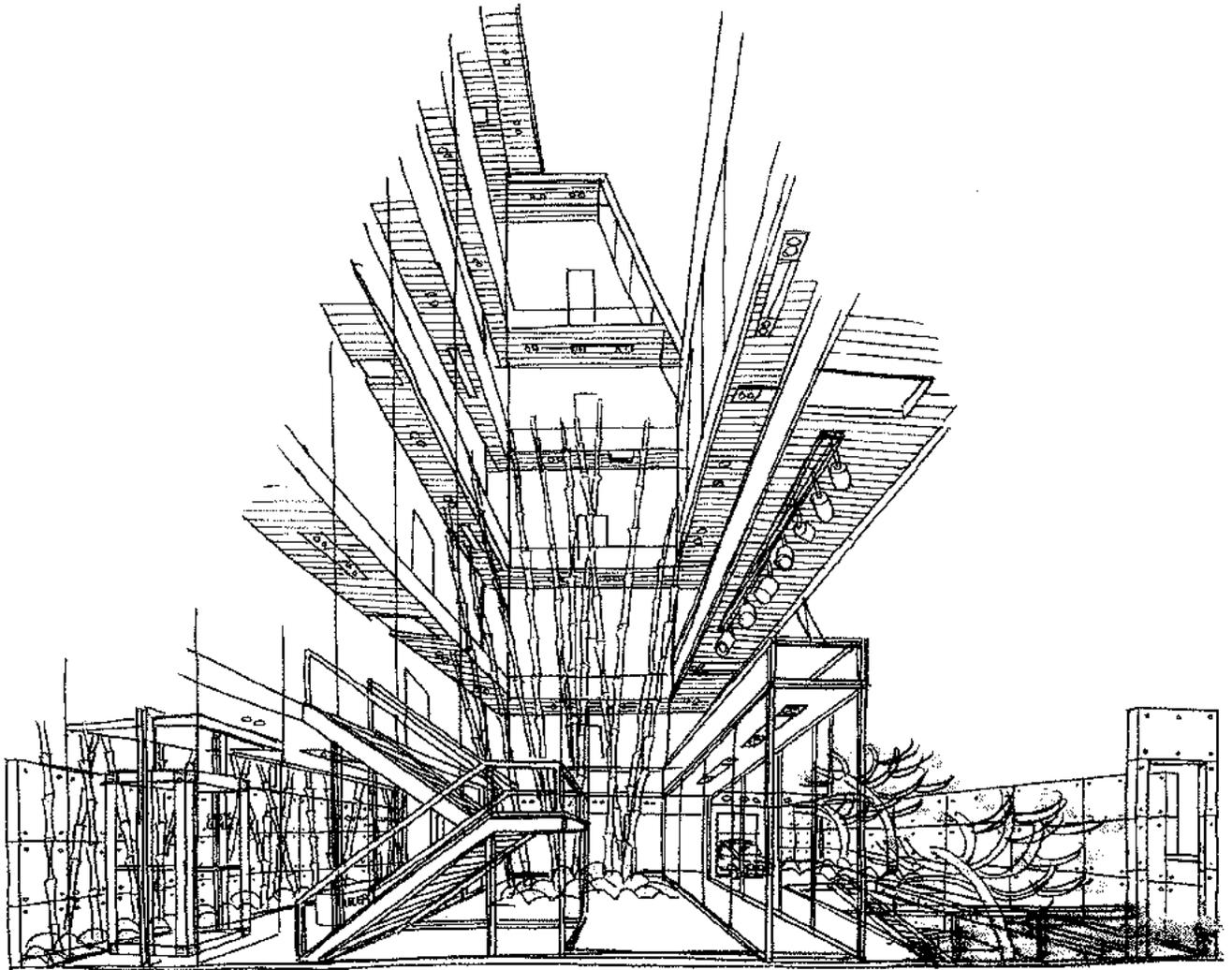
이 의원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병을 치유하는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어 '신진대사의 원활한 순환'이라는 진료특성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형태표현의 모티브로 삼으려 했다.

투명한 유리상자속에 움직이는 동선요소들 즉, 누드엘리베이터와 움직이는 계단을 내장시키고, 이 의원의 상징인 전시실을 상징적인

형태의 MASS로 끼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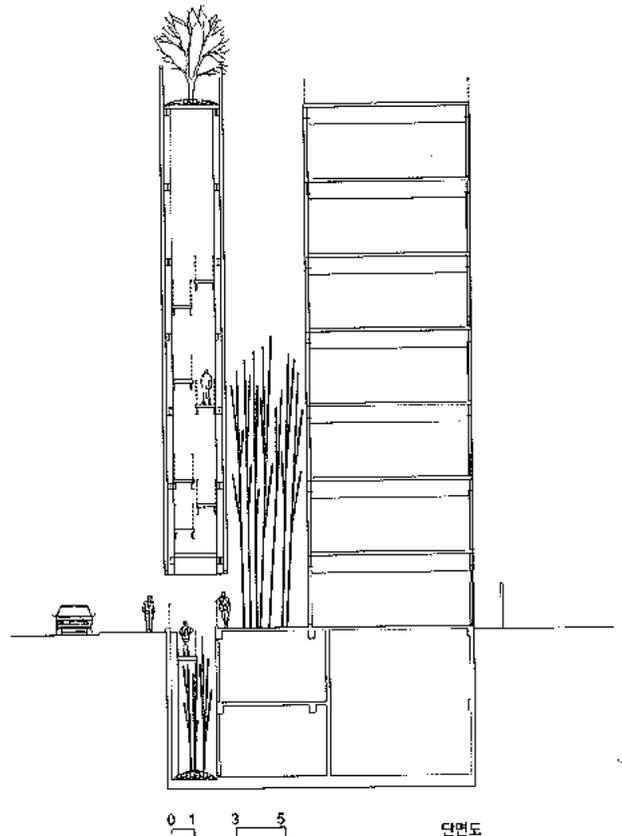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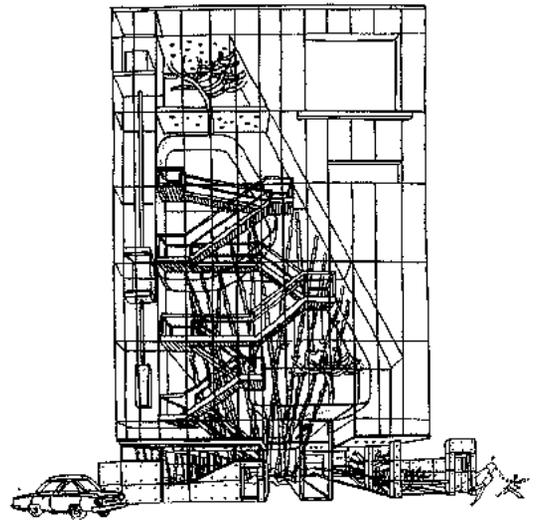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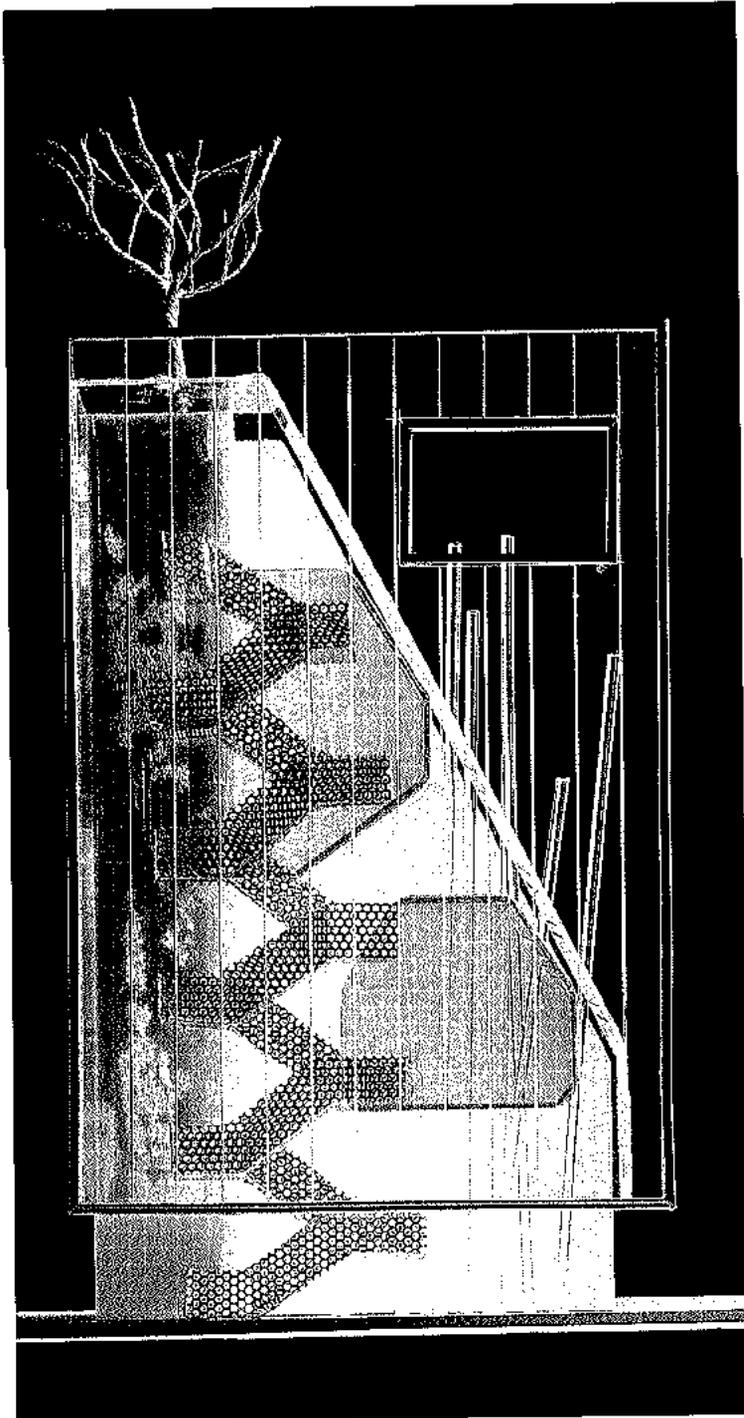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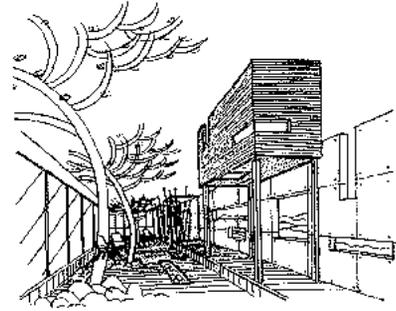
코어 MASS를 기능 MASS와 분리 배치하여 그 사이 '마당'인 외부 공간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기능 BOX는 외부도로와 투명 코어 BOX와 '마당' 공간을 통해 시각적, 공간적으로 교류하는 혼합적 연계를 의도한 것이다. 이것은 변화로운 내외부공간적 이야기를 잠재하고 있는 구성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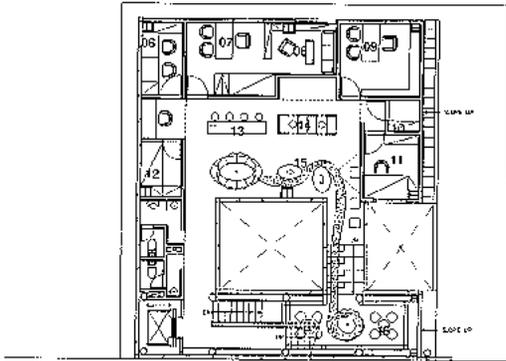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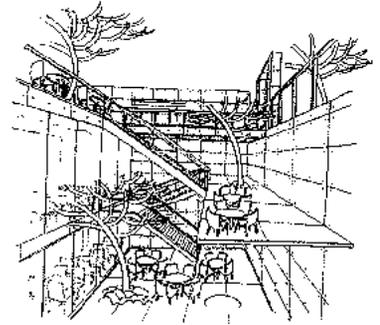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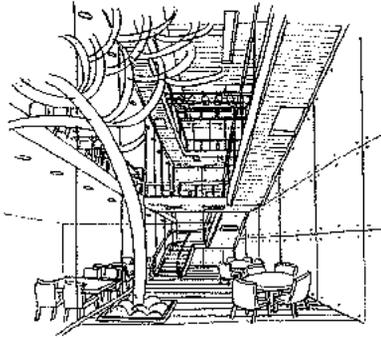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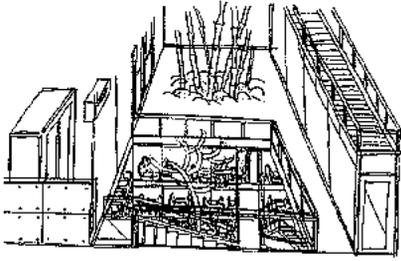
이 움직이고 있는 투명유리 BOX가 비활성의 이 거리에 활기를 주기 바라며, 그 속의 누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그리고 사선제한선을 따라 움직이는 계단이 마치 내장기관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전시기능을 가진 반투명 일명아이와 연계되어 순화되고 있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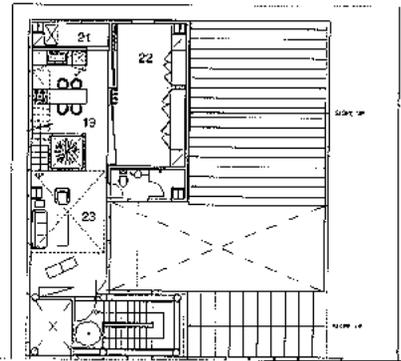
빌딩순환 시스템을 곧 "인체 신진대사의 순환 시스템"과 동일시하게 하여, 이 의원의 진료특성이 상징적으로 은유 표현되기를 의도했다.

'휴식처'로서 번역된 이 의원 건축이 '마당'의 외부공간과 투명유리상자를 통해 도시와 연계하게 하고, 그 상징적 기능 BOX가 이 의원의 SIGN이 되며, 24시간 움직이는 도시의 환경조형물 일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프로젝트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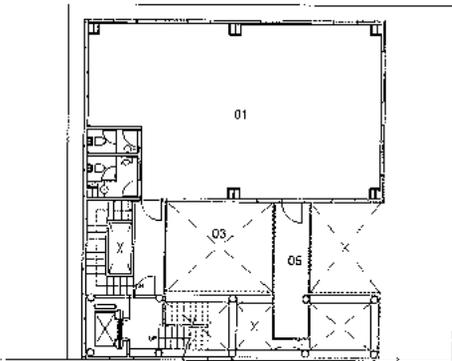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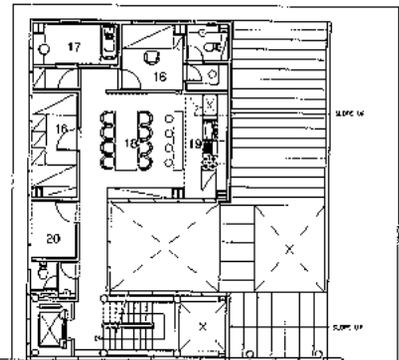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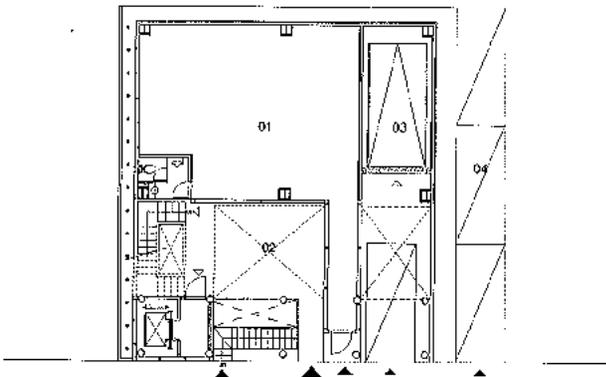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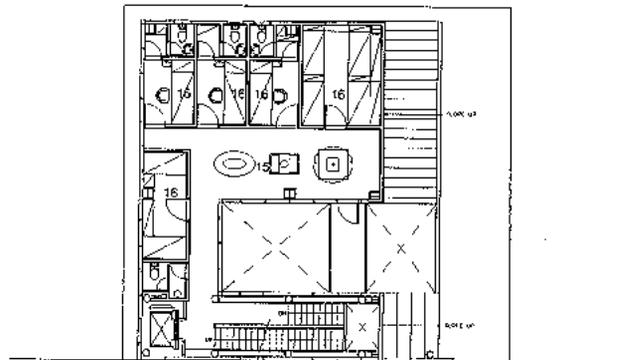
- 01. 의원
- 02. 안마당
- 03. 카 리프트
- 04. 주차장
- 05. 테라스
- 06. 입사실
- 07. 진료실
- 08. 응급실
- 09. 진료실
- 10. 강의실
- 11. 초음파실
- 12. 주사실
- 13. 진호양 스테이션
- 14. 예약실
- 15. 대기실
- 16. 물리치료실
- 17. 휴실
- 18. 회의실
- 19. 식당
- 20. 의사실
- 21. 다용도실
- 22. 침실
- 23. 거실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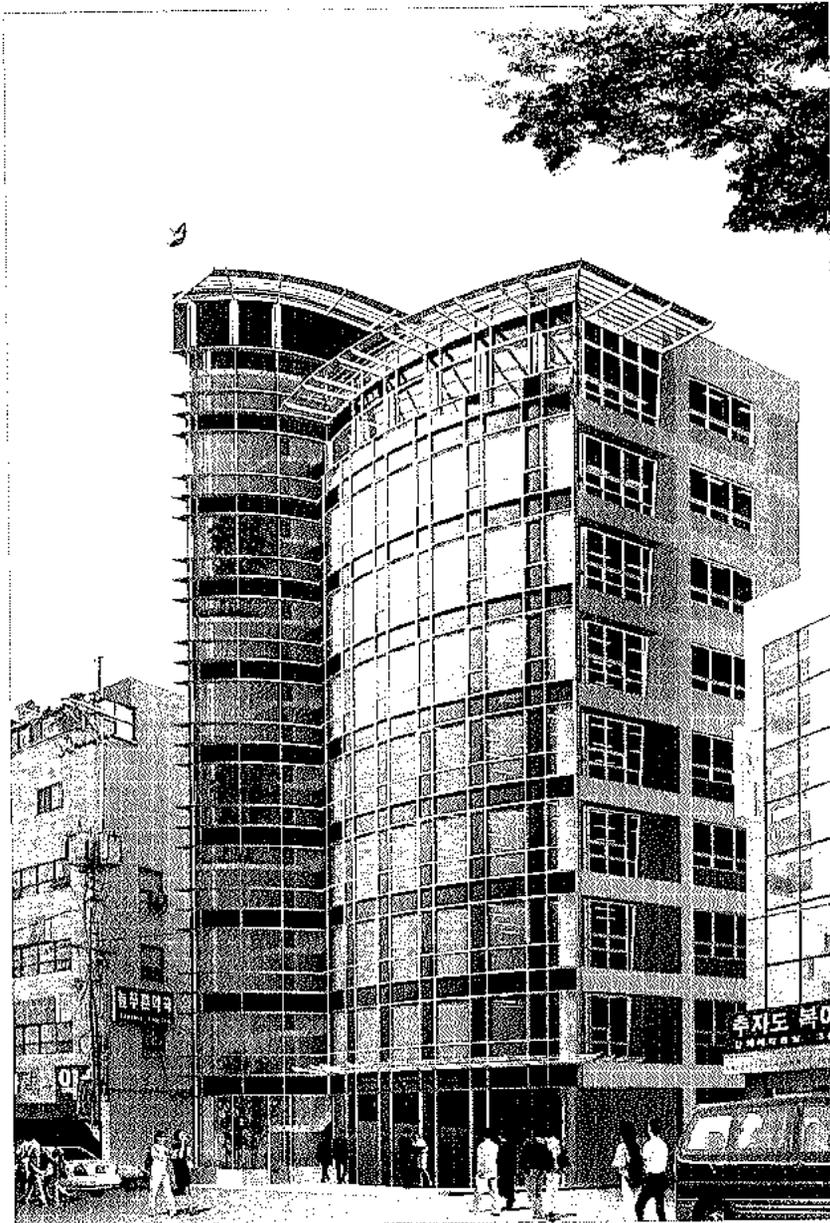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선릉타워 (조은빌딩)

Seolleung Tower



건축주와의 대화

건물의 배치는

그림과 같이 분석하여 도시축인 전면도로에 상응 하도록 하고, 전면에 소수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였다.

또 4m 전면도로의 좁은공간을 고려하여 전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상하수도의 배수, 가스인입 및 전기인입은 지하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평면은

조그만 건물이지만 사무실 건물로서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단실에 3개층마다 대나무를 식재하여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 지하실 2개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Grid system에 3숫자의 Module로 컴퓨터 사용을 위한 Floor Box 간격을 3m 기준으로 배치하였다.

계단침 부분에 3개층마다 대나무 조경을 만들어 열린 자연친화 공간으로 하였다.

입면은

양 옆의 4각건물과 대비할 수 있는

Design 구상으로서의 부드러운감정을 담아 내려고 곡선을 선택하였다.

또 전면의 획일적인 모양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였고, 전면의 좁게 보이는 입면 면적을 확대시켜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주출입구와 Roof Top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조형적으로 처리하고, 전면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전면의 4m의 좁은 공간을 넓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를 위하여

지하층에 급배기 시설을 마련하고, 필요한 펌프는 모두 추가 1대씩을 예비하여 설치토록 하고, 정화조 탱크와 정화조 관리실의 급기와 배기시설을 설치하였다.

주차는 Car-Lift를 설치하여 자주식으로 주차토록 하였으며, Elevator는 15인승으로

이시할 때 최소한 책상 정도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장실의 난방과 4계절 온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냉 난방은 EHP를 설치하고, 청소비용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각종 바닥 자재를 450×450 세라믹타일을 사용하였다. 또 외부와 직접 인접한 부분은 내후성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였고, Heat Loss 및 응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원가 관리를 위하여는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명경쟁 입찰로서, 입찰자격 제한을 회사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여 3개사를 응찰시키고, 수량점검 및 가격 검토는 설계수량을 제시하고 누락과 추가수량을 검토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설계사항의 잘못도 입찰전에 확인하여 추가공사의 책임 한계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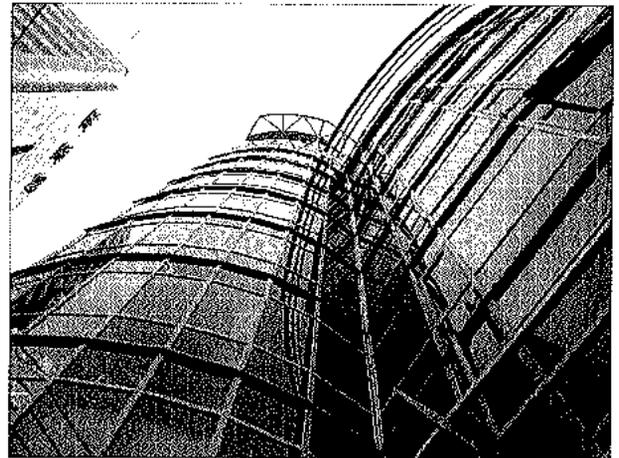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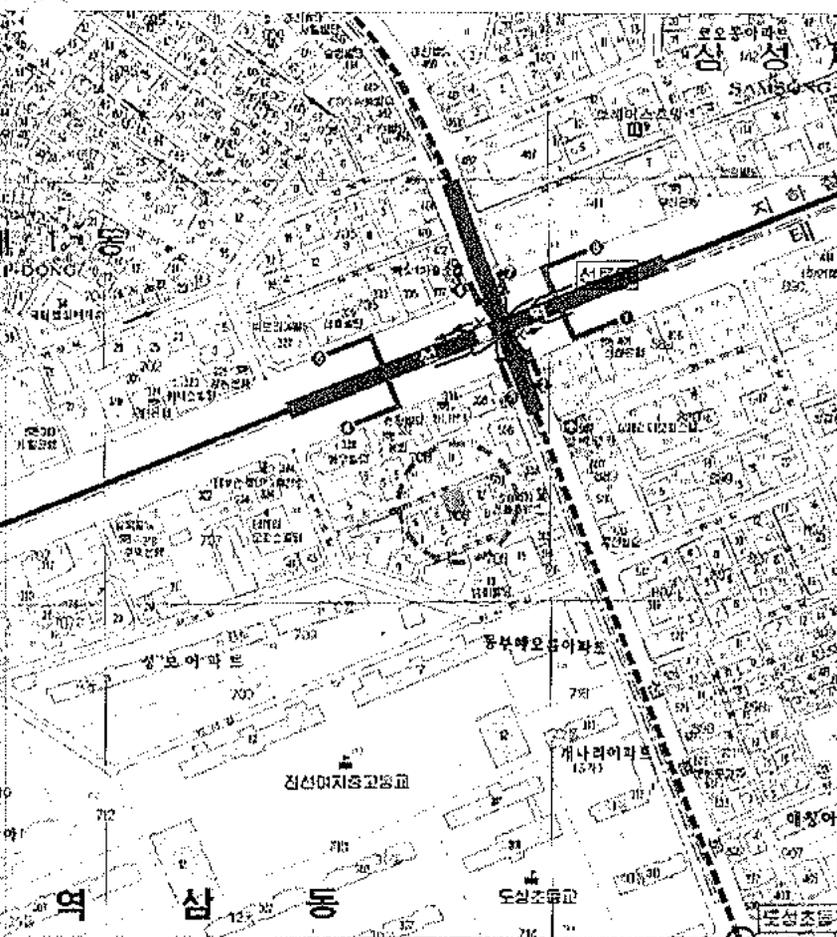
시방서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시방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도면에 잘못된 것, 도면에 표시하지 못하는 것 등을 정확히 명시 해야 한다.

앞으로 시방서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건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시방서에 자재와 장비가 필히 명기되어서 입찰 당시 분명한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여 시공사에 자재와 장비 등의 금액으로 인한 분쟁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하자의 주 요인이 되는 방수공사 등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명기(정부공사는 특허난 자재와 품질 이하여야함)하여 믿을 수 있는 책



임 시공으로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주와 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공사질을 높이고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방서에 자재, 장비를 명시하여 부정과 불신을 받는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덕망과 감사

건축주가 직접 디자인한 건물 준공판을 실명제의 뜻으로 설계 및 감리자와 시공자의 이름을 명기하여 건물정면 입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지면을 빌어 건축사의 원하는 디자인을 수용해 준 건축주의 이해심과 또한 믿고 맡겨준 뜻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무리한 디자인에 시공이 까다로웠음을 시인하며, 건축주의 건물관리에 대한 고건은 앞으로 설계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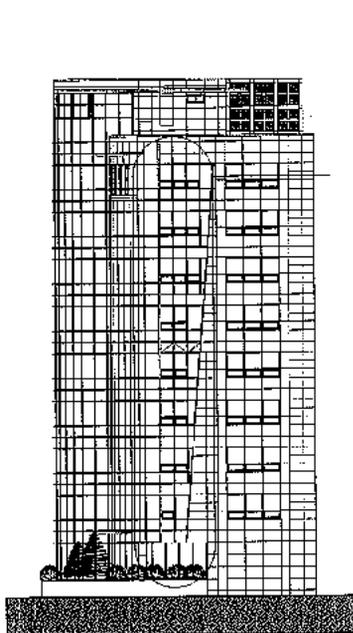
건물이 준공된 후 단 기간내에 임대가 완료 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큰 기쁨이었으며, 건물이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임대인들의 소문도 매우 듣기 좋았다.

건축주와의 2년여에 걸친 긴 대화는 이것으로 너무 빨리 끝나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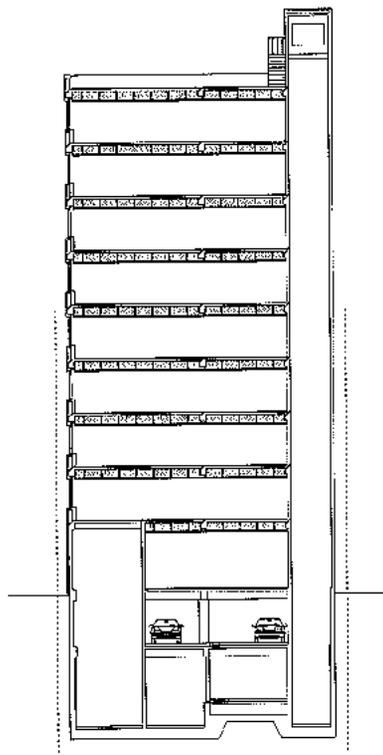
그간 서로 주장한 이견은 자기나름 대로의 철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공공단체는 철저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은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사회의 정면에서 개인과 공공의 사회를 이해하여 여기에 알맞은 업무를 추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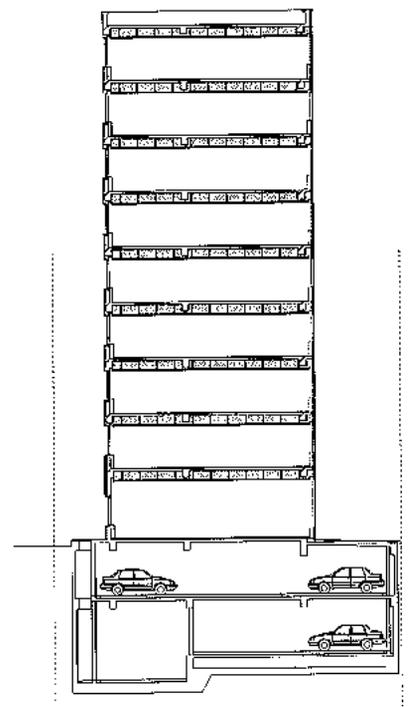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24호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
용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14.20㎡
건축면적	187.50㎡
연면적	1,998.43㎡
건폐율	59.68%
용적률	511.2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9층
주차대수	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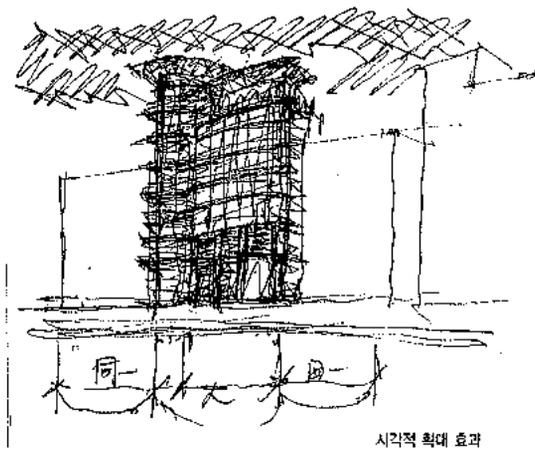
서측면도



평단면도



중단면도



시각적 확대 효과



2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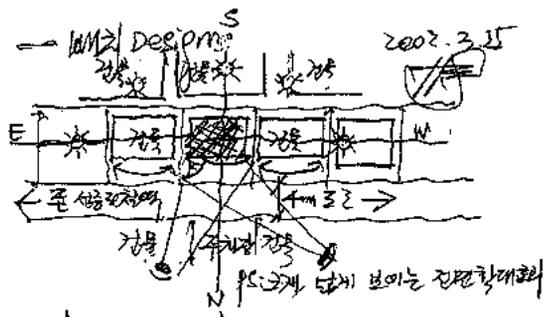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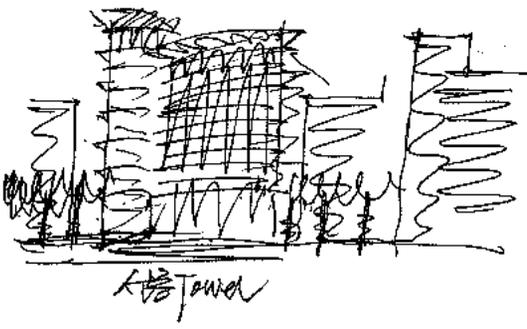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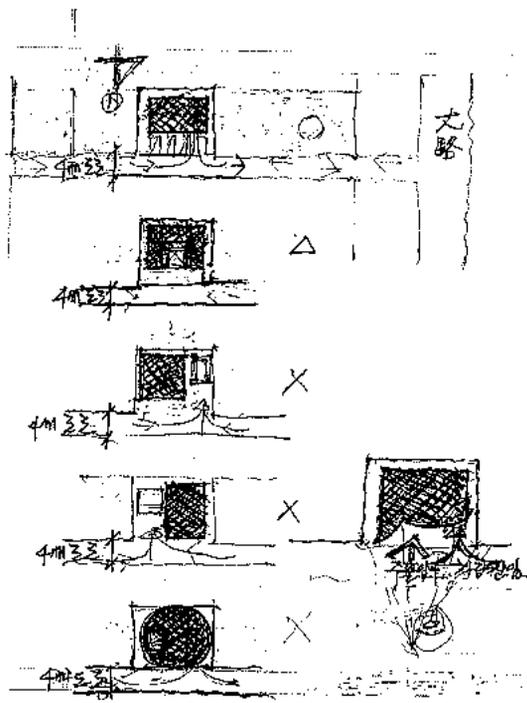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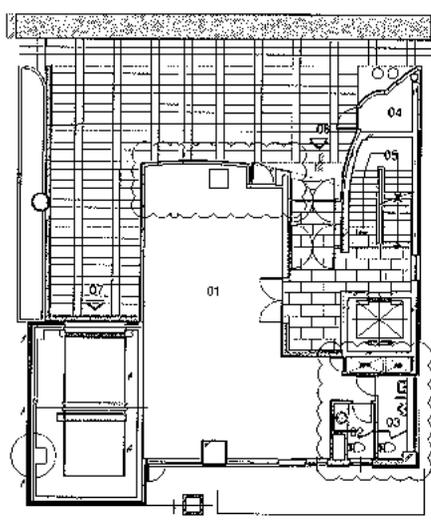
Image sketch



대형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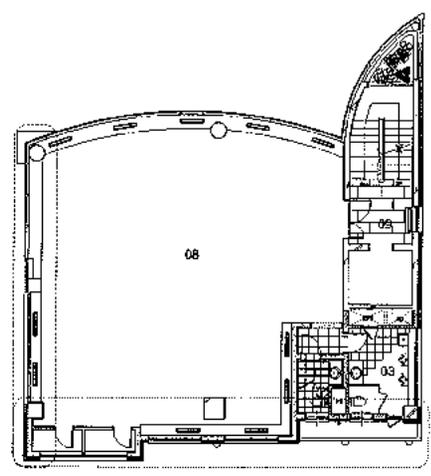


배치분석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01. 근원 생활사설
- 02. 화장실(여)
- 03. 화장실(남)
- 04. 관리실
- 05. 계단실
- 06. 주유입구
- 07. 주차입구
- 08. 사무실
- 09. E.V.실



기준(4,5,6)층 평면도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2

Dutch Modern Housings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필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필자 주>

- 01_ 역사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 02_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 03_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 04_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
- 05_ 전원도시의 전통
- 06_ 집합성과 공유공간
- 07_ 표준화
- 08_ 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 09_ 공간의 개방상고총화/결론

최재석

1957년 충북 보은 출생.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창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리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설계·의정·유형,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미법』 등이 있다.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

공업화 주택

많은 농촌 거주자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일터 가까이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거주할 주택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 사이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박애정신의 전통은 정원이 딸린 호취라는 특징적인 주택형태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의 동기는 순수한 경제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¹⁾ 기업가들에 의한 주택건설은 남북 홀란드주(州) 서북부 제지공업지역에서 1800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831년 네덜란드 최초로 증기표백공장을 건설한 영국인 아인스워스(Thomas Ainsworth)는 1834년 초 트벤테 지역에 노동자를 위한 주택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²⁾ 아인스워스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한 섬유회사의 소유주인 살로몬손(G. H. Salomonson)은 1852년 노동자를 위해 80여 가구의 주택을 지었다.

1864년, 레고트(Petrus Regout)는 자기 회사인 그릇공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지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 소재의 주택은 당시 가장 독자적인 노동자용 주택건설의 사례로 꼽고 있으나, 이 주택은 나중에 '인간용 창고(human warehouse)'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7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주택은 오로지 한 개의 입구를 통해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대단히 협소

한 것이었으나, 기업들 사이에 노동자를 위한 주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나중에 전원도시운동과 관련된 계획의 선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기업이 스토크(Stork)의 후원으로 헨헤르로 주택조합에 의해 건설된 사례도 있다. 이와 유사한 주택조합이 2년 앞선 1867년, 알메로(Almelo)에 설립되기도 하였는데, 이 주택조합의 형태는 1911년 헨헤르에 건설된 에트 란싱크(Het Lansink) 전원마을의 선구적 역할이 되기도 하였다.

투기성 주택

19세기 네덜란드에서 기업가와 주택조합에 의해 지어진 노동자용 주택은 예외적인 것으로 노동자 계급을 위하여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은 사적인 투기대상의 하나였다. 이미 13세기 초 유럽에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³⁾

19세기 중반까지 슬럼가는 없었으나 슬럼가 출현이후 이전의 계획들이 연구대상이 되면서 슬럼가는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

이렇게 건설된 열악한 주택과 당시의 건설과정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주택개량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나폴레옹 영향 하에 있던 시대의 금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 금융정책은 주택건설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정책에는 고정된 계급분할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의 우선 할당, 저당권 설정, 그리고 해외 채권을 포함하고 있었다.⁵⁾ 프랑스의 크레디 모빌리에(Credit Mobilier)은행은 네덜란드의 3개 지점에 저

당권을 설정하여 은행 업무를 개시하였다. 본래 이것은 농업 투자를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으나 농업 쇠퇴로 인한 투자의 가능성 감소로 자본회수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택건설시장을 찾고 있었다. 당시 주택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⁶⁾

첫 번째 저당권 은행은 1861년에 설립되었고, 1863년 사파티(Samuel Sarphati)에 의해서 네덜란드 저축신용금고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1870년 이전 은행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크레디 모빌리에 은행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19세기 후반의 경제적 팽창 분위기는 일반 시장에서 자본가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일반화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임대주택이었다.⁷⁾

소규모 건설회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실제 주택건설에는 관심이 없던 기업가들까지도 투기성 주택건설이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⁸⁾ 즉, 저당권 설정의 가능성은 높은 이윤을 기대하게 하고 토지구입을 하는 데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택과 동일하게 토지는 그 자체가 투자의욕을 촉진시켰다. 자본가 자신은 토지 투기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주거밀도를 올려 토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밀도의 엄청난 주택수요, 그리고 이윤획득을 위한 투자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가족주의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혁명건축(Revolutiebouw)' 혹은 '날림 건축(Jerry-Buildings)'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질 낮은 주택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⁹⁾ 투기업자가 지은 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은

1) J. J.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1812-1870, (Utrecht, 1973), pp. 160-161

2) Brugmans, op.cit., p. 161

3) Catherine Bauer, Modern Housing, (Boston, 1934), p. 6

4) Bauer, op.cit., p. 14

5) Audrey M. Lambert, The Making of the Dutch Landscape, (London, 1971), p. 275

6) J. Nycolaas and R. Geurtsen, 70 jaar woningwet, nog eens 70 jaar woningnood? Plan, No.9(1972), p. 20

7) Brugmans, op.cit., p. 90

8) Bauer, op.cit., p. 33, 슬럼가는 본래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의 분야이다.

9) J. Nycolaas, De huisvesting arbeidende klasse: Drager van maatschappelijke tegenstellingen, Bouwen 1920-1940, De Nederlandse bijdrage aan het Nieuwe Bouwen, 1971년 9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개최된 전람회 커달로그(Eindhoven, 1971), p. 12.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능력에 박한 임대료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많은 주택들이 실제로 증산증을 위한 것이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주택의 공급량 또한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다. 1870년 이후 네덜란드 경제의 급속한 팽창은 주택건설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¹⁰⁾

주택건설로 얻는 이익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기의 매력은 점점 잃게 되었다. 이윤, 운영자금, 그리고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자본은 주택건설로 얻는 이윤보다 높은 새로운 투자분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부진하게 되었다.

1850년과 1900년 사이에 건설된 질 좋고 값싼 주택은 500세대도 채 안되었다. 이 기간에 건설된 주택 세대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¹¹⁾ 초기의 주택밀도는 복층 구조(multi-story)의 적용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동(柱棟)의 모서리조차도 세대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형성된 폐쇄형 주동(closed housing block)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완전 폐쇄형(total enclosure)은 후세 건축가들에 의해서 기능적, 미학적 관점에서 옹호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주택조합

1902년 주택법이 입안되기 전후의 기업용 주거지를 특징 짓는 온정주의(paternalism)는 부유한 기업가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에서도 볼 수 있었다. 1818년 도시에 사는 실업자들에게 농업을 위한 미경작지나 습지대로 이주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공제조합(benevolent society)¹²⁾이 설립되었

다.¹³⁾ 1835년, 이 조합은 레이든에 33가구의 노동자용 주택을 지었다.¹⁴⁾ 그러나 주택조합에 의해서 건설된 노동자용 주택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 이후였다. 오로지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주택조합은 1851년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되었다.

이런 주택조합과 이와 유사한 기구들의 설립은 강한 가족주의적 양식에 의해서 발전된 것으로, 근면하고 품행이 좋은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알코올 중독자는 이와 같은 조합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었다.

1853년, 암스테르담의 주택조합에 의해서 18가구가 지어졌는데, 각 세대에는 2개의 침실, 화장실, 철제 침대, 그리고 싱크대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런 설비는 당시 독립된 침대를 흔히 볼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¹⁵⁾ 1853년 아냄에서 유사한 조합이 결성되었고 1854년에는 헤이그에서도 결성되었다. 1860년대까지 네덜란드 전체에 9개, 1870년대까지는 17개나 되는 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의 절반 이상이 투기목적이었으며,¹⁶⁾ 나머지 절반은 가



그림 1. 노동자 계층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조합에서 지은 집합주택 (아냄 싸우드 거리에 위치함). 1854-55

족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 이었다.¹⁶⁾

예를 들면, 아냄에서 설립된 '노동자 계급에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합'은 4%의 배당금을 주주(shareholders)에게 배당하였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자본 소득이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조합은 노동운동의 광범위한 목표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주택조합은 1실 주거(그림1)를 건설하여,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보다 질 좋고 새로운 주택건설로 환원하지 않았으며, 1879년에 실시된 1실 주거의 2분할(two-for-one)로 인해 생긴 실제 배당금을 4%에서 6%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다. 노동자 자신의 주택건설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1860년경부터 시작된 소비자 조합운동이 계기가 되어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¹⁷⁾

1868년 자신의 소유 주택을 짓기 위한 건설회사가 설립되고, 여기에서 장수된 임대



그림 2. 암스테르담 노동자용 주택조합에서 지은 집합주택에 집합주택은 로히메인 거리와 디르크 히르토르 거리 사이에 위치함. 1884

그림 1(아냄)과 그림 2(암스테르담) 사례의 비교 설명 이 두 계획은 대도시 주택조합들이 개인자본의 투자로 발생한 이득으로 살아남은 사례들이다. 아냄에서는 전통적인 손익 이치가 잘 표현되어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암스테르담에서는 가족단위(the family unit)라든가 집합적 전체성(the collective whole)에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암스테르담이 수직적 구성과 생산효율을 주요한 요소로 보면서 기술적 기초에 바탕을 둔 아파트 중층의 선구자였으며, 아냄은 전통적 요소들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원도시 계획에 인용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패턴이 19세기 당시에는 그치지 대립적이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1920년대 전후의 건축적 대립과는 사뭇 다른 일련을 보여주고 있다.

10) J. A. de Jonge, De industrialisatie in Nederland tussen 1850 en 1914. (Amsterdam, 1968), p. 197. (Nycolaas, p. 10에 언급되어 있다).

11) Nycolaas, op.cit., p. 13.

12) Lambert, op.cit., p. 256.

13) Brugmans, op.cit., p. 159.

14) Willemsen, De Volkshuisvesting Arnhem, p. 25. 1894년 아냄(Arnhem)에서 설립된 주택조합 Openbare Belang은 거주할 세대를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입주를 제한하였다.

15) Brugmans, op.cit., p. 160.

16) Brugmans, op.cit., p. 159.

17) J. Th. W. Willemsen, De Volkshuisvesting Arnhem 1829-1925. (Arnhem, 1969), p. 15.

로는 임대인의 장래 주택구입을 위해서 쓰였다. 이런 협동조합은 노동운동의 광범위한 목표 중에서 몇 개만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02년 이전에 지어진 노동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 수는 대단히 적었지만 그들은 지자체의 성격과 동등할 정도로 가장 현신적인 노동자용 주택의 생산자였음에 틀림없었다.(그림2)

아흐네타 공원단지

1902년 주택법 형성 이전에 지어진 노동자용 주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질 좋은 것으로는 델프트에 있는 마르켄(J.S.van Marken, 1845~1906)이 설립한 아흐네타 공원단지(Agnet Park)를 들 수 있다.(그림 3~8) 이 단지는 마르켄이 경영하는 네덜란드 효모공장의 노동자를 위해서 1884년에 설립된 것이다. 마르켄은 친프랑스적 인물로, 그가 노동자를 위하여 주택에 정원을 도입한 이념은 몰하우스(Mulhouse)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자 도시조합은 1853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부른빌레(Bournville)도 마르켄에

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흐네타 공원단지의 주택 중 일부는 대부분 몰하우스 형태를 모방하였다. 마르켄은 오웬(Robert Owen)의 지식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설교자인 부친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¹⁸⁾ 마르켄은 아흐네타 공원단지가 완전히 자치부락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용 주택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조합운동에 대한 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공유자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회'라는 취지로 설립된 아흐네타 공원단지는 마르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주택도 단지의 중앙에 건설하였다. 그는 노동자 생활에 대한 욕망과 양식을 미리 조사하여 실천에 옮겼다. 주택단지의 명칭은 마르켄의 부인 이름에서 유래하는데, 그의 부인 또한 부락의 모친적 역할(mother figure)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마르켄은 이와 같이 개인적 관심을 노동

자 생활에 적용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끔 주의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공장, 공장을 위한 모두(the factory for all, all for the factory)'라는 표어는 부락에서의 가족주의와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¹⁹⁾

노동자들의 임금은 투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익에 대한 관심은 평화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²⁰⁾ 가족주의적 혹은 현실 도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흐네타 공원단지는 이제까지 19세기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사례 중에서 주택의 질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거주공간에 대한 기대 이상의 확보와 단지에서의 공간적 개방감은 의미 있는 혁신이었다.²¹⁾

단지계획은 쇼헤르(J.D.Zocher)가 담당하였는데, 그는 오래 전부터 영국식 정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아흐네타 공원단지는 꼬불꼬불한 길, 풍부한 녹지대, 언뜻 등이 있는 픽처레스크(picturesqueness)풍 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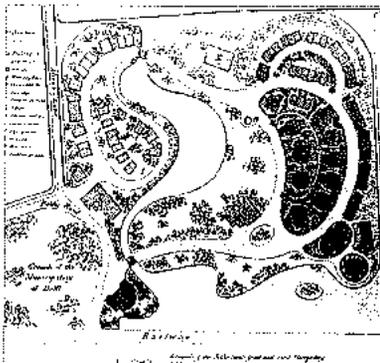


그림 3. 쇼헤르+세르크호흐, 아흐네타 공원단지 에 있는 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 배치도(델프트, 1885) 이 공원단지의 배치계획은 영국식 정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픽처레스크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배치성격으로 보아 공장 노동자를 주거단지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주택형태를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주택단지 안에 공장을 대표인 마르켄의 주택도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체라는 공동체의 상정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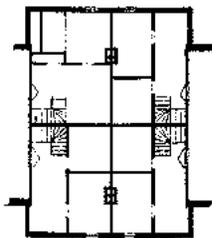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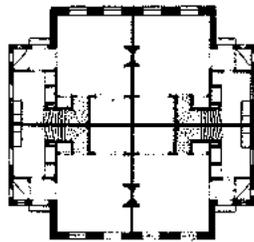


그림 4. 1층 평면도(위)와 2층 평면도(아래)



그림 5. 투시도



그림 6. 호수에서 본 주택단지의 전경, 1885

18) B. H. Pekelharig, J. C. van Marken, Woord en Beeld, No.7(1902), p.252. S.Schepel, Het Agnet Park, 미간행논문(Delft, 1969)에서 지적하고 있다.

19) 델프트 공과대학의 응이(D.de Jonge)가 지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0) The Pilgrimage into Yeast Land, The British Bakers' Press Quarterly Trade Review, July(1893), p.v.

21) M. J. I. de Jonge van Ellemeet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의 회장)는 '아흐네타 공원단지(Agnet Park)의 공간을 구성하는 일이 건축가의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 네덜란드 최초의 주택 사례였다'고 기술한 것은 물론 여기서 '양질의 사회적 집합주택(social housing)이 좋은 건축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De woningbouwverenigingonen de architectuur, Beter Wonen (Amsterdam, 1936), p.6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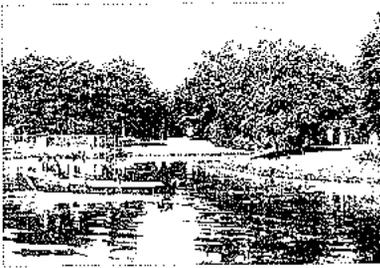


그림 7. 일반적으로 골목으로 상징화되어 온 공간이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화로운 모습. 이 주택단지는 전원도시의 비전에 대한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아호네타 공원단지와 같은 자기 충족적 커뮤니티 건설이 네덜란드 전원도시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림 8. 주택의 전경. 이 주택단지는 2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노동 환경같은 것은 결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상호 공통된 관심이 바탕이 되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체화되었다. 또한, 아호네타 공원단지는 네덜란드 노동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평화롭고 행복에 중대한 커뮤니티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부도덕성도 거부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들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바깥일하면, 사업의 상업적 성공이 노동자를 편안하고 인격하게, 그리고 일용양식을 배려한다는 것이다. (‘호모를 생산하는 나라의 밀방’, The British Bakers Press, Quarterly Trade Review, July, 1933)

다.²²⁾ 이는 네덜란드식이 아니라 풍부한 이미지와 위엄에 충만한 조화를 나타내기 위한 영국식 정원풍이었다.

또한, 노동자 주택에 상류층 주택의 품위를 갖는 풍부한 조화를 적용시켰다. 한 지붕 아래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 근처에 회사의 대표인 마르겐의 주택도 노동자용 주택과 같은 규모로 지어 시각적 연속감을 갖도록 배려되었다. 20세기 노동자 주택의 품위에 대한 희망은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을 보게 되었으나 아호네타 공원 단지에 도입된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앞서 진행된 영국의 포트 선라이트 (Port Sunlight) 전원마을에 비해 아호네타

공원단지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네덜란드 국내에서 투기세력으로부터 멀어질 경우 무엇을 건설할 수 있을까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준 중요한 사례로써 남게 되었다.²³⁾

1900년 이전의 주거환경

농촌의 열악성

대부분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투기내지 산업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²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은 농촌에서 볼 수 있는데, 주로 무관심과 더불어 고립 또한 무시 못 할 환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동남부 지방은 해안지방의 경제적인 번영과 투기바람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흙으로 만든 캐빈(sod-cabins)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주자 자신이 하루 만에 지은 것으로 재료로는 나뭇가지와 흙을 사용하여 벽을 만들고, 참나무 가지로 출입문을 만들었으나 창문은 없었다. 그리고 자연 상태의 나뭇가지로 구멍(hole)을 만들고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땅 위에 굴뚝을 설치하였다.²⁵⁾ 이와 같은 주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의 노동자를 위한 주거로 수백만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볼 수 있다. 1930년대까지 드렌테주(州) (Drente)에는 최악의 쉼터(shelter)라고 불리는 주택이 존재하였다.

거리를 따라 지은 나열식 주택

19세기 후반, 가장 전형적인 도시형 주택은 투기꾼에 의해서 지기(地價)가 그다지 높지 않은 도심부 변두리에 건설된 것들이다. 이런 주택들은 기존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

해서 파일을 박는 대신 하중도 줄이고 공사비도 줄이기 위해서 층고를 낮춘 단층으로 건설되었다. 이것뿐 만아니라 지붕 밑에도 방을 둘 수 있도록 경사지붕을 도입하였다.

이런 주택들은 세대와 세대가 접하는 경계벽을 공유하는 긴 형태로 지어졌고 기본적으로 평면계획에서 뒤쪽으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관, 붙박이형 침대(cupboard bed), 그리고 계단은 실제 주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주택의 실내 설비시설은 싱크대 및 펌프가 한 쪽의 긴 벽을 따라 설치되었다. 그러나 부엌은 가깝게 건물의 뒤편에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은 건물에 붙여 설치하거나 외부에 독립시켜 부엌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5도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다락방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광이 가능하도록 작은 창문이 한 개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을 갖는 주택은 도심지에 있는 주택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것으로 보인다. 자연 통풍과 채광이 어느 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 또한 도로에 면하여 전용 현관을 갖게 되고, 집 뒤편에는 개인정원도 갖추어져 있었다.

주택의 증축은 일반적으로 집 뒤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전면 도로에 대한 건축선, 인접세대, 그리고 고정하중 이상을 지지하기 어려운 기초 성능 등의 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일하게 증축이 가능한 장소였다.

주택의 폭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목재의 스판 허용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건물 폭의 제한성은 증축이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주

22) 호야이(Françoise Hooy)에 의하면, 아호네타 공원단지는 일련의 중앙부지 중에서, '가장 픽처레스크한 사례였다' 고 한다.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1969)와 p.30을 참조.

23) 비바우트(F.M. Wibaut/1859 ~ 1936)는 암스테르담시 시의회 의원이고 1914년부터 1927년에 걸쳐 주택문제에 관한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마르겐(van Marken)의 친구이기도 하다.

24)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방대한 양의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인용하였다.

25) H. Roland Holst, *Kapitaal en arbeid in Nederland* (1932), p.96(Nycolaes, De huisvesting der arbeidende klasse, p.7 참조)

택의 뒤쪽에 새로운 방을 만들 때, 본래 층정에 면해 있던 창문이 층축으로 가려져 자연채광과 환기에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그러나 지붕 밑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부엌과 방들을 건물 뒤쪽으로 배치한 주택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나중에 많은 건축가들이 이와 유사한 부가적이고 단편적인 계획을 도입하였다.²⁶⁾

이런 기본적인 나열식 주택(row house)은 전원도시형 주택이라든가 아우드(J.J.P.Oud)의 끼프혹 집합주택과 같은 계획이 형태학(morphology)을 차용하는 전통적인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이런 주택형식은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계획적인 전체성을 갖는 유형으로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잠재적인 영역성의 확보에 있고 거주자는 외부세계와 뒤쪽의 자유로운 세계를 그들 자신의 문을 통하여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주택형태로는 주택의 앞과 뒤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이것은 주택의 방을 보다 나은 도로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아름다운 방(mooie kamer)'이라는 심리적 결과를 낳았다. 거주자들은 가능한 도로 측에 면해서는 품위를 갖도록 노력하고 이와 반대로 중정 쪽으로는 좀더 자유로움과 사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작은 다락방(tiny attic)을 갖는 원룸 주거의 외부공간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간의 대립성을 수정하기 위한 개혁자들의 새로운 시도는 결국 20세기의 건축 전개에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기존주택

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로 유입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 때 낮은 시민주택은 단일 가족에 의해서 사용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각 방마다 한 가족이 살게 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변하였다.²⁷⁾ 심지어 지하실(cellar)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1859년까지 암스테르담에서는 약 23,000명의 사람들이 지하실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본래 창고로서 사용된 곳으로 습기가 차고 어둡고 통풍이 안 되는 곳이었다.(그림9)

1874년 암스테르담 공중위생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처츄 주거환경이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시민이 지하실에 거주하고 지하실의 천장 높이가 낮아 1,000세대 정도가 어른의 키보다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²⁸⁾

등을 맞댄 주택

1899년 실시된 암스테르담 인구조사에 의하면 세대 당 평균 거주 인원수는 5인이었고 주택의 60%정도가 2개 이하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²⁹⁾ 대다수가 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형식중 하나가 등을 맞댄 주택이다(그림10~12). 금융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주택은 영국에도 있었다.

등을 맞댄 주택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이런 주택들은 세 개의 다른 주택들이 서로 경계벽을 공유하고 이 중에서 한 개의 벽면



그림 9. 지하실 주거의 흉태(암스테르담 베이제락, 1900)

에만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평면은 거의 정방형이고 실내는 벽을 따라 부엌이 설치되고 불박이형 침상 혹은 이 보다 조금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알코브형 공간(alcoves)이 측벽 혹은 뒤쪽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어쨌든 이런 취침공간은 햇빛의 유입이 어렵고 또한 환기가 되지 않았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현관입구에 한 곳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6가구, 8가구, 혹은 1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19세기말이 되어서야 세대 당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샤워실이라든가 욕조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그림 10. 암스테르담 노동자용 주택건설조합에서 세운 등을 맞댄 주택의 전형(암스테르담 아르비스 거라와 베스베르카데 사이에 위치함), 1877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등을 맞댄 형식의 집합주택은 당시 건설된 다른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 각세대는 전용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이 집합주택에 적용된 벽걸형 침상(the cupboard bed)은 절대적인 휴식공간으로서 1902년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건설되어 입주자들로부터 칭찬한 반응을 얻었다. 공유 계단실이 보일 것없는 것처럼 보여 노동자용 주택의 희망을 표현하는 아데오르가적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주택건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은 이 집합주택보다 이상적인 주택공급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02년 주택법에서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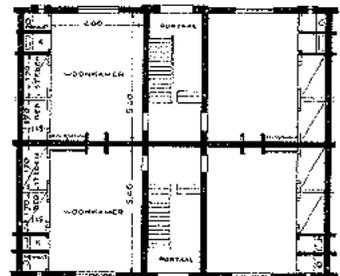


그림 11. 등을 맞댄 집합주택의 평면도
공유벽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세대가 형성되어 있다. 공유벽은 공사를 잘 감하고 지반이 약한 암스테르담 지역에서의 안전한 구조를 위한 것이다. 또한 최소면의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발도로 방을 두지 않고, 거실을 중심으로 측벽을 따라 침상 두 개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붙어 있다.

26) Karel Muller에 의해 1910년에 설계되었다(Hengelo의 Het Lansink 전원마을의 주택을 참조할 것).

27) J. J.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op.cit., p. 157.

28) Maatschappij tot nut van 't algemeen, Het Vraagstuk der Volkshuisvesting, (Amsterdam, 1886), pp. 19-20.

이런 주택들은 도로와 접한 곳이 없어 개방된 공간이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주택 뒤쪽의 대부분이 완전히 내장화되어 1차원적이었다. 즉 이런 형식의 주택들은 토지 투기가 극심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860년 로테르담에서 모든 주택들은 건물 기초파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런 다층구조의 형식은 좀 더 많은 단위면적 계획으로 기초파일 공사비를 낮추는 계기를 만들었다.³⁰⁾ 적절한 환기의 부족, 1인당 전용면적의 협소, 긴 노동시간, 그리고 저임금 등의 요인이 이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양방향에서 채광이 가능한 주택

이 집합주거 형식은 두 세대가 서로 등을 맞댄 집합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 예를 들면 건물 정면은 물론 건물 배면에서도 채광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나, 고정 창으로 인하여 통풍은 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그림13~16)

이 주택은 취침을 위한 시설인 불박이형 침상내지 알코브형 취침공간으로 건물 안쪽 깊숙이 갖추어져 있는 정방형 공간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부엌은 주택의 뒤쪽이나 실내의 별도 독립공간에 마련되어 있었다. 19세기말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과 빨래를 말리기 위한 발코니와 부엌을 안접하게 설치하였는데, 이런 외부공간은 1층 거주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1층 거주자가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위층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오래된 사진을 보면 개인정원에서 작은 동물의 사육은 물론 채소재배도 가능하여 거주자들이 도심 속에서 전원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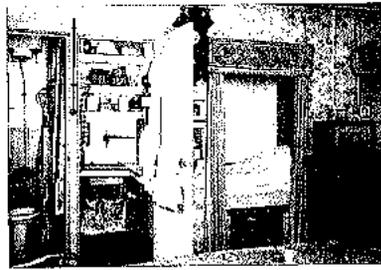


그림 12. 실내의 전경
우측부터 번기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싱크대와 싱크대 위의 찬장, 그리고 그 옆에 벽장형 침상공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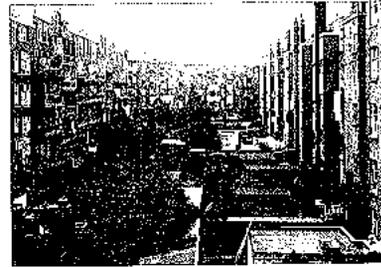


그림 13. 두기 목적으로 건설된 집합주택의 종정 전경(암스테르담) 19세기.

파리에서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과 아래층에 사는 사람 사이에 사회적 계층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파리를 모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암스테르담에서는 사회적 계층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바싸게 내고 살았다. 이것은 1층에 사는 사람이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정중 중심으로 개인용 전용공간이 배려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옥외공간의 확보는 거주자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제도화된 것이다. 19세기말경 위층 세대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발코니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1층에 거주하는 세대에 개인정원이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코니 설치에 대한 배려는 기능성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던 설치되어 있지 않던 도로에 위치한 정원과 중정을 향한 배면과의 대립상은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였다.

목적으로 만든 외부공간에 나무로 만든 헛간이 들어서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외부공간은 점점 폐쇄된 공간으로 전락하여 채소 등의 재배를 위한 텃밭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1층 거주자만이 단독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의 이미지는 시각적 카오스(visual chaos)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불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

당시 모든 주거형태 중에서 가장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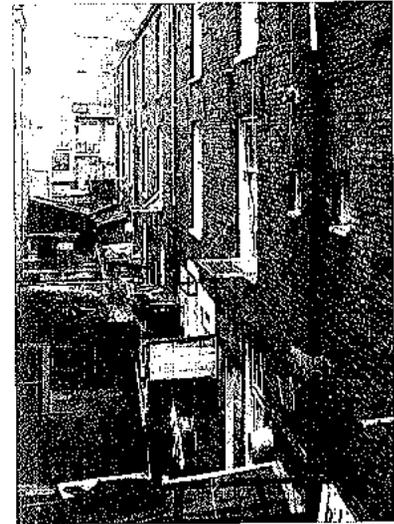


그림 14. 도로측의 파시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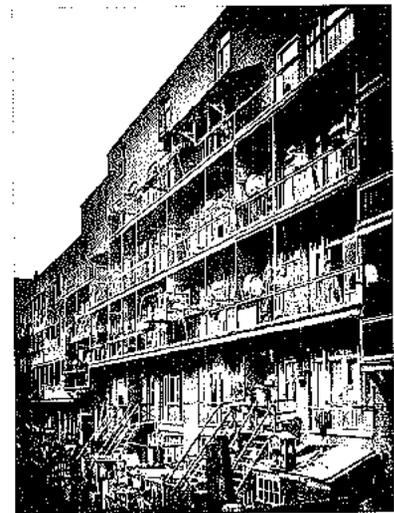


그림 15. 목재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위층의 전경

인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커튼이나 목재문으로 가린 불박이형 침상(the bedstede), 즉 built-in bed였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은 침상은 일반적으로 두 명의 어른과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한 취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린이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발끝에서 움츠려 자곤 하였다. 한 개의 불박이형 침상에 8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지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29) J. Nycoless, De huisvesting der arbeidende klasse, op.cit., p.13.

30) M. Luning Prak, Zeventig Jaar woningwet: huizen, plannen, voorschriften, Plan, No.11(1972), p.30.

31) Brugnans, op.cit.,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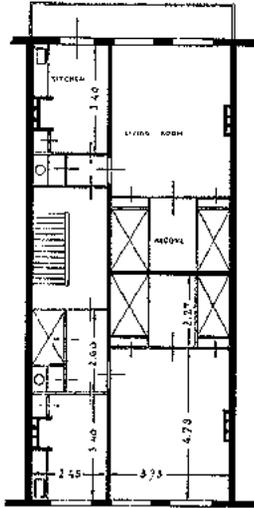


그림 16. 전형적인 알코브형 집합주택의 평면도 사래함스테르담, 19세기 알코브형 취침공간은 벽진형 침상보다 넓은 내부공간을 갖고 있었지만 동풍, 환기, 그리고 일조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에서의 알코브형 취침공간이란 동을 향한 주택형식을 말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평면도는 주동의 일부만으로 주동 전체의 중심인 중단을 향하여 옥외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도로에 면하고, 또 다른 시대는 중단을 면하여 있다. 알코브형과 동을 맞댄 집의 평면적 구성의 특징을 보면, 침상 및 설비시설이 한 쪽 벽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동을 향한 형태는 달리 알코브형에서는 거실과 중심으로 설비시설과 취침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박이형 침대보다 조금 확장된 알코브형 취침공간(그림 17)은 침대 옆으로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도 불박이형 침상과 마찬가지로 환기와 채광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혼잡하고 어둡고 침침하며 심지어 압박감을 주는 취침공간은 심층적이고 심리학적인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주거환경으로부터의 탈피는 19세기나 20세기의 주요한 공간변혁의 대상이 되었다.

1909년 설립된 조합에 의해서 지어진 첫 번째 집합주택인 암스테르담 로흐다레 집합주택(다음 회 참고-역주)은 1902년 제정된 주택법의 기준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끼

고 있었다. "불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미련은 상당히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묘한지는 몰라도, 독립된 새로운 취침공간에서 이들은 이전과 같은 가정(home)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공간의 점유성은 점점 사라져 버렸다."³²⁾

즉, 불박이형 침상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했던 일반적인 스킨십이 독립공간으로 인해 빼앗겼다는데서 오는 일종의 허탈감과 같은 것이었다. 1923년, 미국인 평론가도 "목재문으로 개폐 가능한 불박이형 침상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는 취침공간이다"³³⁾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바셀라드(Gaston Bachelard)의 저서 『공간의 시학』(1958)을 읽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적 현상(territorial phenomenon)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등우리(nests), 조개껍질(shells), 길모퉁이(corners), 그리고 내면의 무한성(intimate immensity)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현상학, 심리학, 그리고 문화적 비평의 조합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집은 세계의 모퉁이이다. 가끔 전해 내려온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를 최초의 우주이며 모든 의미에서 우주(cosmos)인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주거를 보다 친밀하게 들여다본다면 보잘것없는 집일지라도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생략) 그들이 꿈을 갖고 있다면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것을 함유하는 근원성이 있는 곳, (생략) 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언인가를 묻는다면 집은 꿈을 꾸게 하는 은식체이고, 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집은 평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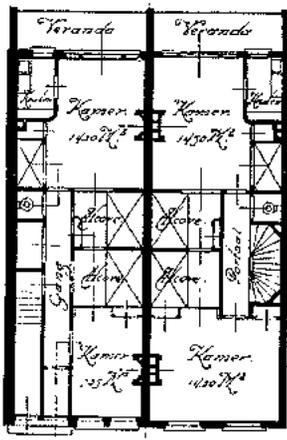


그림 17. 전형적인 알코브형 집합주택의 평면도 사래함스테르담, 19세기 로흐다레의 알코브형은 이중 알코브형 취침공간(double skoolof)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암스테르담의 알코브형보다 공간적으로 잘 배려되어 있다. 한 세대는 전 후면이 외부로 향하여 있다. 한쪽은 도로에 면하고 다른 한쪽은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단을 향하여 있다. 이러한 양쪽 시선 확보에도 불구하고 알코브형 취침공간은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비판하는 입장보다는 위생적인 주거에 대한 확신의 결과였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장래 신축물주의 집합주택 형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게 꿈을 꾸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 안에서 집은 언제나 커다란 요람이다. (생략) 그러나 백일몽 그 자체는 제한되고 단순하며 집에 갇혀 있는 듯한 공간에 대한 희미한 회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따뜻한 위안을 주고, 그리고 넓히려고 하지 않지만 소유하려는 욕구를 극복하려는 공간에 있어서의 경험인 것이다. (생략) 등우리에서 무엇보다도 조개껍질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의 첫 번째 이미지, 다시 말하면 우리들 내면에서 원시성을 끌어내는 이미지로서 그 특징을 나타내고자 한다. 인간을 '구석으로 밀어넣는(withdraw into his corner)'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육체적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³⁴⁾

32) Cooperative Bouwvereniging Rochdale, Rochdale 50 Jaar, (Amsterdam, 1953), p. 33.
33) Edith Elmer Wood, Recent Housing in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Forum, 38, No. 4.(1923), p. 173. 34) Gaston Bachelard, The Poetics of Space(1958), 영어판(Boston, 1964).

강 성 익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ang Sung-ik

초원의 나라 몽골

Mongolia, Nation of Grassland

7월 11일

한·몽 건축사단체 상호간에 우의증진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해는 몽골건축사협회에서 서울을 방문하고 다음해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몽골(Mongolia)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협회가 몽골을 방문하는 해가되어 본 협회 이세훈 회장과 이사인 강성익, 김선양, 안태경, 이길웅 건축사와 김영덕 서울건축사회장, 박신욱 부산회장, 정응규 경남회장, 정부교 강원회장, 본협회 국제위원인 정재욱 단국대교수 등과 함께 모두 10명의 단원이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일행 모두가 몽골은 초행이었고 여행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막연히 인구는 약 250만 명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약 7.4배이며 우리나라와는 1990년에 수교를 맺었다는 정도. 그리고 방문지의 기온이 12~35°C인 시락기후로서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긴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초보적 상식정도만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웬지 모를 막연한 동경심과 우리 조상이 몽골계통이라는 생각에 따뜻한 친숙함이 느껴졌다. 게다가 2년 전에 몽골에 다녀온 선배건축사로부터 음식이 신통치 않으므로 컵라면과 고추장 같은 밑반찬을 필수 준비해 가라는 충고를 착실히 이행했고 거기에 약간의 상비약도 준비하여 든든한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길을 떠나는 것은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한번도 가지 못한 낯선 길이라면 더욱 그렇고, 먼 길이라도 되면 기대감도 한층 부풀기 마련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몽골항공 OM302편 항공기는 3시간30분만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Ulanbator)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몽골건축사협회 바트비아르 부회장과 얼지히씩 사무국장, 국제담당 직원 바투야,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쳐 한국어를 잘 하는 바이아르 건축사와 이세훈 회장을 위한 여동역사 등 많은 인사가 마중 나왔다.

울란바토르 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곧바로 호텔식당에서 환영 만찬이 시작 되었다. 바트비아르 부회장의 환영사와 몽골 측의 참석자 소개가 있었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외에도 미지수렌 시 도시국장, 도시국의 바틀드 박사, 아이디얼 그룹의 람자브 사장 과 바트비아 건축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이세훈회장의 초청에 대한 감사와 양국간에 더욱 유대가 공고히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우리일행을 소개하였다.

현재 몽골에는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가 약 300명 정도가 있으며,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이 3~4개 정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2~3년 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비는 18만원~25만원/㎡ 정도

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식사 후 울란바토르시가 내려다보이는 러시아 군인의 2차대전 참전 기념탑이 서있는 언덕에 올라갔다. 이탑을 디자인한 건축가가 몽골건축사협회 얼찌히씩 사무국장인데, 항상 검정양복에 가슴에는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 시간은 이미 저녁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밖은 흰하였고 이제야 서서히 하늘의 노을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 검정색 지프차가 우리일행이 있는 곳에 서더니 몽골건축사협회 쉐막 회장과 이세훈 회장이 함께 내렸다. 나담축제 행사관계로 대통령 궁을 함께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일행과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 하였다.

언덕에서 내려다보이는 울란바토르 시는 고층빌딩이 별로 없어 더욱 높이 보이는 굴뚝이 지리한 열병합발전소 등 몇 군데 눈에 띄고, 시내에 작은 강이 흐르고 있어 넓은 벌판에 자리 잡은 작은 중소도시 같은 느낌이 었다.

7월 12일

나담 축제는 몽골 최대의 명절로서, 몽골 사람들은 나담 축제를 거국적인 축제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행사를 하며 보내는데,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어디서나 치러지나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성대하

게 치러진다. 그중에 활쏘기, 말 타기, 씨름 등 3종 경기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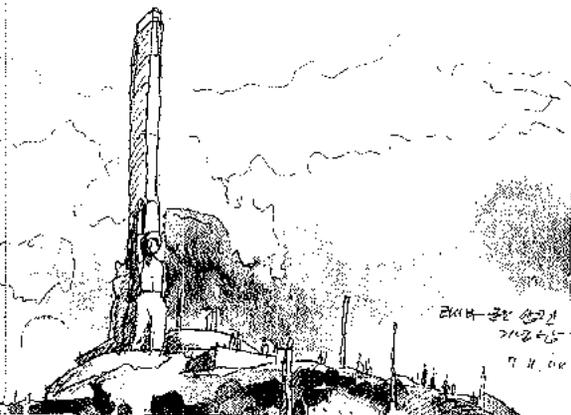
다음날 우리일행은 나담축제의 하나인 경마대회를 하는 곳으로 갔다. 드넓은 초원에서 달리는 말 경주를 보기위해 수천대의 차량이 마치 경주라도 하듯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 온천차가 다 초원뿐인 이유로 주차장이 따로 없고 도로가 따로 없으며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총 400마리의 말이 경주를 하는데 방법은 이렇다.

말 타기는 남녀 구별이 없고 말의 나이에 따라 주행거리가 다른데, 두 살배기 말은 15km이고, 세 살배기는 20km, 네 살배기는 25km이다. 다섯 살배기와 씨말은 28km이고, 6살 이상의 말은 30km를 달린다. 가수는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로 참여하는데, 이날도 10살짜리 어린이가 우승을 하였다.

우리가 신토불이를 외치는 것처럼 그들은 말에 대해 인마동체임을 꺼리지 않는다. 그만큼 말과 함께 생활하고, 말과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했기 때문이다. 유목제국을 세웠던 기반도 말이었고, 전 세계를 정복하여 지구촌을 이룩했던 것도 말 때문이었다. 말에서 태어나고 말에서 죽었던 몽골인은 가히 마상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1935년에 세운 라마교 사원인 간단사원에 잠시 들렀다. 사원 안에는 높이 25.6m의 거대한 부처상이 있었는데, 이곳 몽골인 중 94%가 라마교이며 6%정도가 이슬람교란다.

오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전통 씨름경기를 관람하였다. 몽골의 씨름은 '버흐'라고 하



러시아 군인 참전기념탑



경마장에서 기념촬영



몽골 전통가옥 '겔' 앞에서

는데 우리나라 씨름과 다른 점은 손이나 무릎뿐 아니라 팔꿈치, 어깨 등이 지면에 닿아도 지게 된다. 또 일인 심판제가 아니고 여러 명의 심판이 있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벌어진다. 어깨에는 상대방이 잡을 수 있는 화려한 무늬의 조덕이라는 조끼를 입고, 하의는 김상무늬의 반바지를 입고 구달을 신는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는 모자를 쓰지만 경기에 임하면 심판에게 맡긴다. 승부가 결정 되면 승자는 심판으로부터 모자를 받아 쓰고, 패자는 조덕의 끈을 풀고 승자가 벌리는 팔 밑을 한 바퀴 돌고 복종의 뜻을 표한다. 반면 승자는 매와 같은 춤을 추며 중앙의 기를 오른쪽으로 한바퀴 돌고 승리의 포즈를 취한다. 험난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진 몽골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군사들의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상무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이 아닐 수 없는 듯하다.

씨름경기장을 뒤로하고 투멘에호 민속공연장으로 향했다. 공연장 바로 옆의 전통 '겔' 모양의 귀반실 같은 방에 전통음식과 말주를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준 몽골건축사회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공연장의 맨 앞좌석을 우리 일행을 위하여 예약석으로 남겨두어 민속공연을 가까이서 자세히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여러 가지 전통춤과 특이한 목소리로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있었으나 특히 머린호르라는 두 줄로 된 현악기가 가장 으뜸이었다. 할머니 조각장식을 달았다 해서 마두금이라고도 부른다. 몽골에서 말은 마치 농경문화에서의 옹과 같은 의미를 지닌 동물이다. 마두금의 현은 말갈기로 만들었고, 활로 쳐서 소리를 낸다. 매우 애잔한 소리와 함께 경쾌한 소리까지 낼 수 있는 몽골 음악의 기본악기라 한다.

저녁식사는 한식과 중식, 그리고 생선회까지 메뉴가 다양한 서울클럽이라는 한식당에서 했다. 이 식당의 사장은 한국 사람인데 이외에 스포츠 센터도 운영하고 주택사업까지 한다니 우리 한국사람, 세계 어디에서나 열심히 사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3일

오늘은 울란바토르에서 약 380km 떨어진 몽골의 옛 수도인 카라코람으로 가는 날이다.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카라코람으로 가는 길목에 잠시 차를 멈추고 드넓은 초원에 실례를 하는 일은 다반사다. 사람이 없는 방향을 향해서서 천연스럽게 불일을 봐야 한다. 그럴 때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아기풀'의 향기가 초원을 덮고 일어나 이방인의 코를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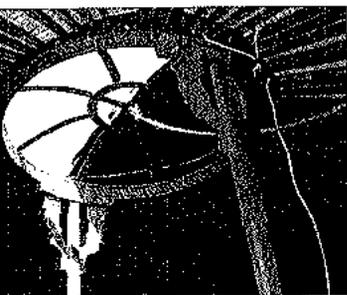
이름도 곱디고운 '아기풀'은 양들이 무척 좋아하는데, 먼지로 무더진 방문객의 후각으로도 가히 초원의 대명사라 여길 만큼 진한 향내를 풍긴다.

버스로 8시간, 지프차로 6시간정도 걸린다는 그 카라코람은 저만치 보이는 산허리조차 가도 가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지루하게 멀었다. 너무 한그루 보지 못한 채 앞으로 8시간 동안 끊임없이 초원만을 달려간다고 생각하니, 창 밖으로 기쁘게 보이는 양 떼와 말들 그리고 이동식 주택인 '겔'조차도 단순히 초원위에 얹혀있는 것 같이 심드렁하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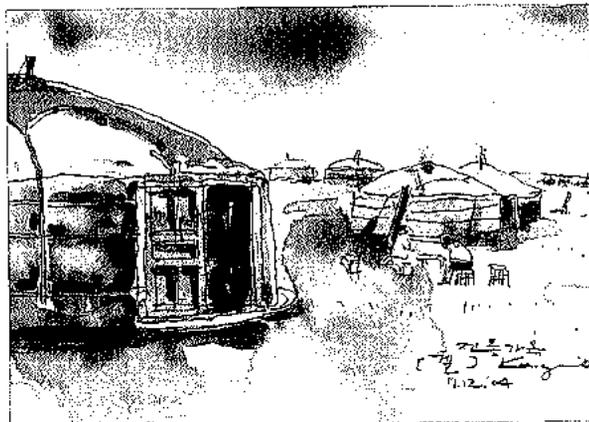
카라코람은 몽골이 원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수도로 사용하던 성이다. '검은 자갈밭'이라는 이름이 말하듯 비옥한 평원으로 오르릉 강이 흘러 농사짓기에도 안성맞춤이며, 돌궐족의 수도 역시 이곳이었다. 일부에서는 몽골도 현재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자는 논의를 일부에서 하고 있다한다.

끝없는 이동을 일삼던 유목민이 만든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만 한데 정작 카라코람에는 '카라코람'이 없다. 사방 400m에 잇대어 있는 108개의 스투파가 우리를 맞을 따름이다. 이름이 '에르덴 조'라고 한다.

본디의 카라코람은 1220년대 몽골제국의 입타이 싸인칸에 의해 사방 4km로 건설되



*겔의 내부전경



전통가옥 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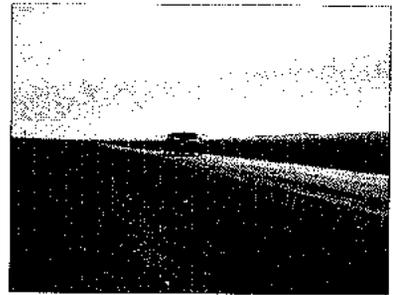
간단사원



씨름경기 장면



전통민요와 어린소년 연주



끝이 안보이는 초원

어 세계국가의 중심지로 번창함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힘없는 유목민은 파괴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원이 초원으로 철수하고 1380년경 명의 개입과 몽골족의 자중지란으로 카라코람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586년 에르덴 조가 카라코람의 폐허위에 세워졌다. 라사에 있는 티베트의 건축양식을 본떠 정 방향 성벽을 에워싸고 그 안에다가 파괴된 자재들을 모아서 사원을 세워 당대 몽골 라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오늘의 숙소는 여행자 캠프인 '갈'이다. 유목민의 이동에 편리한 천막으로 덮은 조립식 집이다. '갈'은 접을 수 있는 격자 벽과 서까래와 기둥, 그리고 천창과 문틀을 조립 결합하여 펠트와 천을 덮고 로프로 동여매어 만든다. 우리는 유목민의 생활을 일부 체험하게 되었다.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우리는 모두 승마를 하기로 하였다. 대부분 처음 타보는 말이었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시간이 허

락하면 계속해서 타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저녁식사 후에는 냇가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곳 전통방식의 양고기 훈제고기를 뜯어먹었다. 이곳의 저녁하늘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자리,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듯하다. 우리가 어릴 적 한 여름밤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나 보았던 그것이 아니던가. 북극성, 그 옆에 북두칠성, 안드로메다, 또 카시오페아, 큰곰, 작은곰. 별자리 이름이 맞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과학책에 나온 별자리는 다 보이는 것 같다. 어느덧 노래 블레멘타인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몽골 건축사 팀과 우리 팀의 합창대결이 벌어지고, 몽골 보드카를 주고받으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 시간되었다.

7월 14일

공기는 맑으며 하늘은 푸르다. 또 온 대지마저 푸른 한적한 이 시골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아침식사는 양고기 스프와 준비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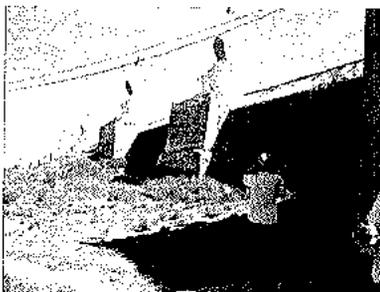
컵라면으로 간단히 때우고는 다시 울람바토르를 향해 출발하였다.

시야는 푸르고 광활한 초원이었지만 도로는 엉망이어서 앞으로 8~9시간동안의 험한 거리를 차안에서 이겨내야 할 판이다.

몽골 여행 중에 우리는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일종의 제단 같은 것을 가끔 볼 수 있었다. 바로 '어위'라고 하는 것인데, 어위 꼭대기에는 나무를 꽂아 하둑을 걸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형태나 기능의 유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낭당과 비슷하다. 이곳 사람들은 어위를 중심으로 세 바퀴를 도는데 왜 세 바퀴를 도는가 물으니 "조상들이 해 온 관습대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정도의 짧은 설명뿐이다.

간단사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스투파를 참배하고 있는 신자들을 볼 때에도 그들은 오른손으로 벽을 만지면서 빙빙 돌았는데 검은 손자국이 벽에 역력히 남아 있었다. 인간은 왜, 빙빙 돌면서 현실을 무화시키려하는 것일까.

몽골에도 산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나



에르덴조



리미고 사원



티베트식 탑 "스투파"

무 한그루도 없는 민둥산이다. 골짜기가 걸
 옷을 벗은 여인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드러나
 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가운데가 살포시 들어간 모습인
 데 이를테면 여근곡 같은 곳이다. 우리일행
 을 안내하는 바트바이르 부회장이 열심히 설
 명하자 이를 통역하는 바이아르 건축사가 머
 뭇거리며 난처해한다. 상황이 재미가 있어
 귀엣말을 나누며 지나는데, 근처에 철재 울
 타리에 싸여있는 석물이 여근곡을 향해있는
 것이 보인다. 인조로 깎은 남근석이다.

17세기 후반쯤인가, 예르덴 조의 젊은 승
 려들이 수도에 전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그 원인을 찾던 노승은 절 앞 남쪽에 있는
 여인형상을 지닌 산세 때문이라고 판단, 남
 근석을 깎아 산 쪽을 바라보게끔 놓았다. 그
 뒤부터 승려들의 음행이 사라졌다고 한다.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 여근곡 들머리에 노점
 상도 늘어나 손님을 곤다. 어디서 가져왔는
 지 골통품도 체법 늘어놓았고 가만히 보니
 그 속에 가짜도 슬쩍 섞어 놓은 것 같다.

올림비트르에 돌아오자 정장을 하고 몽골
 건축사협회로 향했다. 정재욱 국제위원의 발
 표회가 있는 시간이다. 준비해간 서울의 '청
 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슬라이드 쇼에 걸들인
 강의였다. 몽골의 건축·도시 관련 인사들이
 50여명 기량이 경청하였다. 시간정도의 유
 창한 영어로 강의하였고 바이아르가 몽골어



여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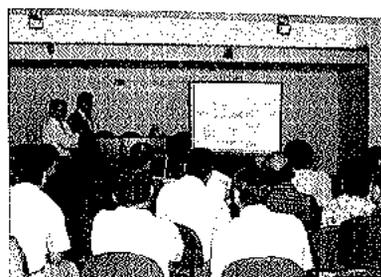
로 통역을 하였으며 매우 진지하고 관심이 많
 은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의 노고가
 있었을 것이다. 훌륭하게 강의를 마친 정교
 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서서히 여행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
 왔다. 저녁만찬 시간에는 서울에서 준비해간
 우리협회 안내책자와 지난번 몽골건축사회
 에서 서울 방문 시에 찍은 사진 앨범과 액자,
 그리고 약소한 선물 전달식이 있었다. 몽골
 건축사회에서도 우리 일행에게 기념품을, 그
 리고 우리 협회에는 몽골 전통악기인 마린호
 르(마두름)를 기증하며 석별의 정을 함께 나
 누는 시간이 이어갔다.

몽골건축사회원들과 아쉬운 시간을 보내
 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우리 이세훈
 회장님의 인터뷰 요청이 왔다. 몽골의
 TV9라는 공중파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방
 문해 30여분간의 녹화가 진행되었다. 주 내
 용은 한국의 건축사협회에서 몽골을 방문하
 게 된 동기와 몽골에 대해 느낀 소감, 몽골건
 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장래의 전망, 그리고
 한국건축과 몽골건축과의 차이점 등등에 대
 하여 대답이 있었다.

4박 5일간의 몽골 방문기간 내내 하나에
 서 열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함께 생활해준
 몽골 건축사협회의 바트바이르 부회장을 비
 롯한 10여명의 건축사와 직원들에게 형제의
 정을 흠뻑 느꼈으며,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
 다 시시콜콜히 물었지만 한번도 귀찮아하지
 않았던 바이아르 건축사와 협회국제담당 바
 투야양, 미지수렌 도시국장, 바트비아 건축사



정재욱 교수의 강의모습

를 가슴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분들
 로 기억하련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 그들
 과 같은 후예이다.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장대한 이동을 했던 유목민들을 떠올
 리며, 징기스칸이 밤하늘의 별과 함께 초원
 위를 달렸듯이 인류는 변화하는 문명 속에
 서, 컴퓨터의 깜빡이는 커서 안에서 한없는
 질주를 하리라.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세상 밖
 으로 뛰쳐나가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꿈꾸는
 미래를 갈망할 때 세상을 주도하는 무한 지
 평이 펼쳐질 것이다. **끝**



이세훈 회장의 몽골TV9와의 인터뷰 장면

박 현 식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 부설연구소장
by Park Heon - Sik

방재계획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Why Is Fire Protection Planning Necessary?

머리말

건축을 설계할 때 우리는 우선 용도에 맞는 기능성과 주위여건에 맞는 미관성, 환경성,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건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전 분야는 법규적용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소방분야는 소방관계법 중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에 대해 설계를 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대부분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화구조·방화구획·보행거리·피난계단·통로·건축배연 등 건축의 구조적인 피난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손실예방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려면 화재 하중과 수용인원, 그리고 건물용도 등을 고려한 연소확대방지, 피난안전성, 초기진압, 유지관리 등의 종합방재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을 위한 방재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련시설을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행재(건축주), 시공자, 관리자, 보험회사, 관련 행정기관 모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어느 건물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연기 및 열에 의해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떠한 행

등을 하게 될까? 피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도 피난의 준비가 되지 않아 패닉 현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소방대 구조반에게 반 식물인간이 되어 구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방화구획이 잘되어 화재를 차단하고 충분한 피난용량과 신속하고 정확히 훈련된 안내자로 인하여 생명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무한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설계한 건물,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또는 내가 소유한 건물이 그러한 화재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그 죄책감은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우려를 방재계획서는 공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여 화재에 준비된 건물로 거듭나도록 기여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손실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인명피해가 6.1%, 재산피해는 18%로 조사되어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명피해

구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계	1,879	2,219	2,223	2,195	2,284	2,370	2,384	2,376	2,235	2,833	5.2%
사망	555	571	589	564	505	545	531	516	491	744	3.7%
부상	1,324	1,648	1,634	1,631	1,779	1,825	1,853	1,860	1,744	2,089	6.1%

■재산피해

구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피해액 (백만원)	132,624	100,745	113,148	121,712	159,721	166,426	151,972	169,750	143,447	151,590	18.0%

* 등 피해액은 같거나 상각한 금액으로 실제 보상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3. 02. 18 대구 중구 중앙로역 「지하전동차」 방화로 인하여 192명 사망, 부상 148명 재산은 4,768,845천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방재계획의 정의

방재계획은 단순히 방재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만이 아닌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계획으로서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인접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재시의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방재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재계획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규, 관련부처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 관청인 구청 및 소방서에서는 각각 분야별로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건축을 자체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으므로 방재계획을 통하여 건축적 요소 및 설비적 요소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화재

에 대해서는 → 소유자에게 관심을 주게 되므로 분양의 홍보효과가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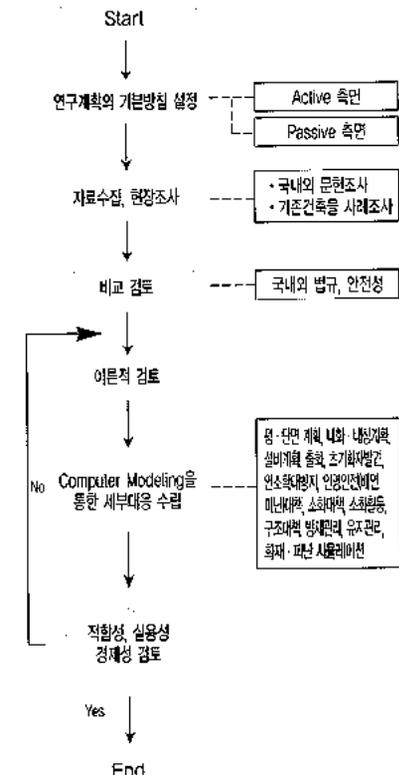
• 인허가 관청에서는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증명하여주므로 화재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성이 있어 인허가시 자료로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건축 심의시 또는 관련 소방서에서 건축 동의시 필요에 의해 방재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물소유자나 설계자도 경제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방재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방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규 모
일반건축물	- 높이 31m 초과 전채 - 높이 31m 이하는 대규모 복합용도인 경우
여관, 호텔	- 5층 이상의 건축물 -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지층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특수한 경우 또는 제외(행정지도 하에 저층 등 협의)

방재계획 수행 FLOW



시 인명피해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 분양이 되는 초고층 APT 등 오피스텔

방재계획의 주요내용

방재계획서의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제어 요소 등으로부터 건물유지관리까지 법규검토와 유사건물의 화재사례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당해건물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근거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 화재발생 요소제한 - 건축물 내장재 제한
- 연소 확대 방지대책 - 방화구획 대책 등
- 건물구조의 내화
- 소방시설의 적정성
- 피난의 안전성 - 보행거리, 피난용량, 수용인원에 따른 피난가능성
- 소방차 진입
- 유지관리
- 기타

상기 내용에 대해

- 화재 Simulation에 의거 제연용량의 적정화, 내화구조 등급설정, 피난 허용 시간 산정
- 피난 Simulation에 의거 피난 소요시간, 피난 시 문제점 파악, 소방시설 동작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

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현상파악 등을 분석하여 적정 방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맺음말

건축설계자가 방재계획을 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도 인허가 등 어려움으로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보면 첫째, 방재에 관한 안전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 다음 둘째, 건축설계 시 방재분야에 대해 모든 컨설팅이 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Tun Key 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에 안전에 대한 차별화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넷째, 심의 및 건축 동의 시 관계자에게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방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용역금액이 추가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제기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설계할 때는 필히 방재계획이 심의 및 인허가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에 준비하는 것이 건축설계자의 몫은 판단이라 사료된다. 그 이유는 관계 소방서에서 또는 심의위원이 방재계획을 인정하고 있어 건축동의 시 또는 심의 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건축설계를 하려면 방재계획이 포함된 건축설계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 고자 한다. ㉞

■ 방재계획 사례

용도	중요건물	중점사항
관광집회시설	- 인천국제공항 - 고속철도역사 (부산, 동대구, 대전) - 교양국제전시장 - MBC 일선제작센터 외 23건	
업무통신시설	- 포스코 센터 - COEX - 인천국제공항 업무지역 (B3, B5) - 삼성전자통신연구소 비상대책 외 18건	
의료·교육시설	건국대 병원 외 2건	
숙박·거주시설	- 타워팰리스 1, III - 잠실한화 주거복합 - 아크로비스타 - 삼성노블카운터 비상대책 - 용신세계일보사 외 18건	
판매·복합용도	- 부산 제2롯데월드 - ASEM 및 무역센터 - 인천국제공항 상업용 시설 외 15건	

협회소식_ kira news

제10회 이사회

2004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8월 17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관건립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과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전통건축자료집 발간계획안, 책임연구원 임용 및 협회 홍보영상물 제작계획안 등이 논의 되었으며, 이밖에도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대책 협의,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협의,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의 위상 제고에 관한 내용이 기타사항으로 협의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관건립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 규정안 승인의 건
- 회관건립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 함.
-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수정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정회원 회비를 5년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을 2004년 8월 18일자로 제명기로 하고, 제명된

자의 미납회비는 결손처분하기로 함.

- 제명된 자의 미납회비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함(제명자 명단 125쪽 참조).
- 제3호의안 : 전통건축자료집 발간계획안 승인의 건
- 전통건축자료집을 「민간건축 상·하권」 이
름으로 발간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책임연구원 임용 승인의 건
- 책임연구원(윤혜경, 1970년생)을 임용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협회 홍보영상물 제작계획안 승
인의 건
- 협회의 역사, 건축사업무활동, 협회의 비전 등
을 내용으로 10분 내외 분량의 협회 홍보영상
물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
른 대책 협의
-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대책으로
임시총회의 개최여부와 소집요건 및 절차, 법
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함.
- 제2호의안 :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
한 협의
- 2004 전국건축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
도록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 제3호의안 :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의 위상 제
고에 관한 협의
-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회의 정회원임을 확인하는 방
안을 검토하기로 함(예 : 건축사협회의 정회원
임을 명함에 표기, 건축사협회의 정회원임을
확인하는 표지판을 건축사사무소에 부착 등)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및 장소

• 개최일자 : 2004년 10월 7일(목)

• 장소 : 올림픽 역도경기장 (올림픽 파크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4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고될 예정

우리협회 세무·회계정보 운용

우리협회는 세무·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세무 정보: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규, 국세 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상담 사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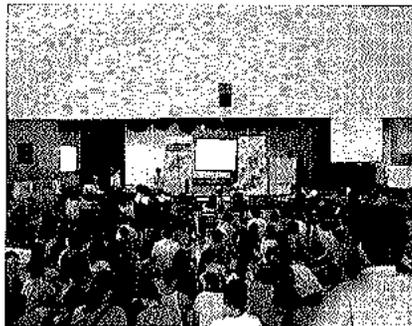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 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신내용을 통보해준다.

건축계소식 archi-net

sa2004 여름워크숍 전시회 개최

'city in transition : 목표'

- 장소: 서울 동송동 롯데박물관 3층
- 기간: 2004. 8. 23.(월)~2004. 8. 30.(월) 10~19시



지난 6월 6일 목포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었던 크리틱 모습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9월 30일 접수마감

2004한국목조건축대전이 목조건축물부문 및 목조 옥외시설물부문(2004. 8. 20.이전 준공작), 계획건축물(미발표 창작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사)목재문화포럼,

산림청 02-2006-6213

www.woodforum.or.kr

제9회 건축사진 전시회

건축에 대한 이해와 친근한 접근 유도

한국건축가협회는 일반인들이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체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미발표 건축 관련 사진을 대상으로 '제9회

건축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건축사 혹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품이 가능한 이 건축사진 전시회는, 인테리어 및 조경사진을 포함한 국내외의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축 관련 사진을 출품하면 된다.

작품은 16"×20" 규격의 흑백 및 컬러로 인화하여 7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상작에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심사위원은 공순구, 박승, 염승훈, 장석철, 황일인씨이며, 심사결과는 10월 22일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http://www.kia.or.kr>



낙동강 에코센터 설계 공모 심사발표

韓·日 공동작 '압축된 목재' 당선작 선정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낙동강 에코센터 설계 공모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1등 당선작에는 일본의 아수히로 아타시타와 조 코, 앤드 카주히로가, 한국은 김남길, 황기태가 공동 작업한 '압축된 목재(Prestressed Wood)'가 선정되었다.

선정작은 대지 위로 들어올린 주전시징인 메인 데크가 햇살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래에 있는 자연지형의 원형 그대로 보존해 늪지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조만을 이용한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작품이며 궁극적으로 습지를 잘 보존하려는 노력을 통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정에 주요했으며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을속

2004 건축자격시험

- 일 시: 9월 12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장 소: 8월 25일 본협회와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예정

도의 자연환경에는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부산국제건축공모전에는 전 세계 972개 팀이 신청을 접수하고, 40개국 298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를 심사위원장 그레고리 버지스를 비롯해 김종성, 김준성, 리스엔 쿠투어, 엘레니 기간테스, 자오밍 리우 등 6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모두 4차에 걸쳐 심사되어 1등에서 3등까지 각 1작품과 장려상 3작품으로 총 6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심사위원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충족시키는 작품, 대지에 대한 해석과 기능적인 해결책과 그에 대한 창의성 유무, 생태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 정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심사위원장인 그레고리 버지스는 "낙동강 하구의 섬 위의, 개발 중인 생태공원 사이에 위치한 철새도래지로의 섬세한 대지와 대립과 공존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었고, 이 특별한 장소에 반응하는 새로운 건물의 매력적인 대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엄청난 매리트가 되었다. 이에 전 세계 40여개국의 298개의 기록적인 참가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탐구한 많은 흥미로운 제안들과 국제공모전에 준하는 수준높은 작품들로 심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작품들만 프로그램과 대지의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은 이해에 기초한 근본적인 개념에 충실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심사에 대해 밝혔다.

낙동강 에코센터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1212번지에 1천여 평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총 13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문의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051-888-4760

제5기 한옥건축 전문인과정 수강생 모집

인간 배려와 자연 조화로 21C 한옥형성 주역 양성

한옥문화원에서는 제5기 한옥건축 전문인과정 수강생 모집을 모집한다.

그간 한옥문화원은 한옥 조영 법식과 기법을 통한 공술의 예술성 및 한옥에 담긴 문화에 학문적으로 접근 함으로써 한옥의 의도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여 인간을 배려하며 자연과 조

화하는 21세기 한옥형성에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해왔다.

이번 제5기 한옥건축 전문과정은 30명을 정원으로 하여 총 2년간 4학기 동안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법식과 기법은 최고의 장인들이 담당하며, 이론 역시 분야별 전공 교수들이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수,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현장강의나 실습은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기는 한옥의 개념과 유형, 한옥의 기초지식 구축에 대하여, 2학기는 한옥의 역사, 건축 기법 이해를 위한 한옥 축소 모형 제작 실습이, 3학기는 한옥의 영조법식(營造法式) 탐구, 마지막으로 4학기는 실측을 통한 건축의 기록, 건축의장, 건축실례에 따른 경형축적 등을 통하여 자유·기술·설계·시공인으로서 자질함양에 대해 교육한다.

문의 : 한옥문화원 02-741-7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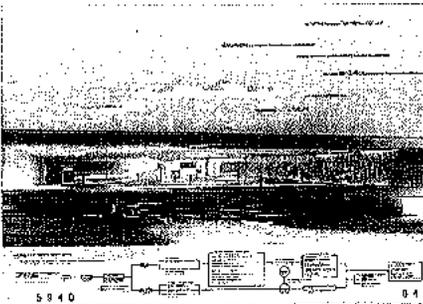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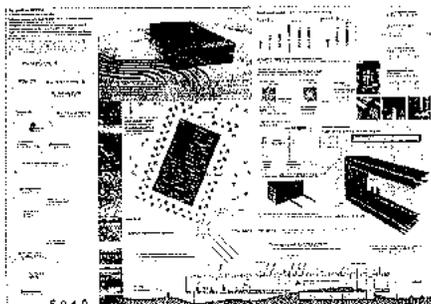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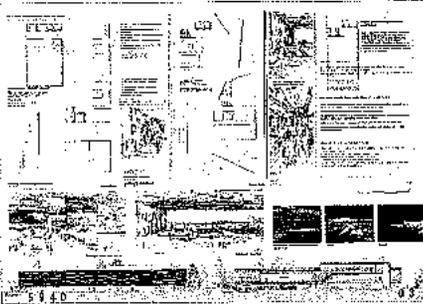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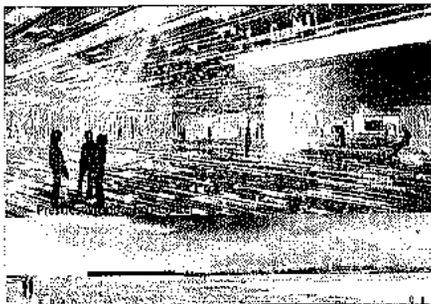
<http://www.hanok.org>

제10회 2004 포스코 강구조 작품상 심사 발표

최초·최대의 2층 도로전용 해상교량, 부산 '광안대교' 영예

1994년 처음 시작된 한국강구조학회의 '포스코 강구조 작품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며 강구조 기술의 창의력 배양과 고성능 강 이용기술의 향상을 통해 '강구조 건설기술의 고도화'라는 목표를 착실히 이행해가고 있는 내실 있는 행사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2004 포스코 강구조 작품상'에는 총 29점의 강구조물이 출품되어 경합을 벌인 바 명예의 금상은 (주)서영기술단에서 구조와 설계를 담당하고 (주)삼한기업이 시공한 부산의 '광안대교'가 차지했다. 이밖에 은상에는 '포스틸 타워'와 '수원민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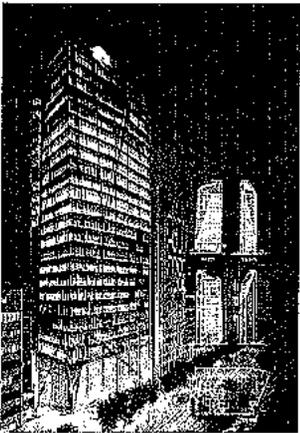
에코센터 당선작 / 임축원 목재

사'가, 동상에는 '타워팰리스II' '가양대교', '목동하이퍼리온', '포항공항'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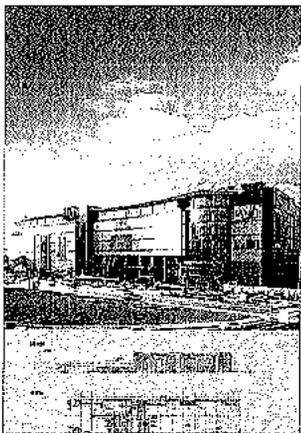
금상을 수상한 광안대교는 수영로 및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간 교통을 원활히 하고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난 완화와 해상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계획된 작품이다. 입체적 공간 구성에 역점을 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는 현수



금상 / 광안대교



은상 / 포스틸 타워



은상 / 수원 민지 역사

교로서 해저지형 조건과 광안리 해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주 경관을 광안리 해변의 중앙부와 일치하도록 계획하였다.

광안대교는 총 연장 7,420m, 폭 18~24m 규모로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2층 도로전용 해상 교량으로서 강교량 설계와 건설기술면에서 기념비적인 강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다.

은상 수상작인 '포스틸 타워'는 고층의 큰 매스를 조형적으로 접근하여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건물이다. 기업 이미지인 투명성을 건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외부 형태는 철의 이미지를 건물 전반적인 느낌에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수원민지역사'는 전철역과 백화점, 영화관의 복합건물로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철골조 건물로서 산공법인 트래블링 공법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열차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공한 것이 특징이다.

강구조 작품상은 보다 많은 작품들의 출품을 유도하고자 2002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2004년 포스코 강구조 작품상 수상작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8일간 포스코센터에서 전시되었으며, 이들 내용은 화보집으로 제작되어 강구조물 건설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된다고 한다.

문의 : 한국강구조학회 02-400-7101

2004 성균 건축전

졸업전시회 및 제2회동문전시회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가 주최하는 '제2회 졸업전시회와 동문전시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지하 광화문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 건축전은 교수와 학생들이 그 동안 함께 나누었던 고민을 관람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주최 측의 바람으로 기획되어, 건축과 도시 그리고 사회문제, 디지털과 관

련된 주제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졸업 작품 스튜디오는 3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전시기획에 있어서도 각 스튜디오별 특성이 들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축 작품전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시도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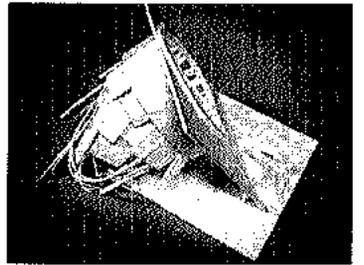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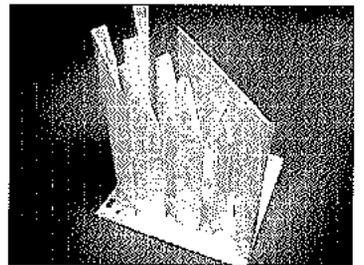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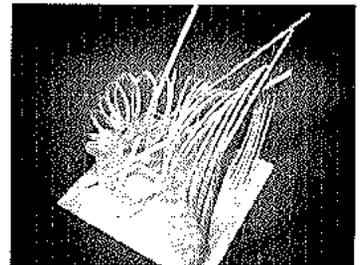
문의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031-290-7550, <http://arch.skku.ac.kr>

국민대학교 제2회 전국 고등학생 건축 디자인캠프 개최

우수 학생 발굴 큰 성과, 규모 확대 할 것

국민대학교 건축대학이 주최하는 '제2회 전



국 고등학생 건축디자인 캠프(아키캠프)가 지난 7월 25일과 8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국민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이 캠프에 참가한 18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바람과 빛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주제를 3차원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며 건축디자인에 대한 각자의 관심과 기량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평택여고의 김민영 학생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 밖에 부천북고의 김수진, 경북예술고의 우미숙, 보성고의 안동찬 등 3명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총 23명의 학생들이 입선하였다. 아울러 우수상 이상의 입상자들에게는 국민대학교 건축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정재철 학장은 "고등학생 수준으로서는 벅차다고 생각되는 상당히 추상적인 주제가 출제되었음에도 고등학생들의 작품 수준은 기대 밖으로 뛰어나 건축적 내용이 만만치 않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하며, 국민대학교 건축대학은 이 캠프가 건축디자인 특성을 소지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이 캠프를 지속하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문의 :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02-910-4590

제5회 건축도시 사진전

일반인 대상, 도시의 다양한 모습 담아야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에서는 부산의 문화 개혁과 타 예술 분야 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부산예술제2004」축제의 일환으로 제5회 건축도시 사진전을 개최한다.

올 해로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2004건축도시 사진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으로서 현대인의 삶이 녹아있는 도시를 오버제로 하여 만들어지는 한 컷의 사진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그 모습에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도시의 또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창조, 건축과 삶이 어우러진 도시 속의 다

양한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마련한 사진전이다

- 참가접수 및 제출기한 : 2004년 8월 16일(월)~9월 23일(목)
- 출품자격 : 제한 없음
- 작품규격 : 11"×14"(일반사진 & 디지털 사진) / 제출 시 샘플(5"×7") 등봉
- 접수비 : 10,000원 (1인 3작 이내)
- 시상 : 대상 1점 : 50만원, 최우수 2점 : 30만원, 우수 3점 : 20만원, 특선 5점, 장려 10점, 입선 다수
- 심사발표일 : 2004년 10월 4일(월)
- 응모방법 :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kiabb.org>)에서 다운 받아서 접수시 제출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9월 23일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부산시 수영구 망미동832 강남빌딩 7층
TEL : 0502-555-4455 / FAX : 051-755-5070
- 전시장소 :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2F
- 전시기간 : 2004년 10월 13일(수) - 2004년 10월 16일(토)
- 주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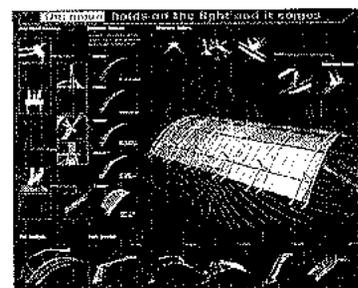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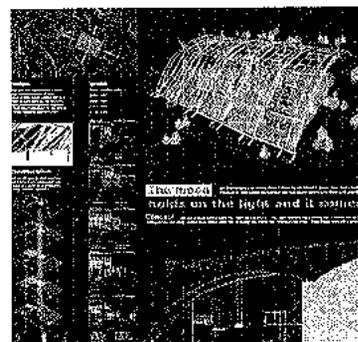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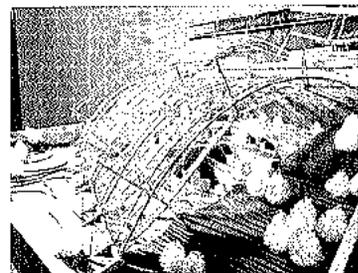


제7회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 발표

홍익대학교 팀 금상 수상

'지역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센터'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제7회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에 홍익대학교 팀 이승준, 반기훈, 박인자의 'The moon holds on the light and it comes'가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22일 한국철강협회 스틸콘스트럭션센터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실제 대지를 대상으로 삼아 근린지구의 커뮤니티 센터로서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었다고 이번 공모전을 밝히며 "금상작은 멋스러운 가옥과 갤러리들이 어우러져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88-1을 대상으로 스탠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커뮤니티센터를 디자인 했다. 'The moon holds on the light and it comes'는



금상

스탠드나 포크레인처럼 상부에서 하부를 와이어로 잡아 지지하고 있는 구조로 하부에 굵고 많은 부재를 활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개수가 적어지고 얇아지는 부재를 사용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수작'이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44개 대학 198팀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은상은 전주용, 염광호, 이신재의 인하대학교 팀의 'Steel Cloud'와 아주대학교의 서대원, 강효구, 윤주선 팀이 'The Stepping', 부경대학교의 이종훈, 김민하가 'Roof inside space that hang down', 홍익대학교의 나중우, 안창규가 '共育'라는 작품으로 수상했다. 그리고 동상은 5팀, 입선은 30팀이 선정되었으며, 입선 이상의 수상작품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포스코센터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홍익건축 50주년 기념사업

작품집과 작품전 및 다양한 행사 펼쳐져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학과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개최한다.

1954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술대학 건축미술학과로 창설되면서 엄덕문, 김수근, 정안국, 강명구, 김한섭, 김창집 교수를 필두로 윤도근, 전명현, 강건희, 김형만, 김성국 교수진을 거쳐 현재 박언근 교수 외 7명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학과를 이끌어 오고 있다. 이 교수진이 배출한 석학들은 약 4,000여명.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문회로 구성된 홍익건축 50주년 기념사업회(대회장 윤도근, 집행위원장 박 승)에서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 동안의 시간속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념 작품집 출간과 교내 영구 보존용 기념 조형물 제작 그리고 홍익건축인의 밤, 좌담회 및 해외건축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 작품전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참가를 당부한다.

기념작품전

- 기간 : 2004년 10월 1일~6일(오프닝 오후 4시)
 - 장소 : 서울 국제디자인 플라자 2층, 3층
 - 내용 : 200여 동문 작품전시, 재학생 및 졸업작품전, 영상전시/사진 역사전, 건축관련 소품전
 - 문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02-320-1106, 홍익건축 50 기념사업회 02-2192-4496
- www.hongikarchitects.org

제15회 건축사진아카데미

9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익)는 제15회 건축사진아카데미를 2004년 9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청암연구소에서 12주간 개최한다. 건축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 강좌는 건축에서 사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가지 이야기와 미래의 건축가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을 제시해 준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7시부터 이론강의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 이메일 : imfoto@hanmail.net
- 문의 : 담당자 석정민 011-9891-1740
- 전화 : 02-444-7088
- 팩스 : 02-444-7058

2004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립과 화해 - 경계로서의 건축'을 주제로

부산의 대표적 항구, 북항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가덕도신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북항의 보다 체계적인 워터프론트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안코자 북항에 대한 '2004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

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동서대 교육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은 지난해 유럽과 미주지역의 튜터와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과 달리,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워크숍은 '대립과 화해 - 경계로서의 건축'을 주제로 국내 학생 70여명과 아시아지역 학생 30여명이 참가한다. 6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건축디자인 지도와 특별강연, 건축투어 등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학생들은 3명 이내의 대학별 단일 또는 복합 디자인팀으로 편성된다. 튜터는 국내 13명, 국외 10여명으로 구성되며, 튜터 1명이 2개 팀을 지도하게 된다. 워크숍 개최에 앞서 8월 28일에는 주제발표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4일에는 대지 현장 답사를 떠난다.

- 코디네이터: 이상준(동서대), 오기환(동서대), 유재우(부산대), 이명권(해양대), 이봉두(건축사사무소 녹원), 아치미(부산·후쿠오카 교류협회), 정태복(주)부산건축
- 특별 강사: 카가 아츠키(일본 오사카대학), 이상준(동서대), 안성호(건축사사무소 시반), 이명권(해양대)
- 크리틱: 송효상(건축사, 이로제)
- 튜터 : 강대희(건축사사무소 아카인토탈), 김기수(동아대), 김희수(주)생각하는 사람들, 변계성(창원전문대), 양재혁(동의대), 우신구(부산대), 윤영식(동명정보대), 이승현(영산대), 정연근(건축사사무소 토원), 정지경(신라대), 최임주(동의대), 표용석(동서대), 홍성민(부경대); 국내 13명
- 해외 튜터: 해외 건축사 및 건축대학 교수 10여 명 현재 섭외 중.

문의 :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분과위원회
<http://biact.org/2004workshop>
051-320-1824, 016-879-1824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과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돼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 해외 건축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은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유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 당 작가의 명익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참가 신청은 10월 6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0월 8일에 공고된다. 시상식은 10월 11일 오전 11시에 배재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1점)과 우수상(4점), 특선, 입선 등 네부분으로 시상된다.

또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은 10월 5일 이전까지 사용검사 완료된 대전광역시 관내 건축물이 대상이며 여타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시상은 금상(1점)과 은상(1점), 동상(1점)으로 상패 및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 제1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 -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 042-824-9981, 제16회 대전광역시건축상 - 대전광역시 건축과 042-600-2834

2004년 동경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박람회

실내건축 관련 전문 박람회인 '2004 동경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박람회(IPEC21- 4th Interior Pro Ex Co)'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의 빅사이트 전시장(Tokyo Big Sight)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동경 실내건축 자재 및 디자인 박람회(IPEC21)는 일본 실내 건축가 협회가 주최하고, 일본 인테리어 산업 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실내건축과 연관된 자재, 소품, 신기술, 시스템 및 디자인 등이 총망라되어 전시되는 이 박람회는 일본 및 인근 아시아 지역의 바이어인

부동산 개발업체, 건설회사, 건축자재 유통업체, 실내건축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전문 박람회다.

문의 : SBA KOREA (02-708-4080, sbakorea@sba1td.com)

제4차 APEC건축사 추진위원회 개최

제4차 APEC건축사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22~23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에서 개최된다. 2001년 9월 APEC건축사 프로젝트 회의(호주 브리즈베인 개최)가 개최된 이래로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추진위원회는 제4차 APEC 건축사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될 예정이다.

'Architecture Asia' 2004년 12월호 작품 접수

- Theme : "Housing"
Population growth and its repercussions is a serious matter for any government to deal with, especially in terms of housing. This issue will survey some of the newer examples in Asia.

- 작품제출 : '04. 9. 15일까지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담당 김성엽 (sykim@kira.or.kr 02-581-5711~4)

제8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

올해 한중일건축사협의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조선웨스턴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는 지난 1997년 북경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로 매년 한중일 3국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건축제도 및 건축사자격, 상호인증 등

건축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정보공유와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은 물론 홍콩, 마카오에서도 옵저버로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약 50여명의 각 국 건축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 참가단체 : 대한민국 - 대한건축사협회
- 일본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 중국 - 전국건축사등록위원회
- 홍콩 - 홍콩건축사협회(옵저버)
- 마카오 - 마카오건축사협회(옵저버)

제22차 UIA 총회 개최

- 개최일시 : '05. 7. 3~10
- 개최장소 : 터키 이스탄불
- 대회주제 : "도시-건축물들의 시장" (Cities-Grand Bazaar of Architectures)
- 세부행사주제
 - Celebration of the World's Cities
 - Architecture And Life in Cities
 - Architecture of Cities
 -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Facing the Cities
- 주제논문 접수
 - 신청서 및 논문 개요 접수 : '04. 9. 13
 - 논문발표자 발표 : '04. 11. 15
 - 논문 접수 : '05. 2. 4
- 국제 학생 작품전
 - 신청 마감 : '04. 9. 1
 - 주 제 : "Extreme"
- 등 록

구 분	'04.12.31 이전 등록	'05.1~5.31 등록	'05.61 이후 등록
일반참가자	300 US\$	350 US\$	400 US\$
학 생	150 US\$	150 US\$	150 US\$
등반자	200 US\$	250 US\$	300 US\$

- 참고 : 2005년 UIA 이스탄불 총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uia2005istanbul.org>

CTBUH 국제 세미나

30여개국, 500여 초고층 전문가 참가

대한건축학회와 초고층 건축과 도시 건축에 관한 최고 권위의 국제단체인 CTBUH(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 'CTBUH 2004 서울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Tall Buildings in Historical Cities - Culture & Technology for Sustainable Cities'라는 주제로 약 30여개국 500여 초고층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최신 이론 및 초고층관련 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토의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대한건축학회 02-726-5558



UIA 2005 ISTANBUL 학생공모전 개최

제22회 UIA(국가건축가연맹)총회가 오는 2005년 7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행사의 하나로 UIA가 학생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 및 사항은 2004년 9월 1일 이후 UIA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 주제: "Extreme"
- Creating Space in Extreme & Extraordinary Condition
- 공모전 공고: 2004년 9월 1일
- 작품제출마감: 2005년 3월
- 심사: 2005년 5월
- 홈페이지: <http://www.uia2005istanbul.org>

건교부, 「건축서비스팀」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건축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질 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의회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건(부내 최대)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 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문의: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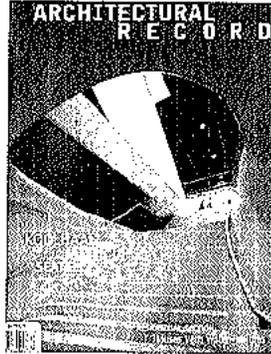
000소장을 000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7월

최근 완공된 작품으로 OMA/Rem Koolhaas의 미국 시애틀 중앙 도서관, Steven Holl의 오스트리아 Loisium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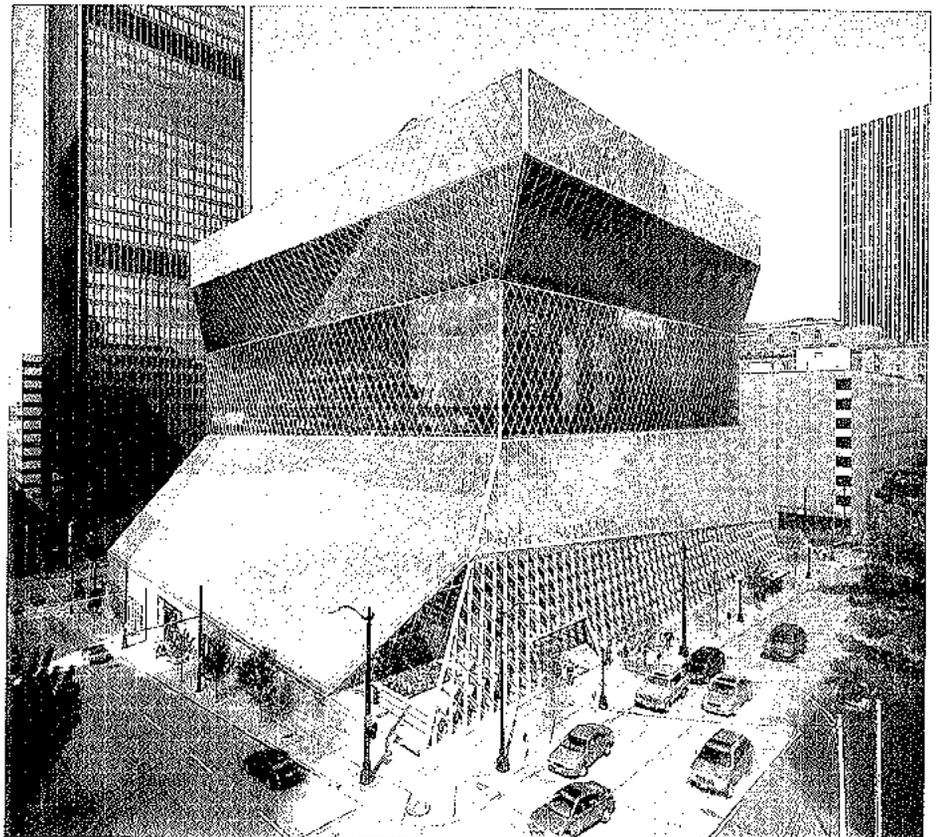


객 센터 등이 소개되어 있다. 건물타입별로 최신 사례들을 살펴보는 특집 코너에서는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새로 선보인 레스토랑 계획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택부문에서는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 분석했다. 아울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건축회관들을 비교, 설명한 코너도 게재되어 있다.

■ 근작소개

▶ OMA/Rem Koolhaas의 미국 시애틀 중앙 도서관

철재프레임과 유리로 구성된 표피가 서로 엇갈리게 돌출되어 있는 볼륨들을 덮고 있는 과격한 형태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장난처럼 인식되었지만, 사실은 자연채광을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유입시키는 등 합리적인 목적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주차장, 직원공간, 회의실, 서고, 사무실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다섯 개의 프로그램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은 향후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지만 다른 프로그램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들 사이에 어린이 공간, 거실, 믹싱 채임버, 열람실 등 4개의 열린 공간들이 들어가 있다. 5번가의 입구 부분에 이르면 외부 표피로부터 또 하나의 표면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로 인해 형성되는 아케이드가 자연스럽게 방문자들을 이끈다. (4번가의 입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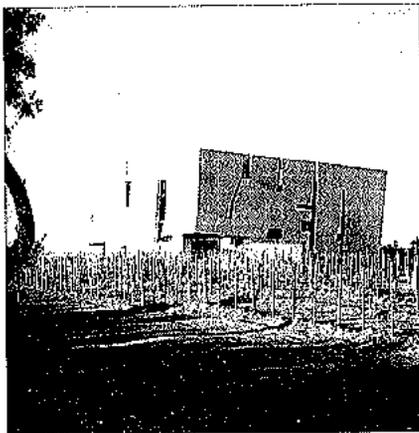


미국 시애틀 중앙도서관

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구홀은 최상층의 사무실까지 개방되어 있는 거대한 '거실'로 이어지는데, 소설 서고와 상점, 카페, 컴퓨터 검색대 등이 위치한 이 곳은 이 건물의 공공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4층의 회의실 부분은 부정형의 붉은색 벽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며, 그 위의 막상 채임버에 이어지는 4개층의 서고는 램프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난 93년의 파리 Jussieu 도서관 계획을 부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시예들의 LMN이 로컬 건축가로 참여하였으며, 여러 방향으로 돌출되는 형태를 가능하게 한 캔틸레버 트러스 구조는 Arup에서 설계하였다.

▶ Steven Holl의 오스트리아 Loisium 방문객 센터

Holl의 최신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와인 재배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건물 전체가 수평적으로 5도 기울어져 있어 방문객들을 900년 된 와인저장고로 이어지는 터널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부정형의 틈들이 빛을 통과시키는 굳건한 외피가 그 자체로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어, 25미터에 달하는 천정고를 가진 내부는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다. 알루미늄의 외피는 빛, 기후, 계절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제공하는데, 푸른빛을 반짝이는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며 노을 콘크리트에 가까운 엄숙함을 발산하기도 한다. 그 배후 지역에는 현재 Holl이 설계한 호텔이 건설 중이다.



오스트리아 Loisium 방문객 센터

그 외에 ▶ Behnisch, Behnisch & Partner, Steven Ehrlich Architects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Kendall 스퀘어 ▶ Rafael Moneo의 스페인 Pamplona 자료보관소 ▶ Ziger/Snead, Charles Brickbauer의 미국 볼티모어 Brown 센터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기능별 특집 -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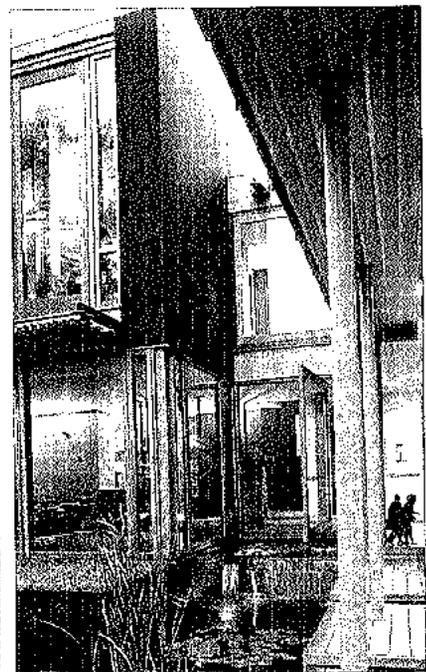
미국에서 외식의 3/4은 포장주문에 해당되며, 그중 60%가 햄버거와 피자다. 그러나 동시에 고급 레스토랑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고급 외식산업에서 건축과 엔지니어는 요리와 더불어 성공의 주요한 인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과 음식 종류에 따라 그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 Kajima Associates의 미국 뉴욕 Megu ▶ Patrick Jouin의 스위스 Chlosterli ▶ Philip Wu Architect의 미국 뉴욕 Jefferson ▶ Kengo Kuma & Associates의 일본 나가노 Soba 레스토랑 등 네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Megu는 서양 대도시 속에 아국적인 정취를 불어넣기 위해 불교의 모티브를 화려하게 차용하고 있는 반면, 나가노 사찰 인근에 위치한 Soba 레스토랑은 단순화한 구조와 재료, 즉 목재 루버와 천정, 테라스를 통해 종교적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주택

물의 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빛의 반사는 주변의 정지된 공간에 진잔한 움직임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주택의 조경 요소로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 한때는 대저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수반이 이제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그 최신 예로 ▶ WOHA Designs의 싱가포르 Berima가 주택 ▶ Shim-Sutcliffe Architects의 캐나다 토론토 Weathering Steel House ▶ Building Studio의 미국 Texas Twister ▶ Groep Delta Architectuur의 벨기에 Villa C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 사례에서 물은 여름철 주위 공기를 식히는 자연 온도조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 단신

▶ OMA가 중국 베이징에 건설할 예정인 CCTV 사옥 건축이 현재 난항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엄청난 규모와 구조적인 대담성이 돋보이는 이 계획안은 그러나 7억3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건설비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계획 자체의 난해함도 문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OMA에서 이 작품을 이끌고 있는 Ole Schereen은 중국 정부내에서 오가는 논의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 지난 20년간 새로운 건축활동이 뜸했던 미국 달라스에서 얼마 전 완공된 Renzo Piano의 Nasher 조각 센터에 이어 Norman Foster의 Winspear 오페라 하우스, OMA의 Wylie 극장이 건설된 예정이다. ▶ Charles Garnier가 설계한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그랜드 포이어가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다. 18개 전문분야의 100여명 전문가들 손으로 이루어진 이번 복원을 통해 화려한 천정화, 조각, 샹들리에가 옛 모습을 되찾았으며, 2007년까지 외관을 포함한 복원 작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 지난 5월 23일 4명의 희생자를 냈던 파리 드골 공항 터미널 2E 붕괴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 ▶ 미국 샌디에고와 캐나다 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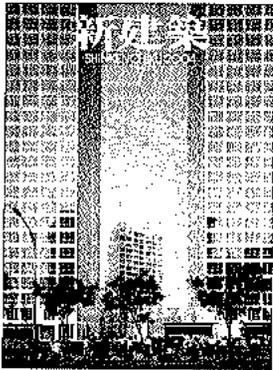
캐나다 토론토 Weathering Steel House

토의 항만지역 재개발 계획 ▶ 오래된 공장을 개조하는 Herzog & De Meuron의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니 계획 ▶ Zaha Hadid가 지명설 계경기에서 당선된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EuskoTren 사옥 ▶ 프랑스 Le Havre에 지어지는 Jean Nouvel의 해양센터 계획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번역 / 전신영)

신건축

2004년 7월호

이번 호에 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프로젝트 중 야마모토리켄의 설계에 의한 주거단지인



「建外SOHO」가 소개되었다. 백색의 모더니즘으로 회귀한 듯한 그의 디자인은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외 건축가들의 다양한 실험들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에서 실현 못한 SOHO주거를 오히려 중국에서 실현했다는 대목은 눈길을 끈다. 이토오 도요의 「마쓰모토 시민 예술관」은 새로운 공연장 시설의 배치 계획, 내부와 외부공간의 경계를 흐리는 공간구성 등을 보여준다.

■ 建外SOHO - 야마모토리켄(山本理顯) 설계 공방

▶ 표백된 장소

금년 5월 3일자 「타임」지의 특집은 「China's New Dreamscape」였다. 세계의 건축가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어 대건축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커버스토리는 「하늘을 찌르는 야망」. 여기서 야망이란 건축가의 야망

이자 건축을 이용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자하는 국가적 야망, 그리고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디벨로퍼의 야망일 것이다. 특집에는 램 클라스의 「CCTV」, 헤르조그 드 므롱의 「국립경기장」, 자하 하디드의 「오페라 하우스」, 폴 앤드류의 「국립대극장」의 공사사진 그리고 막 준공된 「建外SOHO」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기자(Susan Jakes)는 호의반 경계심 반의 입장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특집에서 기자가 갖는 호의는 건축가들의 실험이 과감하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의구심과 경계심은 과연 이와 같은 건물들이 들어선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제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습들은 순식간에 백색화되고 만다.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명령서 한 장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국가가 지정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한다. 결국 기존의 모든 것은 송두리째 지워지고, 건축가는 역사적, 지역적 맥락이 없는 백색상태의 공간에 오직 건축가 내면의 논리와 개성만으로 작업을 해가게 된다. 이는 외국의 건축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일 수도 있다. 많은 건축가들에게 중국이 매력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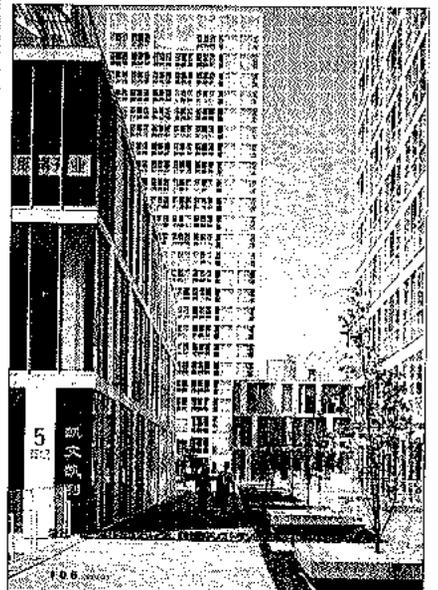


建外SOHO

아닐까도 싶다. 그리고 이는 이제까지의 도시환경을 리셋(reset)하고 국제적으로 최첨단의 도시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중국정부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새로운 부동산 가치를 열망하는 민간 디벨로퍼들의 야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곳에 서게 되는 건축은 이제까지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인가. 타임지의 기자가 우려를 하는 점도 바로 이점인 것이다.

▶ 분양경쟁의 배경

중국의 건축리쉬가 본격화된 것은 1998년 이후이다. 주룽지(朱鎔基)가 수상이 된 이후 이제까지의 개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재정정책은 적극재정으로 전환되었다. 도시기반정비가 진행되고,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중국 대도시의 고도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국가기업이나 공공단체에 귀속되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벨로퍼에 의한 개인소유를 겨냥한 주택건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98년 이래 불과 5~6년 사이의 시간동안 분양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어 이에 대한 판매경쟁으로 건축의 형태는 갈수록 개성적인 것으로 변해 갔다. 이는 각각의 디벨로퍼가 서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그 분양주택은 상품으로



建外SOHO

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즉 차별화가 명료하지 않은 주택은 팔리지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建外SOHO)도 이와 같은 차별화의 연쇄적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북경의 모습을 통해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건축군, 다시 말해 하나의 지역 전체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서 차별화가 디벨로퍼가 바라보는 바일지라도 단순히 주변과는 동떨어진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타임지의 기자와 동일한 경계심을 건축가로 갖게 된 것이다.

▶ 생활 이미지를 제안하는 전략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가치를 생각하였다. 하나는 여기에 살게 될 사람들의 생활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그 다음엔 그 구체적인 생활의 이미지가 그대로 상품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취한다면 차별화라는 것이 단순히 형태에 국한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구체적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건축의 형태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판매방식과 설계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종래의 분양주택은 기본적인 골조만을 제공하고, 주택의 내장은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취향대로 꾸미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생활방식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내장 디자인까지 완성하여 그것을 판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매방식은 이 프로젝트의 디벨로퍼인 SOHO CHINA가 최근에 이미 시도한 바 있는 방식이었다. 또한 종래에 외국 건축가들이 담당하는 작업의 영역은 초보설계(기본설계)보다 조금 더 상세한 도면까지였으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시공도면설계(실시설계)와 시공도의 중간 정도는 「설계원」이라 불리는 중국의 설계사무소에서 행하고, 감리는 건축주 측에서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건축가가 주택의 내장까지 책임지는 디자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초보설계, 시공도설계, 감리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야마모토리켄 사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설계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맺는 계약이었다.

▶ 북경에서의 SOHO만들기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생활의 구체적 이미지라는 것은 SOHO와 같은 주거방식이다. 본래 SOHO CHINA가 야마모토 리켄에게 의뢰된 것도 그가 설계한 東靈의 공단주택계획(東靈캐널 코트KODAN)을 사업자 측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SOHO적인 주거방식을 SOHO CHINA의 브랜드로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SOHO적 주거의 모습을 건축가가 제안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建外SOHO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공단주택은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외부로 철저히 개방된 SOHO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북경에서 동경에서는 이를 수 없었던 철저한 SOHO주거를 실현한 것이다. 중국의 분양주택들은 대부분 단지내부가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형식으로 되어있지만 建外SOHO에서는 외부에 개방된 보행자 전용의 외부공간을 만들었다. 시행자 측에서는 노숙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지만 덕분에 길가에 면하지 않은 주거에도 상업기능이 들어 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SOHO 주거단지로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저층부의 「SOHO별장」과 「저층상업동」은 일본의 설계사무소인 「C+A」와 「미캉구미」에게 맡겼다. 1인의 건축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혼합되는 것이 더욱 재미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상업시설들에서는 이들 사무소들이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주에 한번씩 갖는 팀 미팅을 통해 통일되면서도 다양성을 부여한 단지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다.

■ 마츠모토 시민예술관 - 이토오 토요(伊東豊雄)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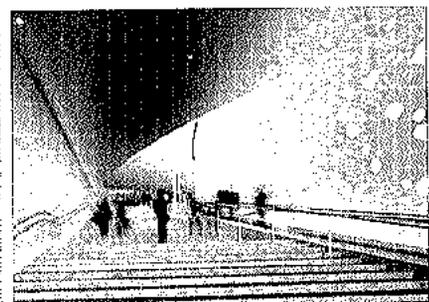
▶ 부지와와의 관계

마츠모토 시민예술관은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4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다. 부지는 마츠모토역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구 시민회관이 서있던 부지는 남북으로 세장한 외인병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대부분이 도로에 접하고 있다. 이 특수한 부지상황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표리(表裏)가 없는 극장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토오 사무소의 해답은 통상의 극장 배치를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높아 솟게 되는 무대를 부지 중앙에 배치하고, 객석을 부지의 가장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회유(回遊)하는 공간을 부지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반출입 동선도 합리화되어 부지 남쪽에 있던 기존의 수목들도 보존할 수 있었다.

▶ 다집점(多集点)의 배치

북쪽의 입구를 들어서면 은은한 계단이 맞이한다. 느긋한 마음으로 로비로 올라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은 후무대(後舞臺)의 벽면이다. 거기에는 커다란 개구부가 있고 프로세니움(아치) 사이로 대공연장의 객석이 보인다. 그곳에서부터 외벽을 따라 포이어를 걸어가 극장에 들어서면 이번에는 무대 너머로 야까 보았던 개구부를 통해 로비가 보인다. 무대 내에 실험극장이 세트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로세니움을 넘어서 반전된 또 하나의 극장이 나타난다. 종래의 극장은 사람의 움직임과 시선이 일방향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표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구석자리라는 것이 없다. 이 관계는 극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 다집점성(多集点性)은 객석배치에서도 나타난다. 말발굽형태의 객석으로부터는 무대뿐만 아니라 반대 측의 객석에까지도 시선이 가게 되고, 극장의 현장감을 높게 된다. 또한 부드러운 천을 드리운 듯한 벽면은 양호한 음향환경을 제공하고



마츠모토 시민예술관

벽면과 의자 사이에 설치된 열은 핑크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그라데이션은 무대어의 집중과 화려함을 양립시키고 있다.

가+u

2004년 7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패션 브랜드의 공간 표현 전략이다. 최근 브랜드별로 자신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샵 등의 공간 디자인



을 통한 브랜드의 이미지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점검으로 이와 같은 특집은 수 년 전에도 한번 다루어진 바 있다. 이번 특집에는 각 작품의 소개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인터뷰 등도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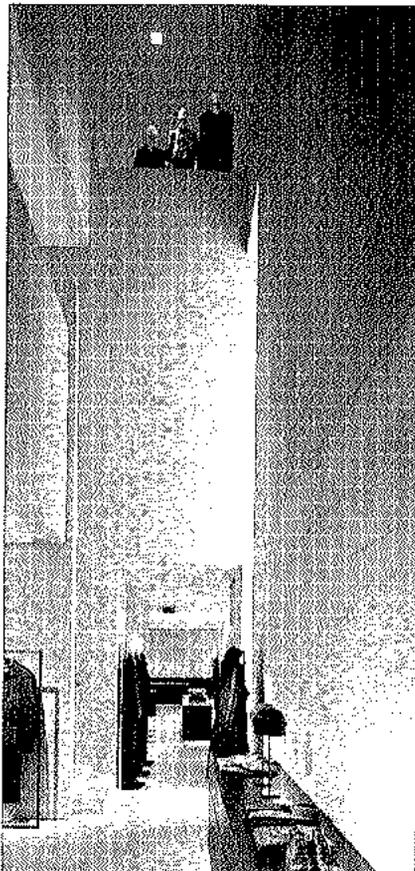
■특집: 패션공간의 새로운 전개

근년 브랜드전략과 공간표현의 복합에 대하여 많은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패션 브랜드에 있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개하는 공간표현은 단순히 상품의 디스플레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철학이나 아념, 나아가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함께 갖게 되었다. 건축가나 디자이너도 그러한 전략적 시행착오 속에서 디자인의 힘을 발휘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브랜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건축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공동작업의 성과가 새로운 비즈니스전략을 꽃피우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시점에서 실제의

공간제안에 있어서 보고 들은 패션 브랜드의 공간전략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건축가나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공간 표현의 방법, 혹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브랜드의 전략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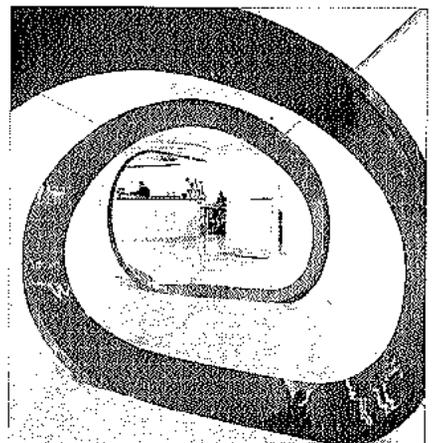
▶ 조지 아르마니와의 인터뷰

최근 아르마니의 브랜드는 패션의 세계에서 디자이너에서부터 그 범위를 넓혀 Casa, Dpki, Libri, Fiori, Caffè, the Nobu Restaurant 등 라이프스타일을 전 영역에 걸쳐 창조하는 분야에도 기업으로서 전략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전개의 배경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스스로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르마니 브랜드가 전개하는 샵이나 공간디자인은 건축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아르마니 자신과의 협력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가 저명한 건축가에게 일을 맡긴다. 그들이 보다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대해 충분



홍콩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샵

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보통 아르마니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아르마니 본인은 건축가나 다른 디자이너와의 협력작업 또한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현재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는 구겐하임의 아르마니전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도시를 순회할 때마다 그 공간의 구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전시주제는 같아도 각 도시의 컨텍스트속에서 어떻게 프리젠테이션할 것인가를 고려한 결과이다. 그 환경이나 국민성에 걸맞는 전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미스가 설계한 베를린의 내셔널 갤러리와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의 전시공간이 같을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그는 각국의 샵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한다. 최근 홍콩과 상하이에 오픈한 그의 샵은 아르마니 샵의 공간디자인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 홍콩의 것(홍콩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샵, 설계-콜로디오 실베스트란)은 간결하고 정돈된 디자인으로 아르마니 브랜드의 기본적인 컨셉을 담고 있는 반면 상하이의 것(상하이의 아르마니 체터하우스, 설계-막시밀리아노 후스 사스+도리아나 만드렐라)은 상하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심분 고려한 디자인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번역 / 강상훈)



상하이의 아르마니 체터하우스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김제문화예술회관	108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110
구로구 구의회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114
웅진군청사	116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이천역사	118
포천시립 일동도서관	120

김제 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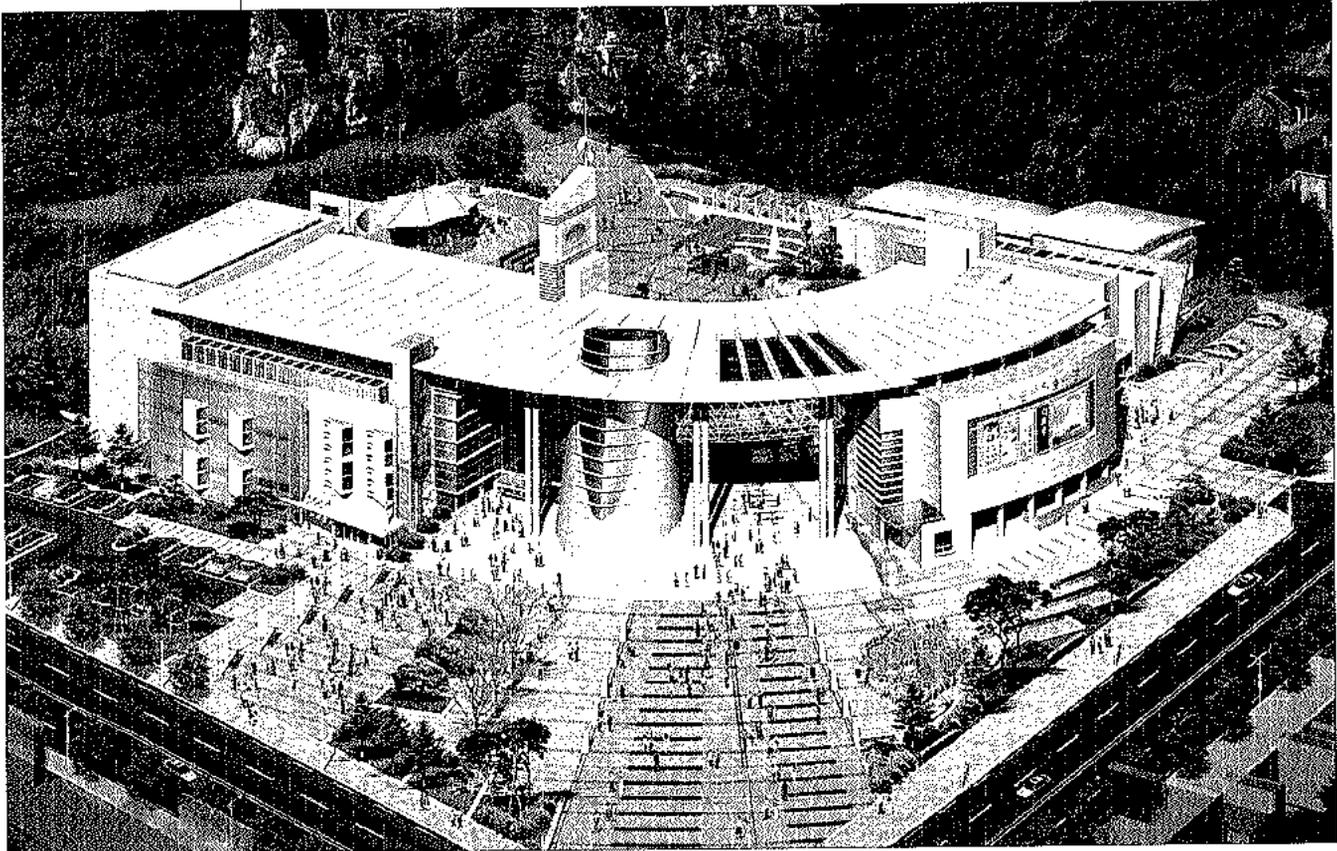
Gimje Culture & Art Center

당선작 / (주)김.건축사사무소(이길환) +
가림건축사사무소(김완중)

대지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280-1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6,843㎡
건축면적 2,293.2㎡
연면적 5,190.74㎡
건폐율 13.62%
용적률 27.0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38대 (장애인주차 3대 포함, 기존인근주차 이용 (시정 : 348대, 성산공원 : 36대)
외부마감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골강판, 적상목
설비개요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CATV 설비, 전관방송 설비, A/V설비, 소방설비
설계팀 최문규, 김완기, 서봉욱, 김성현, 이종열, 배철용, 김종욱, 정희진

계획의 배경

- 이 계획은 예방과 지평선의 고정인 김제시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평적 요소인 지평의 상징적 의미와 예술의 무한한 표출을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의 이미지를 대지안에 품도록 계획하였다.
- 계획대지 안에 종합문화공간 및 지역문화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유기적이고 자발적 행위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가미하여 김제시민의 문화예술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의 마련.
- 예술공연이 열릴때 지역주민간 스스로의 행위가 일어날 때 주민들 상호간의 교류의 장으로, 또는 쉬고있을때 정신과 마음의 안식처가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려 함.
- 김제의 역사와 유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전시공간과 문화 예술 공연행위를 조성하는 지역문화발전의 심장으로서의 장(場)마련.



자연속의 문화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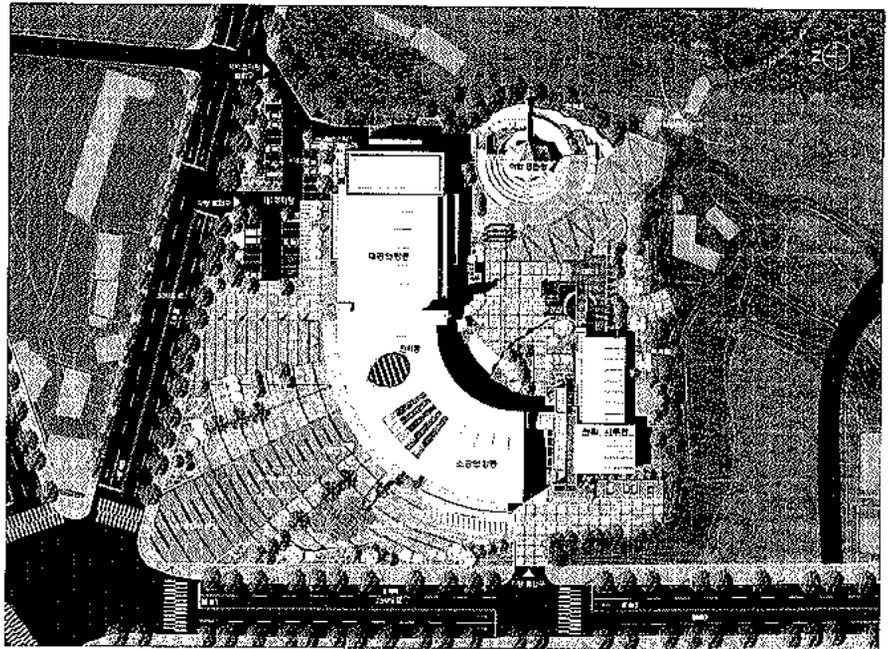
- 김제의 넓은 지평선과 인근 성산공원의 풍부한 외부공간을 내부로 끌어들이 자연을 품은 자연속 문화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충분한 편의 시설제공.
- 대지의 레벨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레벨별 접근에 따른 점진적이고 유동적인 진입유도.

무장애(無障礙)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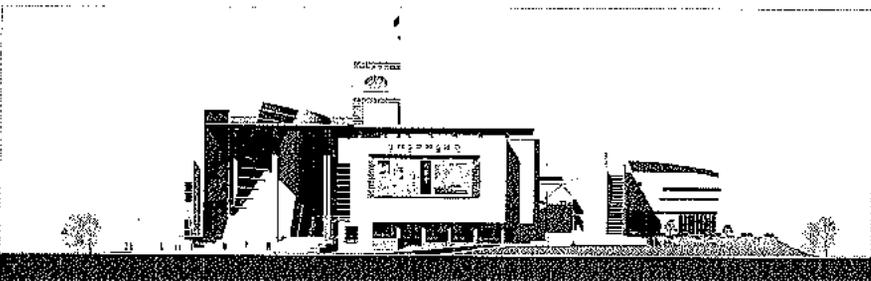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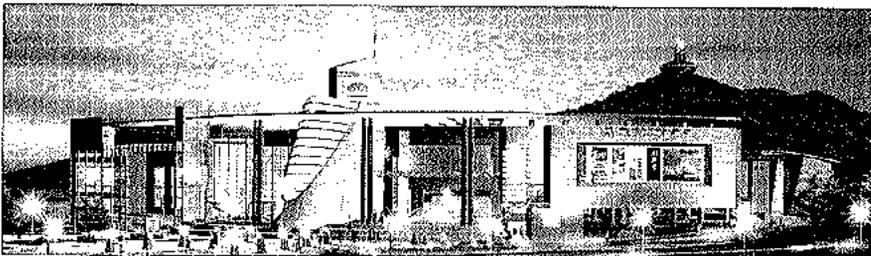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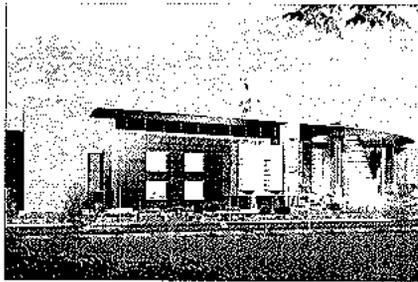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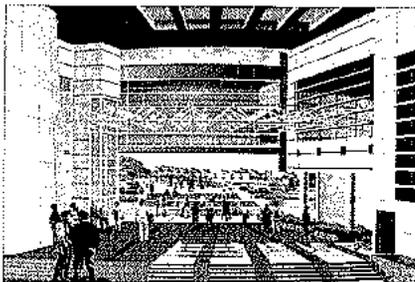
-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어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 노약자 및 일반 이용자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제공.

유기적 문화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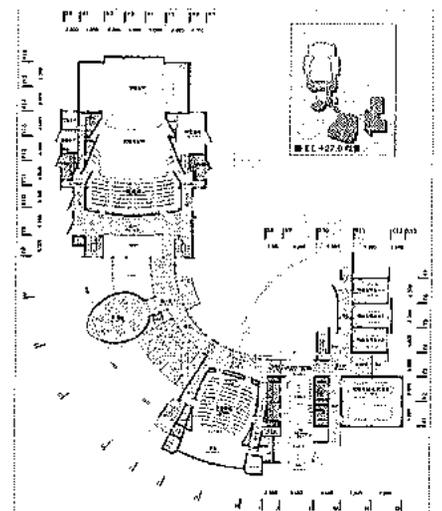
- 전면 황금들녘광장과 야외무대마당, 진입계단 등을 통해 예술인과 시민의 자연스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기적 문화 예술 공연장으로서의 공간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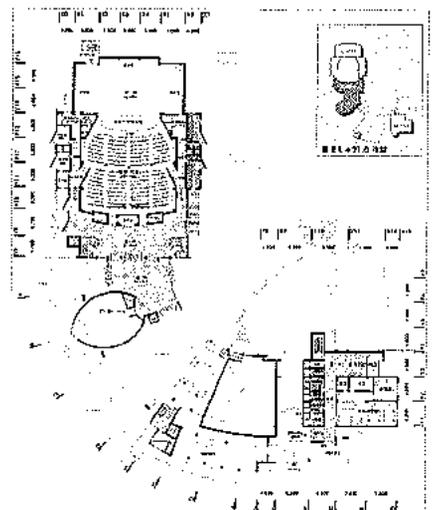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University of Seoul IT Center

당선작 / (주) 토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형배)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안기돈·
송재한)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시립대학교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7,348.00㎡
건축면적 1,580.21㎡
연면적 9,463.12㎡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주차대수 50대 (장애안주차 2대포함)
외부 마감 금속패널, 복층유리
설계팀 토우 : 전수현, 김윤경, 김주형, 반창환,
김영자, 손원형, 강병권
도상 : 정용현

" 캠퍼스와 자연이 하나되기 "

EDGE between CAMPUS & NATURE

대지는 인위적으로 짜여진 대학캠퍼스와 자연 상태의 배봉산이 접하는 곳으로 그 연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상적인 랜드스케이프 (Landscape)의 배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주변 건물인 학생회관, 인문사회관, 대강당과 마주 보는 위치이므로 이들 건물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정보기술관의 건물배치를 전제로 한다. 이를 전제로 계획된 광장은 주변 건물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캠퍼스내 중요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가 될 것이다. 필로티(Pilot)와 아트리움(Atrium)을 통해 자연과 대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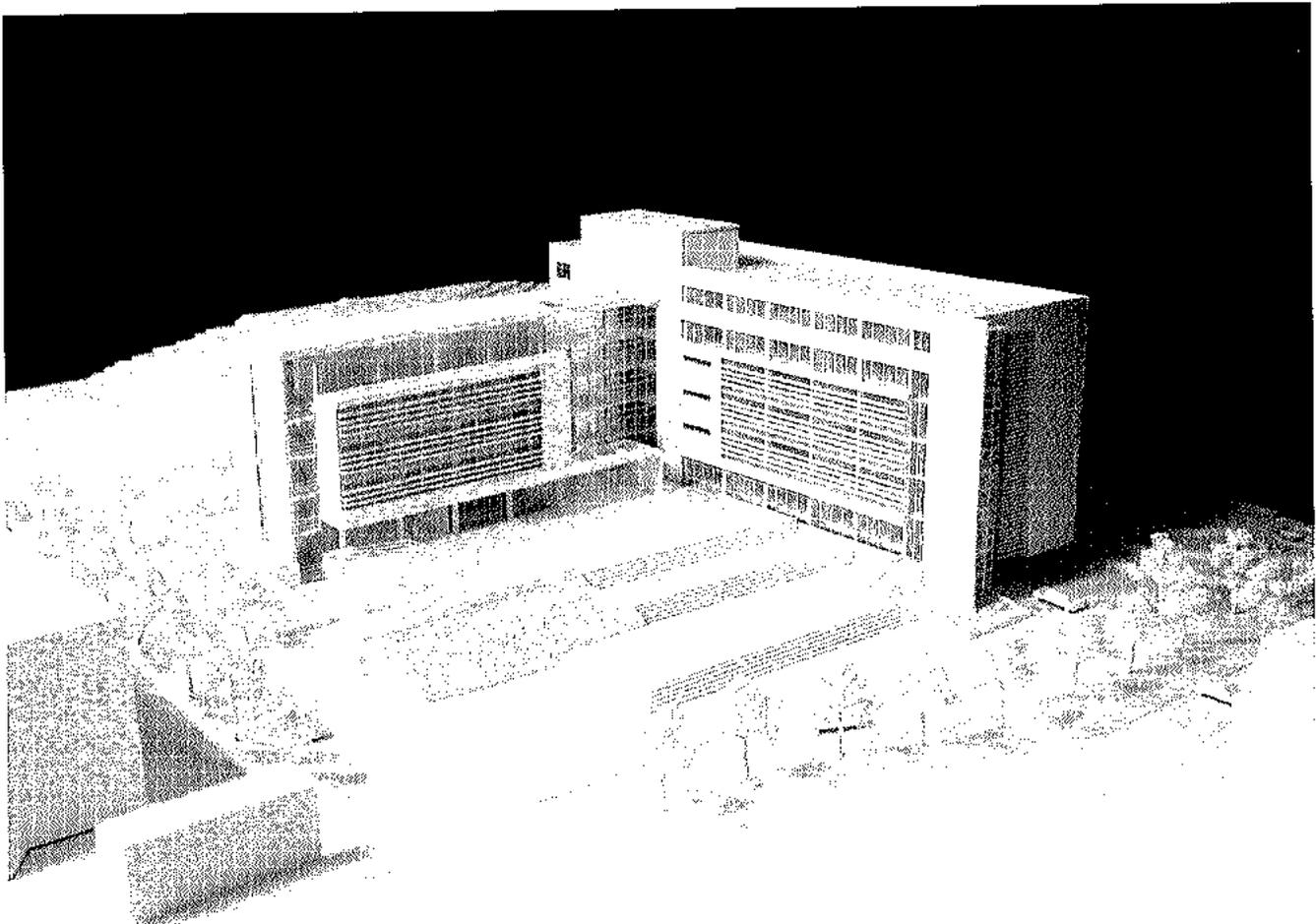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 경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캠퍼스내 만남의 장소, 일상적인

유희공간, 노천극장, 매년 행해지는 축제의 장으로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관이라고 하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는 주변 건물과 비슷한 스카이라인, 단순한 직각배치, 매스의 투명함을 통해 광장과 어우러져 더욱 인상적인 모습을 가질 것이며, 디지털의 다양한 변화의 이미지는 광장을 배경으로 구성된 입면이 스크린의 역할을 하며 광장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지경사를 따라 형성된 썬ken(Sunken)으로 진입하여 시청각 강의실로 연결되며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멀티플렉스(Multiplex)로써 대규모 시사회, 공연 등도 가능하다.

건물 중심에 위치한 아트리움은 자연친화적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써 동쪽을 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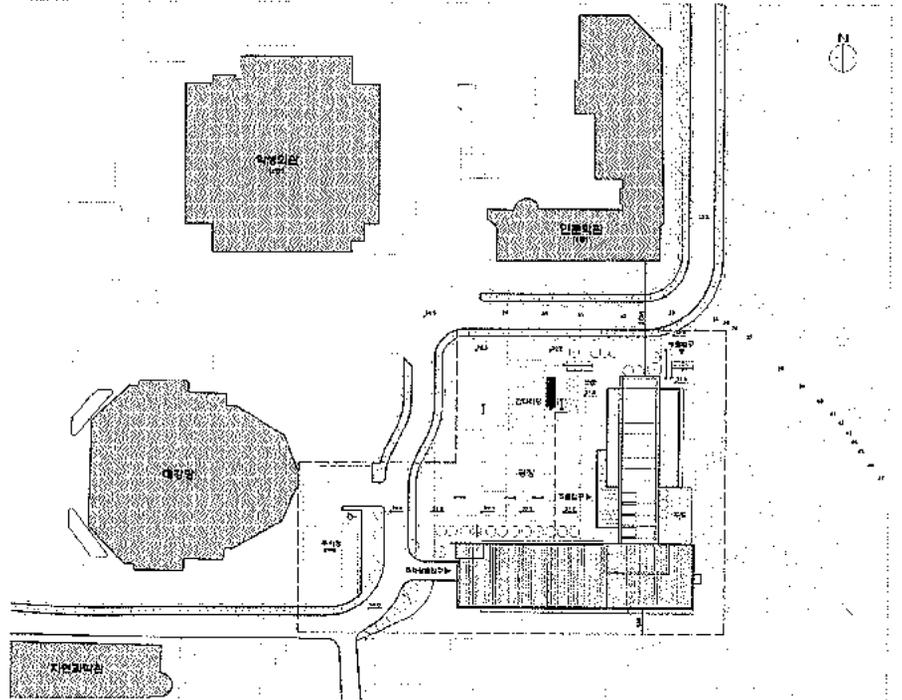


광장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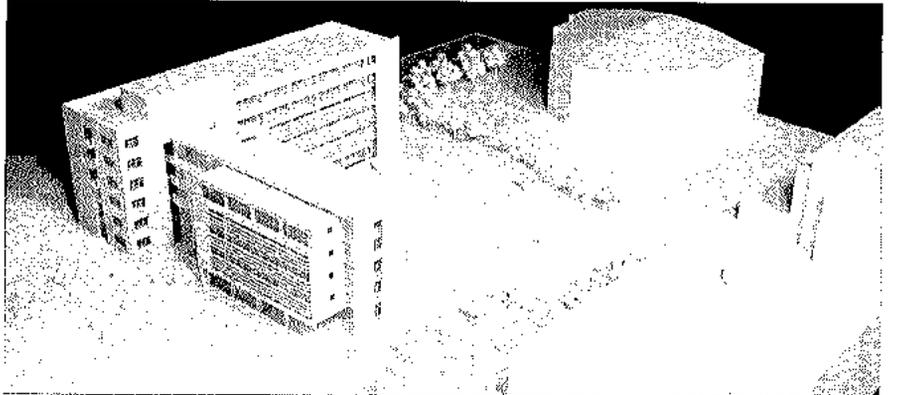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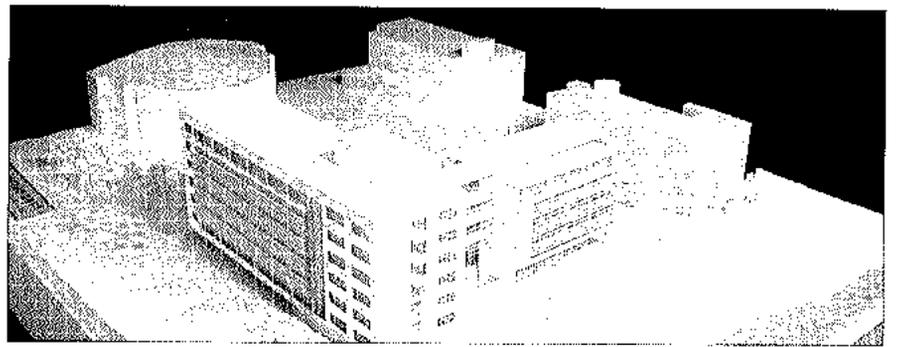
이와 같은 캠퍼스와 자연을 연계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건물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건물의 경계를 없애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보기술관의 중요한 공간구성요소는,

- 광장 : 캠퍼스의 노드(node)와 정보기술관의 마당으로써 상징성과 정면성을 갖도록 한다.
- 쉼골 : 대지경사를 활용한 공간으로 지하층에 시청각실을 계획하며 휴게라운지를 끼고 있다.
- 아트리움 : 주 출입구를 형성하는 매스구성의 중심공간으로 도시의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다.
- 커튼월 : 정보기술관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살리고 광장의 스크린 역할을 한다.
- 후정 : 아트리움 2층에서 산으로 연결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이다.
- 옥상정원 : 건물옥상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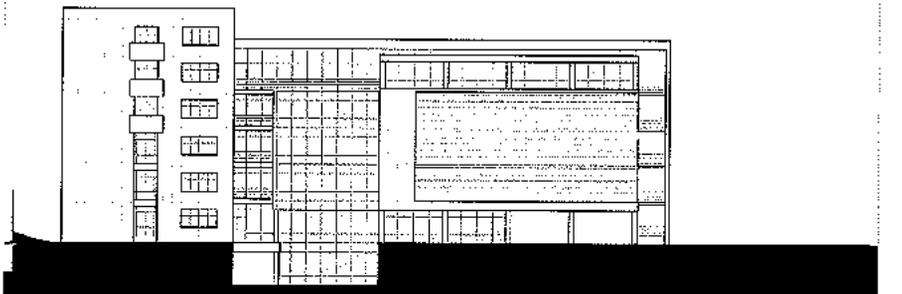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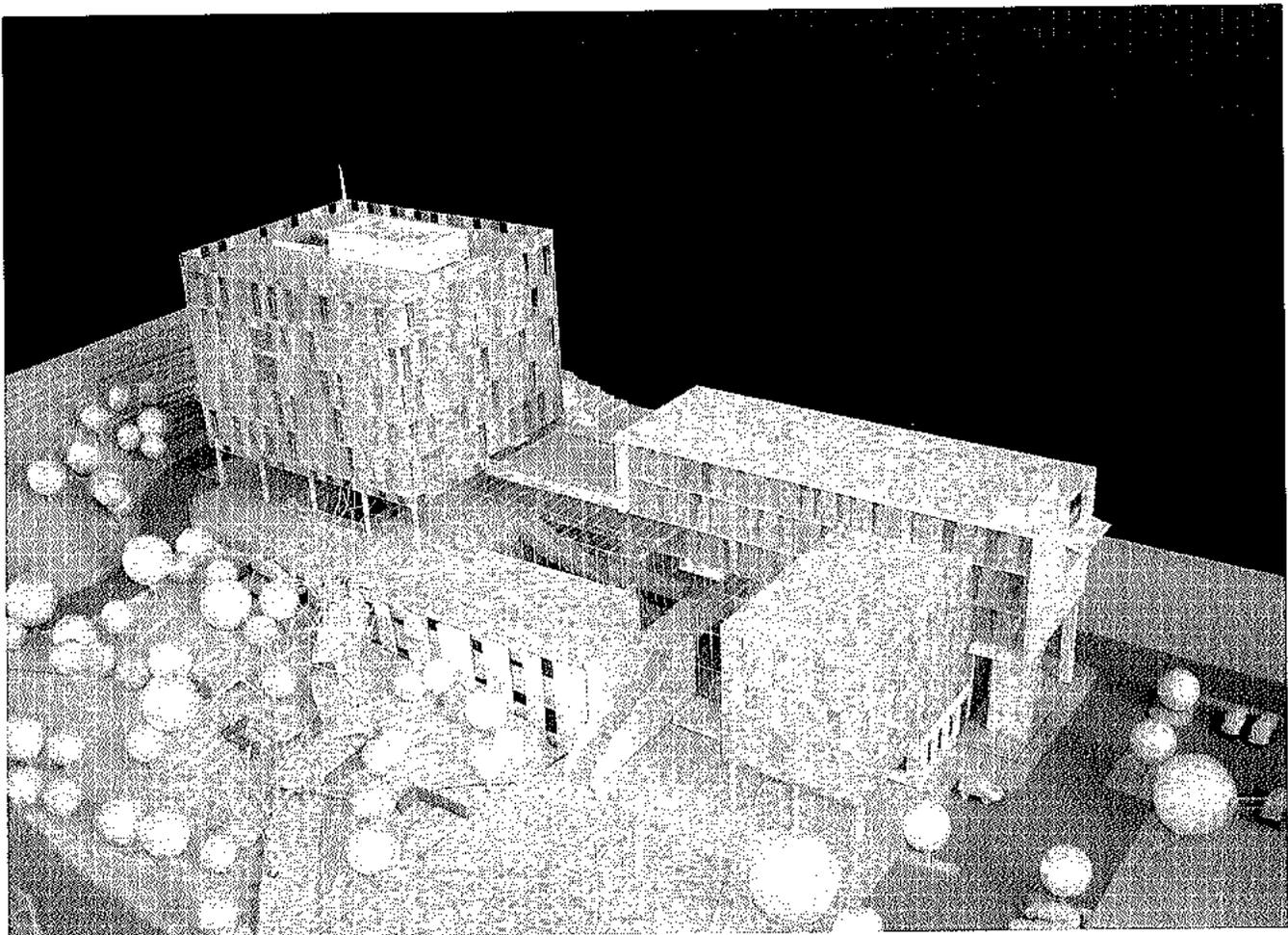
우수작 /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노윤경) +
서울산업대 건축학과 정만영교수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시립대학교내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대지면적 7,348.00㎡
건축면적 2,697.10㎡
연 면 적 9,543.75㎡
건 폐 율 0.99 %
용 적 량 2.96 %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총 62대 (자상주차 62대, 장애인주차 3대포함)
설비개요 GHP 냉난방시스템 + 국부환기
외부마감 THK24 컬러복층유리 + 샌딩유리, 알루미늄
늑목합패널, 치장벽돌, 화강석
설 계 팀 김두환, 최지호, 이종규, 최정인, 양운석,
김형곤

배롱산 자락은 못생긴 소나무, 허우대가 큰 참나무, 이리저리 제멋대로 뻗은 아카시아 나무, 키가 작은 도토리 나무 등에 의해 덮혀 있지만 그래도 항상 변함없이 푸르름을 보여주고 신새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다. 시립대 캠퍼스 내 동선체계는 크게 외곽부를 순환하는 일방향 차량동선과 정문-본관-도서관을 잇는 주 보행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계획의 대상지는 주 보행동선과 평행하게 건설공학과, 학생회관, 강당, 인문학관을 잇는 부 보행동선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롱산자락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건물전면에 오픈스페이스(디지털 마당)를 만들어 새로운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정보기술관이 기존건물들과 강한 연계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순환도로를 건물의 뒤로 우회시키도록 제안하였다. 배롱산 자락의 수림대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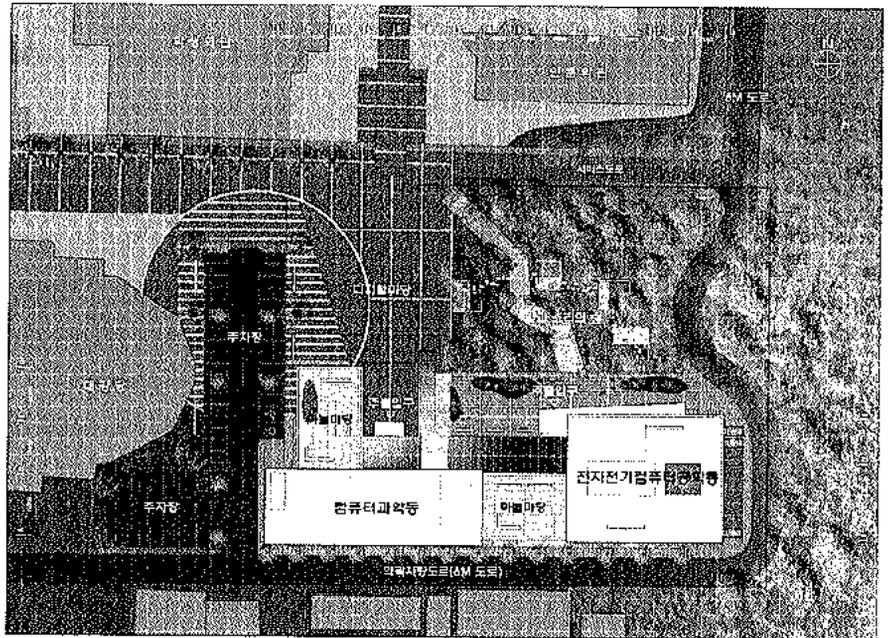
가피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장방향 저층부(B, 1, 2층) 매스를 남쪽에 배치함으로써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빛과 소리의 숲'으로 명명), 저층부에 의해 형성된 데크와 병치시킴으로서 자연과 건물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큰 나무 사이사이에 휴게벤치가 있는 격자형 바닥판을 설치하여 전기장치에 의해 밝으면 소리와 빛이 발산되도록 하였으며, 계단식 보행로를 숲 사이에 자유롭게 배치하여 3층 레벨로 자연스럽게 진입되도록 하였다.

저층부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실과 강의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교수연구실을 배치하였으며, 두 개로 분리된 매스는 배롱산 자락과 자연스럽게 순응되도록 하면서 동선상으로도 미디어대와 공과대의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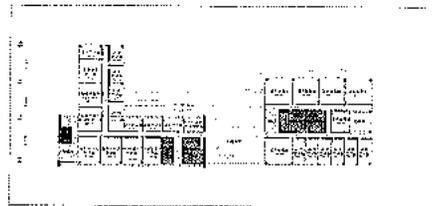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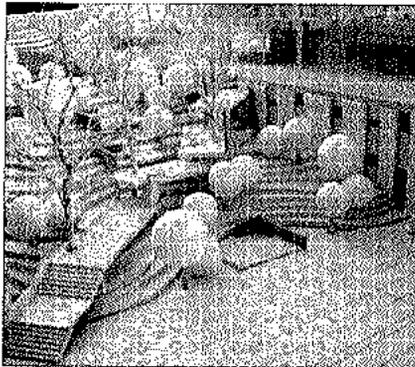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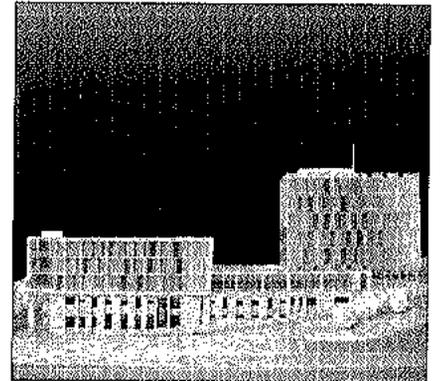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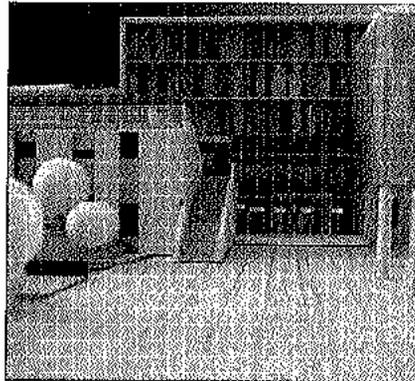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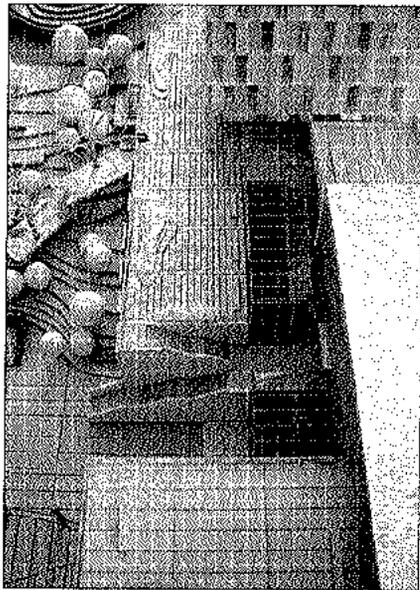


저중부 아뜨리움은 상부를 유리로 처리하여 햇빛, 구름, 바람, 하늘이 내부로 스며들도록 하였으며, 오픈 된 계단과 기둥, 벽, 난간 등의 요소와 어우러져 깊이감 있는 중심공간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외관계획에 있어 커튼월의 유리면을 비규칙적으로 분할함으로써 각각 분할된 유리면은 유리의 색(투명, 칼라, 스테인드 유리)과 표면처리(sanding)를 다양하게 조합시켜, 태양빛의 반사에 의해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정보의 단위가 매체에 의해서 고착된 요소가 아니고 전자적 자극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관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끝으로 시립대인의 휴식처인 배봉산 자락의 녹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존되어 훼손이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함은 이번 현상설계를 참여했던 나만의 생각은 아닌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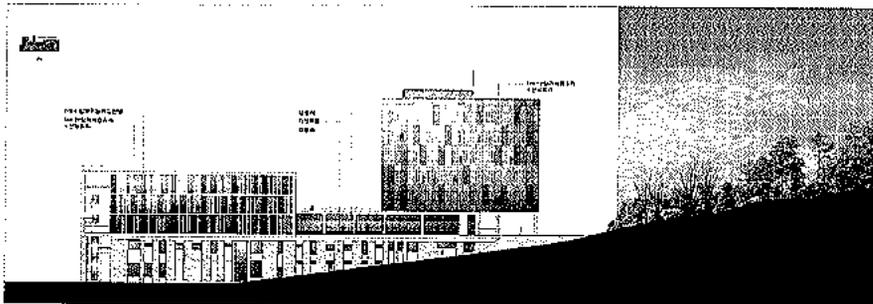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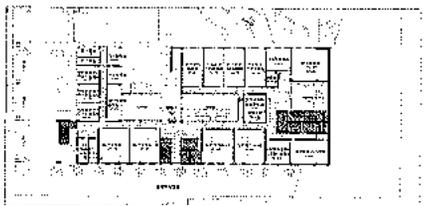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남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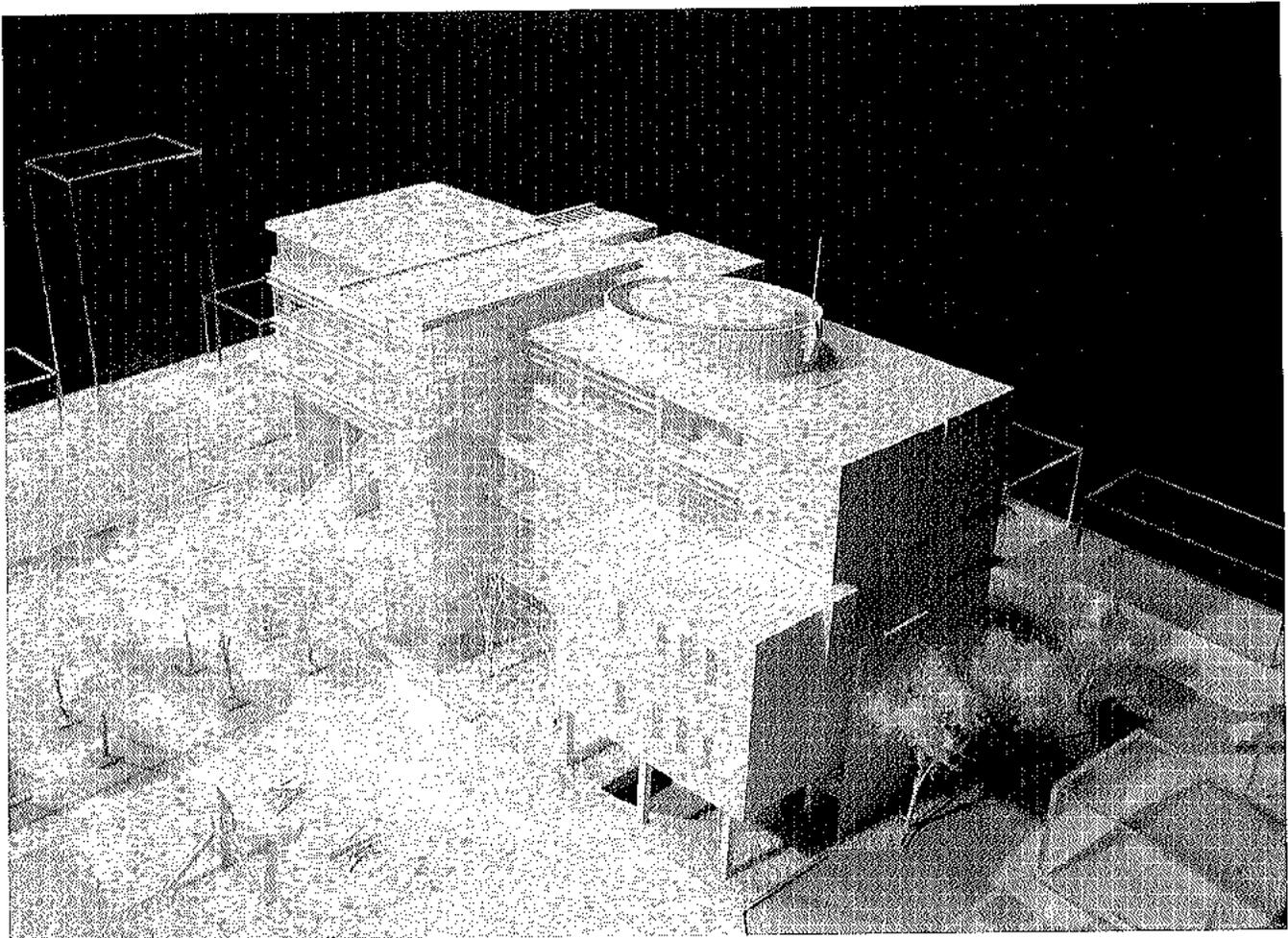
구로구 구의회의회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Kurogu Council Building & Culture and Art Center

당선작 /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노윤경)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1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지구
 대지면적 2,271.80㎡
 건축면적 1,362.45㎡
 연면적 7,566.33㎡
 건폐율 59.97%
 용적률 183.49%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주차대수 총 54대 (지상2대, 지하52대, 장애인용 2대 포함)
 외부마감 화강석, 적삼목, 알루미늄공강판, THK24컬러복층유리
 설비개요 FCU + AHU
 설계팀 김두현, 최지호, 최병용, 유정필, 김형곤

설계 경기에 기금 참여하여 안을 제안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의회 의사당과 문화회관이라는 약간은 이질적인 기능을 담아야하는 점, 장스팬이 요구되는 다목적 홀과 다른 시설이 결합됨으로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주차장해결 등 모든 것들이 계획 초기에서부터 최종안이 결정되기까지 우리를 긴장시키는 요소들이었다. 비교적 여유 있는 기존 구민회관의 외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협소한 대지조건을 해결하면서 두 시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매스는 측면 도로(8미터)와 평행으로 긴 매스를 배치시킴으로서 전면 도로(12미터)와 평행한 기존 구민회관과 '기'자로 배치됨으로 만들어진 외부공간을 이벤트들이 공연될 수 있는 중

심공간(이벤트광장)으로 설정하고, 건물 전면부의 1, 2층을 필로티화 시켜 비움으로서 생기는 진입공간(열린마당)과 매개공간(아울림 마당)이 전면 도로변에서 오픈 스페이스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면의 분수가 있는 벽천과 이벤트 광장을 감싸고 있는 전면 도로와 평행한 브리지는 이들의 오픈 스페이스를 더욱 활기 있게 해 줄 것이며, 브리지에 설치된 조명은 야간에 훌륭한 경관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1층에 전시관과 소강당, 2, 3층에 다목적홀, 3, 4, 5층에 의회를 배치시킴으로서 문화회관과 의회의 매스를 잇물리게 하여 두 시설이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였으며, 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시설이어야 함을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1층 진입레벨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노출시켜 이 시설들이 누구나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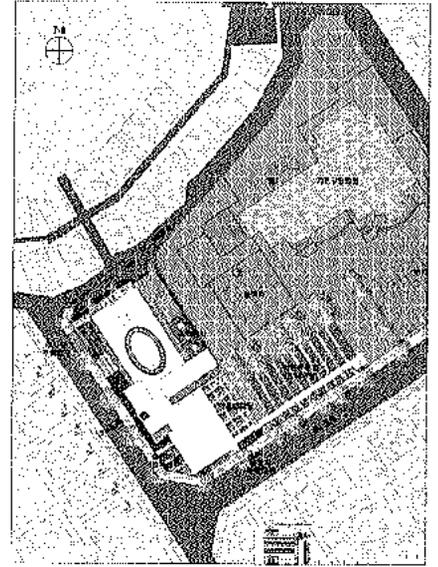
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설이 공유하고 있는 3층에서는 동선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2층과 3층이 오픈된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 시각적으로 트여 있으면서 의회의 문예회관의 동선 분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목적홀을 2, 3층에 배치시킴으로써 대공간(장스팬)에 실을 얹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는 공연장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사람들의 진출입이 일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층에 넓은 데크를 설치하여 다목적홀에서 옥외로 직접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동, 계단, 난간 등과 어울어진 데크는 1, 2층 필로피 부분의 보이드한 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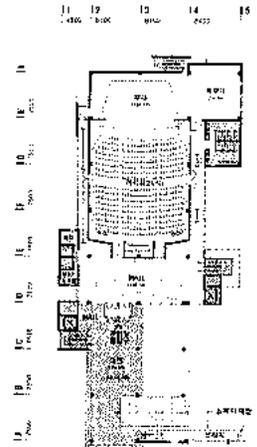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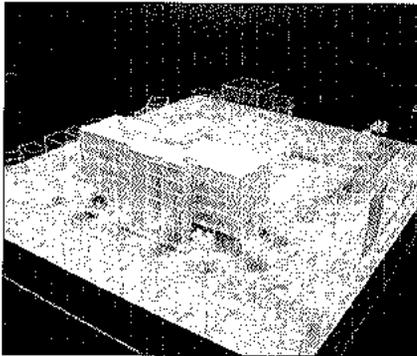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커튼월과 지붕의 강한 수평적요소, 내부가 드러나 보이는 투명한 유리, 부분적으로 사용된 목재들은 이 시설이 구민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공간이어야 함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친근감있는 건물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상부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의 타원형의 형태와 지붕의 사선은 이곳이 구로구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심적 장소임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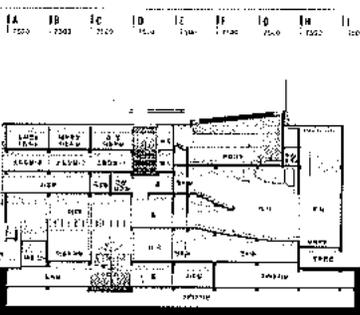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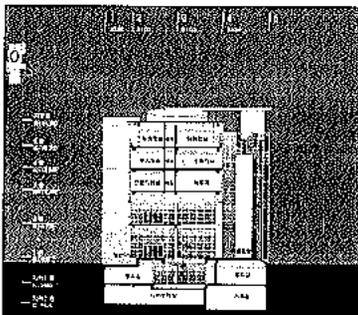
가능한 외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용된 커튼월의 유리, 지하층의 섀든, 4층의 하늘마당, 의사당 내부의 천창 등은 실내에 햇빛과 공기, 푸르름을 제공하여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건물을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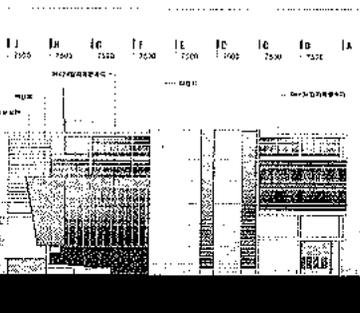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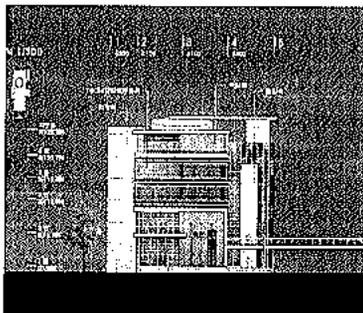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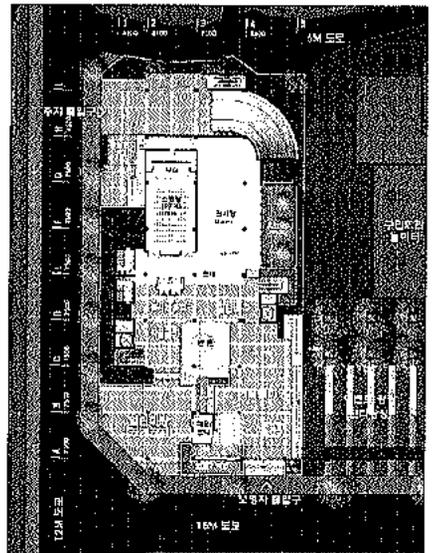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 횡단면도



정, 직육면도



1층 평면도

웅진군 청사

Ongjin County Office

당선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조민건·노광현) + (주)우아건축(조현석)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608번지의 2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7,479㎡

건축면적 2,653.05㎡

연면적 14,138.94㎡

건폐율 15.18%

용적률 62.95%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총 202대 (지상 170대, 지하 32대)

※대형버스 2대, 장애인주차 4대포함

외부 마감 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화강석,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설계팀 무영 : 황정범, 신현진, 허봉선

우아 : 안희석, 김미경, 김성원, 김정중, 권경렬, 이현지

프롤로그

쭉뻗 평화가 넘실대는 푸른 섬마을에 가고 싶다.

자연과 생명력이 살아있는 섬에서 건강하고 창조적인 웅진군청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룻길, 파도광장은 모래원 칠섬미당 그리고 바다 행사미당, 다목적 운동시설, 근린공원, 주차장과 진입부...

웅진군청사는 이런 모습이다. 건강한 바다위에 떠있는 신선한 청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대지는 바다이고 청사는 섬이며, 주위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처럼 젓빛공간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바다위의 대지. 그 대지위에 섬과... 섬처럼 열리고 닫히며...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Blue Network

섬과 바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엮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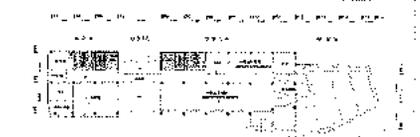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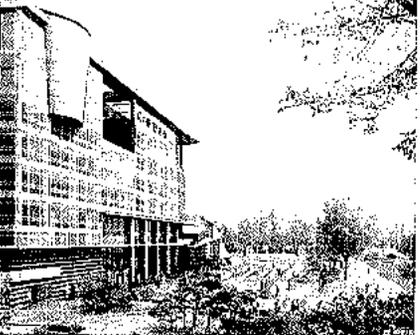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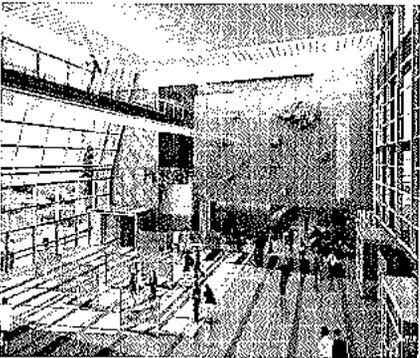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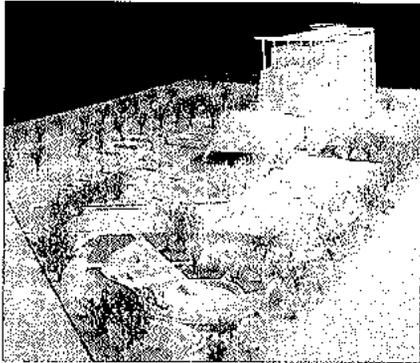
웅진군청사는 웅진반도(북)와 인천광역시(남) 사

이의 7개의 섬들을 상징화하여 행정청사, 의회, 보건소, 대강당 그리고... 진입광장, 휴게미당, 전사공간 등을 하나의 대지에 배치하여 기능간 업무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이를 블루 네트워크라 명명하였다.

더불어 사는 한미당, 풍요로운 생활 타전, 그리고 블루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공존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의회와 행정청사 그리고 대강당을 중심으로 각각 7개의 섬과 2개의 본토와 그 사이를 잇는 마음을 상징하는 웅진군청사는 건강한 바다와 새로운 관광문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웅진군민의 마음을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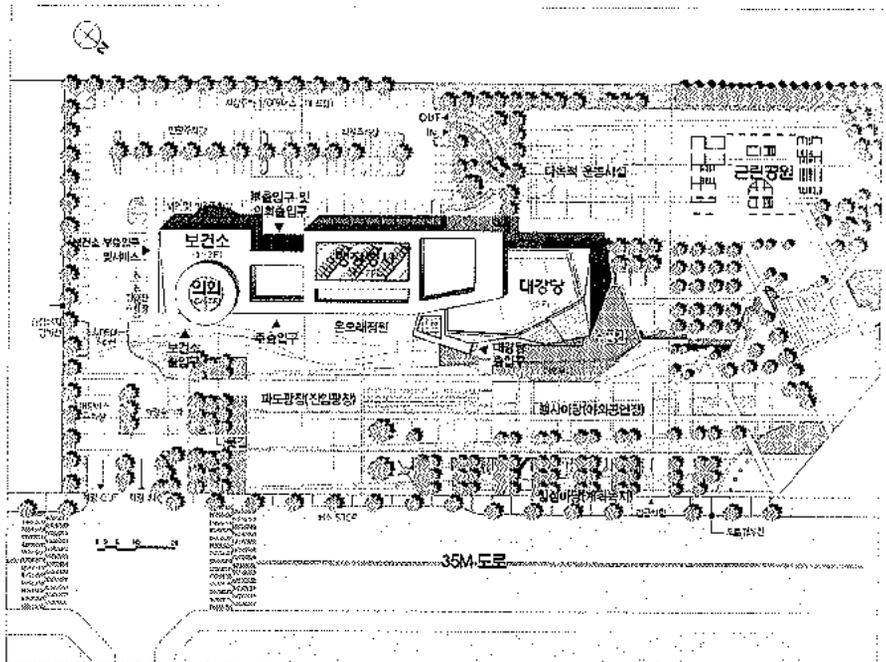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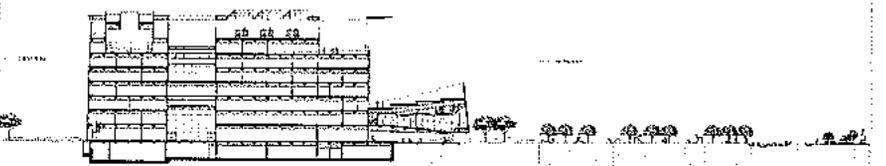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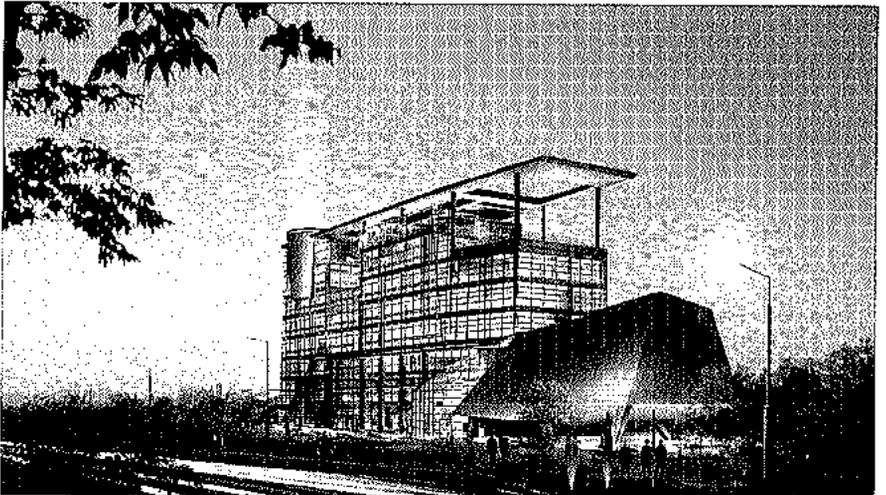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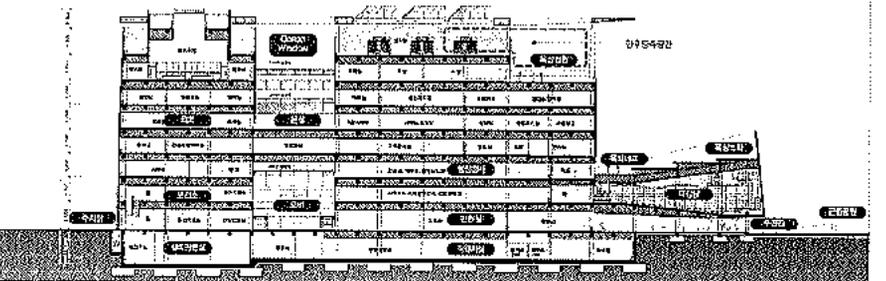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지도



대지 횡단면도



단면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이천역사

Seongnam-Yeosu Double Lines Railway Icheon Subway Station

당선작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최명철 · 심우권)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27-2 일대

역사형태 지상역사

승강장형식 섬식고상홈

승강장길이 210m

승강장폭 7.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3,118.09㎡

규모 지상 2층

주차대수 95대 (장애인주차 4대 포함) / 법정 32대

외부 마감 T0.7 티타늄아연판, T24 컬러복층유리,

T3 알루미늄쉬트, T6 플라카보네이트복층판

설계팀 최홍연, 최현영, 박우만, 김진영, 이항희,
이승준

계획의 전제

- 이천 신시가지의 중심으로서 형태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건축물 구성
-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천 역으로서의 상징적 형태 디자인

SOLID / VOID

전체적인 매스의 형상은 여러 각도에서의 접근성 및 인지성을 고려하여 반원형으로 계획하고, 여객시설(SOLID)과 역무시설(VOID)의 결합적 형태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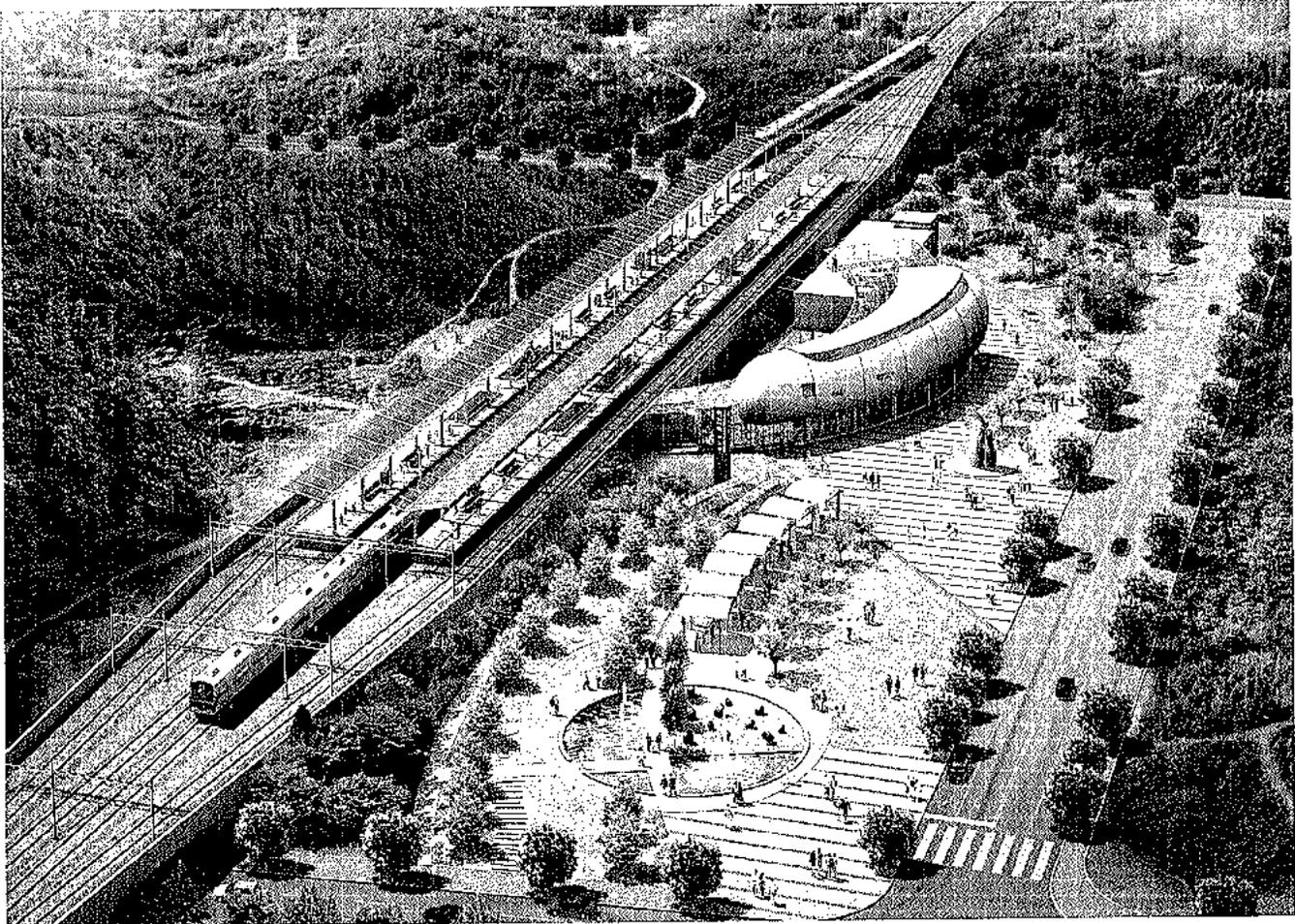
유동성이 많은 콘코스, 대합실, 연결통로의 여객 시설은 중정과 연계되는 유리매스로 계획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연계 및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기능적인 역무시설과 설비공간은 SOLID하게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승강장 지붕은 가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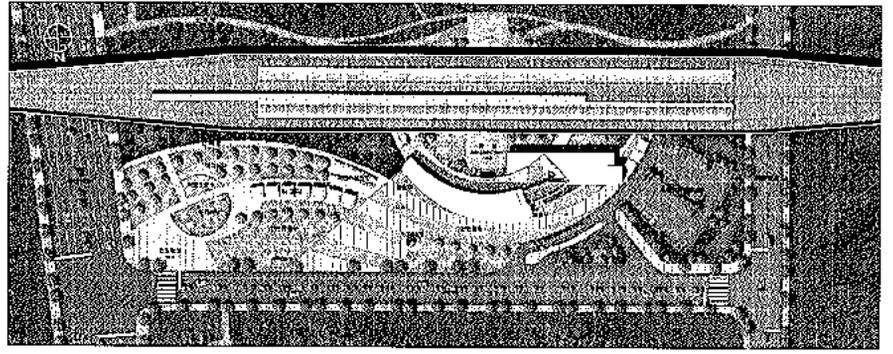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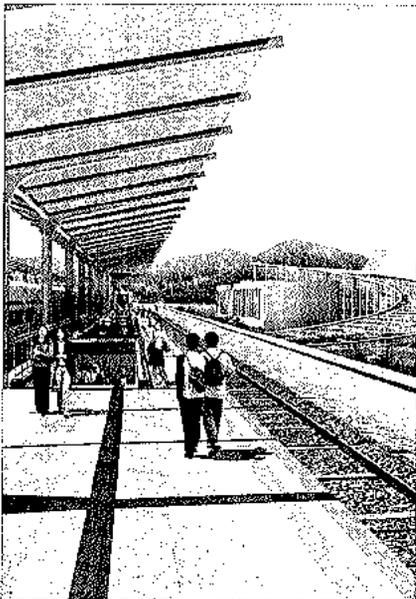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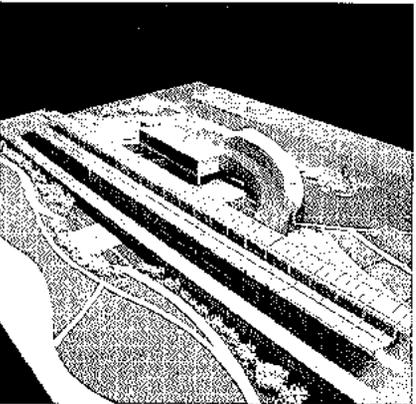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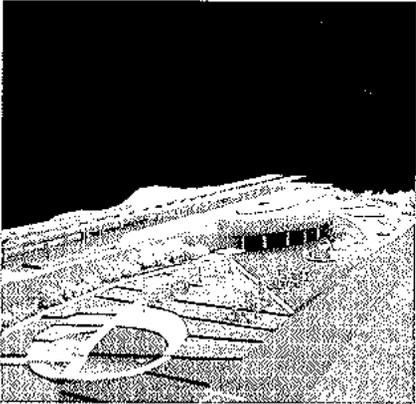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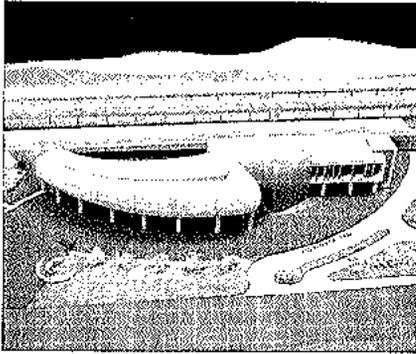
고 세련된 이미지의 구조미를 표현코자 하였다.

역사 정면의 SOLID한 덩어리는 도자기를 형상화하여 이천의 상징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계획적 요소로 디자인하였으며, 중정을 통한 자연채광 도입 및 휴게·녹지공간 조성으로 시각적인 쾌적함을 주는 친환경 계획을 고려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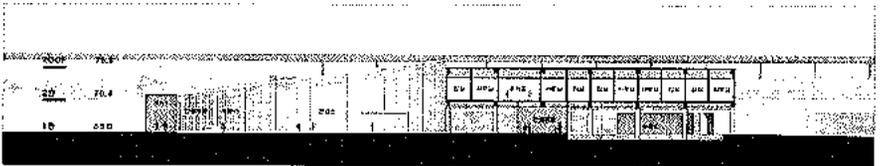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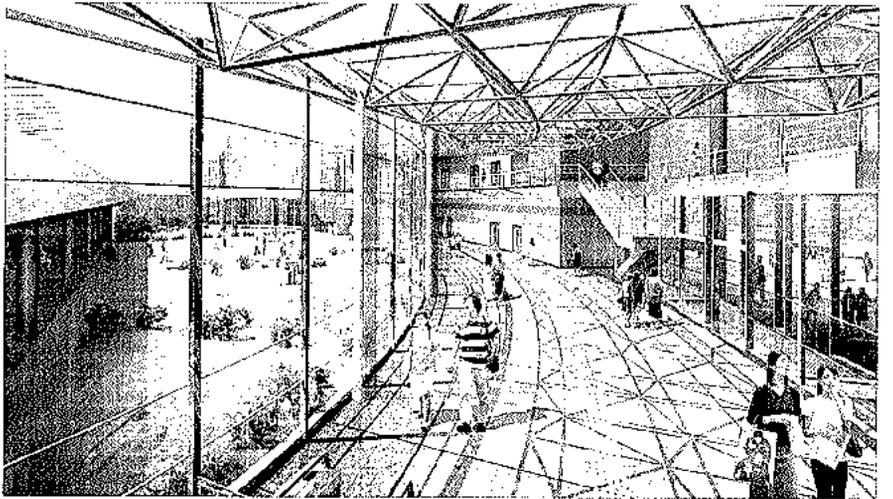
대략 한달여의 길지 않은 기간동안 세차례의 방향전환을 거쳐 초기의 개념과는 상이한 형태의 건물로 최종 결정되었고 자체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회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결과는 당선으로 발표되었고, 공들인 보람이 있었던 지고생글에 낙(樂)이 온 듯 하다.

향후 2010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그 때, 이천의 명물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물로, 이천역사가 당당한 그 모습을 원하던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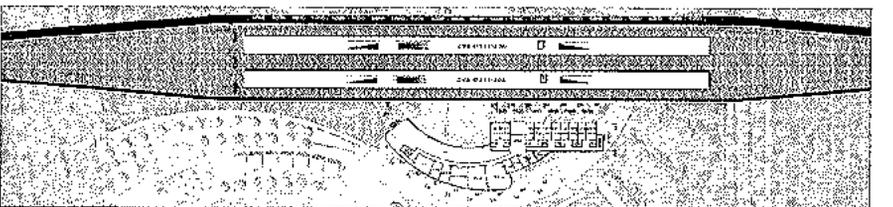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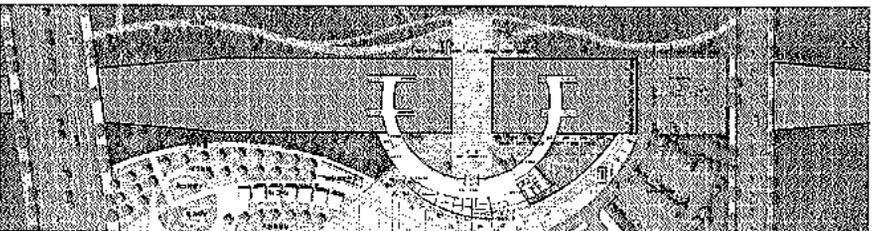
외단면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포천시립 일동 도서관

Pocheon Municipal Ildong Library

당선작 / 포천 건축사사무소(김한근)

대지위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284-3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745.00㎡
건축면적 978.91㎡
연면적 1,834.09㎡
건폐율 58.20%
용적률 109.04%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8대 (법정 : 1,834.09/300=6.11대)
외부마감 샌드스톤, AL, 커튼월, 베이스패널, 목재루버
설계팀 고광희, 배기동, 박용진

기본개념

본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일조권사선제한이나 도로사선과 같은 법적 제약을 받으면서 작은 대지에 얼마만큼의 '공공 OPEN SPACE' 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동면에 처음으로 계획되는 공공시설로서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며, 도서관 주변과 무리없이 어울리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외부공간계획

대지가 동서로 긴 직사각 형태를 이루고 있어 25m도로를 전면으로 하여 진입할 경우 내부동선이 불합리하고 외부공간도 협소하게 되므로 도서관 주출입구를 대지 중앙에 두고, 남측에는 진입광장을 북측에는 주차장을 두어 외부공간의 기능을 분리하였다. 또한 진입광장과 연계하여 도서관 남측에 휴게공

간 및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현재 보치분리 없이 이용되는 초등학교 진입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평면계획

평면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한점은 명확한 공간조닝과 아트트리움을 통한 개방된 환경의 조성이었다. 도서관 이용자와 관리자의 동선은 그 출입부터 분리되어, 수직동선도 각기 다른 계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1층은 어린이와 가족이용자들을 위해, 2층은 일반인과 청소년이용자를 위한 실을 배치하였으며, 각 실과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MASS계획

MASS계획시 동선축(수평축)과 가로축(수직축)을 중심으로하여, 가로축 MASS를 피로티로 들어올



우수작 / (주) 권건축사사무소 (윤상국)

대지위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284-3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 지역
대지면적 1,745.00㎡
건축면적 1,019.05㎡
연 면 적 1,885.66㎡ / 지상층 연면적 1,736.18㎡
건 폐 율 58.40%
용 적 륭 99.49%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6대 (장애인용 1대 포함) - 법정 : 628대
설비개요 시스템 냉·난방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고밀도 목재패널,
THK18 패턴유리, THK18 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김현덕, 원태희

개념

시립 도서관은 중정을 중심으로 2개의 매스로 분할된다. 중정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는 ECO BRIDGE의 역할을 할 것이며, 분리된 두 영역은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내부의 질서가 새롭게 생성될 것이다. 연결통로에서 계단을 통해 중정으로 이어지며 다시 건물 내부로 자연요소를 확대시켜 준다. 이렇듯 도서관은 기존 도시 질서에 새로운 내부의 질서를 확립시켜 지역사회에 정보마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기대해본다.

배치 계획

대지형태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상호 유기적 매스를 구성함으로써 매스의 다양한 변화를 통한 인지성 확보와 접근성을 부여하였다. 공간의 성격 및 기능에 따른 시설 간 동선분리 및 효율적 기능배치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명확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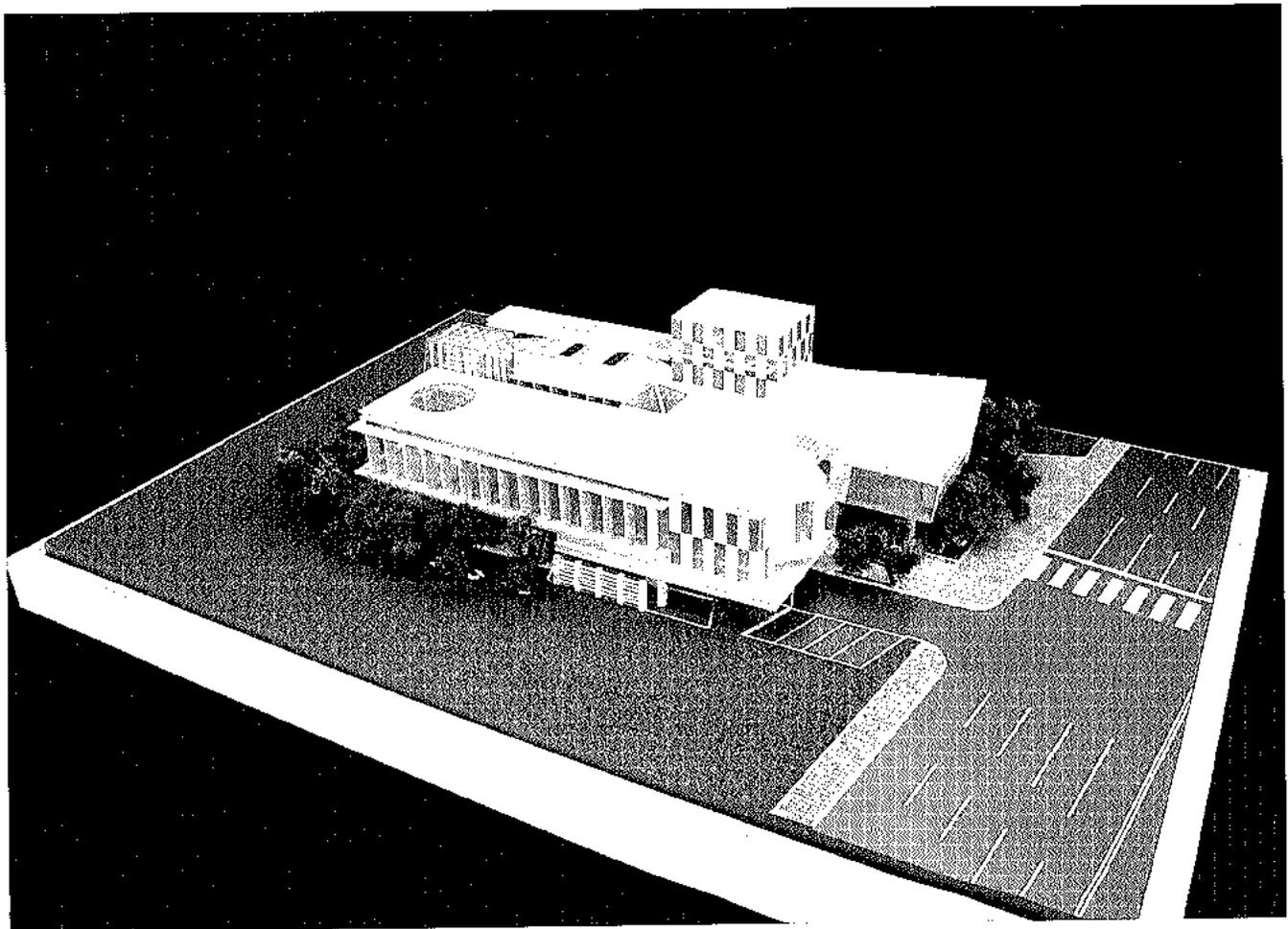
리 및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매스 계획 및 옥외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다.

평면 계획

이용편리 및 관리운영이 효율적이고 외부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동선 진입부분에 로비를 조성하여 개방감과 인락함을 부여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열람기능과 지원기능을 구분하여 다양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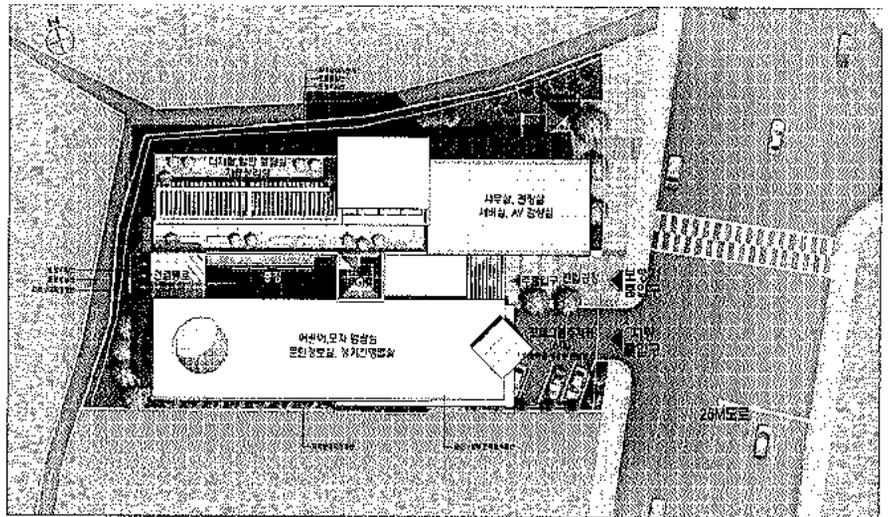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친근한 느낌의 조형계획 매스의 분절을 통한 입면의 다양성 확보와 정재 변화에 대응 및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입면계획 공시설로서의 랜드마크적 이미지부여 및 수직루버와 수평창살의 조화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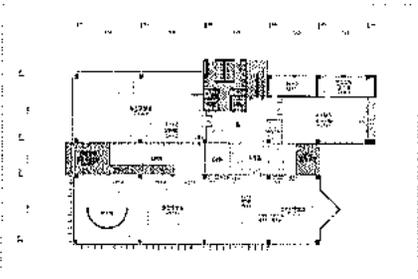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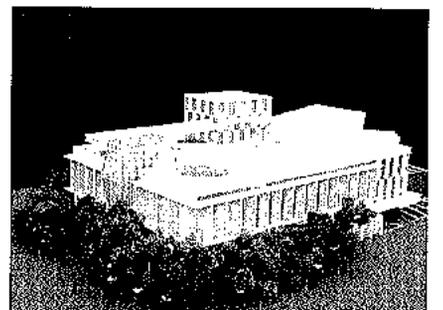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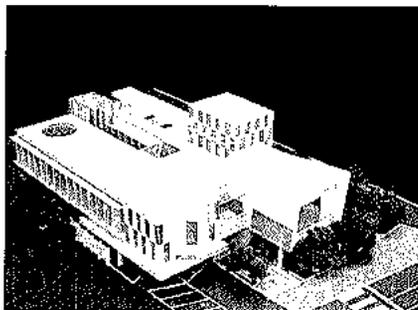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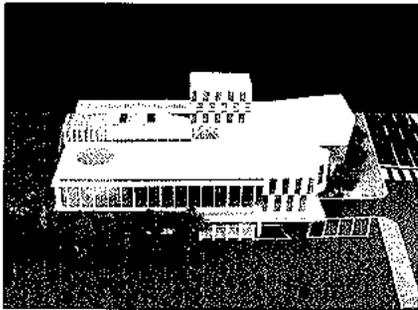
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이미지와 주민들의 정서 및 도시관을 상징하는 조형으로 계획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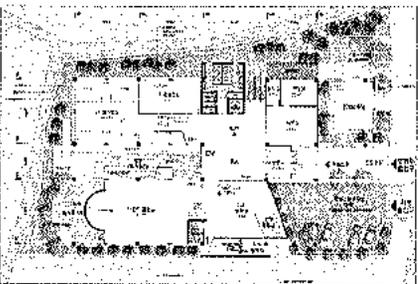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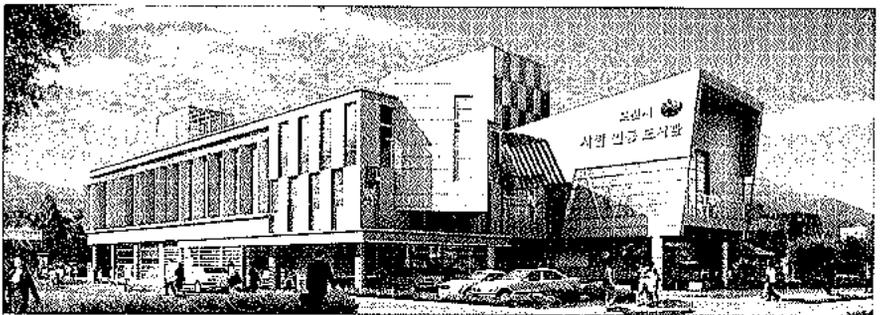
합리적인 모듈과 공간계획으로 적합한 단면 계획 사용 공간들의 층별 구성을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공간을 기능별로 집중화시켜 경제적인 층고 계획 에너지 절약계획에 의한 형태 및 단면 계획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에코 브릿지와 수직 전동 루버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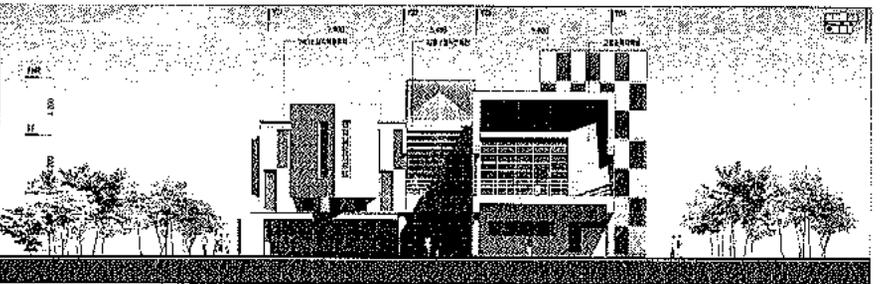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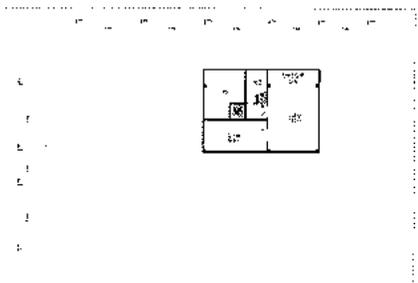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동측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정면도(남측면도)